책을 내면서

노래가 울린다.

격동의 세월, 활력의 새시대를 전하며 이 땅에 노래소리 드높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펼치며 약동하는 젊음으로 세계에 솟구쳐오르는 내 조국의 억센 기상, 사회주의조국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이 선률을 타고 강산에 메아리친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경이적인 사변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한없는 매혹과 흠모, 넘치는 환희와 희열, 불타는 충정과 열정, 가슴부푸는 긍지와 랑만, 강의한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노래되여 숭엄하게, 강렬하게,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노래는 시대의 숨결이고 맥박이며 시대의 호소이고 목소리이다. 노래를 하나로 엮으면 그대로 한 시대가 방불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피눈물의 언덕에 희망의 채광을 뿌리며 불덩이같이 솟아오른 해돋이였다. 저 멀리 가야 할 생눈길우에 힘있게 내짚은 뢰성같은 발걸음이였다. 환희롭고 멋있고 나날이 가슴이 설레이는 젊음의 시대, 약동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거대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 그 위대한 변혁을 펼친 지난 5년기간은 그 하루하루가

보통의 백날, 천날과도 대비할수 없는 격동의 나날이였다.

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척척 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정기 뿌리며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 나라 강산이 반기여 척척척
…

전설의 장수, 신화의 거인과도 같은 발걸음으로 이 행성을 진감시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천만군민이 터친 이 송가와 함께 밝아온 새시대였다. 노래 《발걸음》은 도래할 새 시대의 총적인 폭과 깊이를 가늠할수 있게 하는 장중한 서곡인 동시에 천출위인의 령도따라 위대한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천만군민의 지향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선군의 보검을 더 높이 추켜드시고 이 땅우에 인민사랑의 대서사시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백두산대국으로, 인민의 만복의 꿈이 이루어지는 황홀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나날이 전변되고 사회주의조선은 그 존엄과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신심과 행복이 넘쳐나고 일편단심 따르려는 충정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는 천만군민이

부르는 노래가 새 세기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그러한 노래들은 도시와 마을, 일터와 초소 그 어디에서나 울려퍼지고 일군들과 군인들, 늙은이, 젊은이, 학생들 할것없이 누구나의 입에서 울려나온다.

그들의 노래에서 지나온 나날들이 가장 아름답고 숭엄한 음악서사시로 펼쳐진다.

마치 이 땅의 남녀로소모두가 온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하여 연주하는 대교향곡을 방불케 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가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지향은 시대의 지향으로,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되고있다.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강성할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새겨주며 이 땅우에 울려퍼지는 노래!

한순간의 《불협화음》도 없이 거창한 교향곡이 울리는 속에 위대한 전변의 시대는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편집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이 땅에 널리 울려퍼지고 있는 노래들중에서 일부 가요들을 통하여 오늘의 시대정신과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대하여 해설하는 책을 내놓는다.

차 례

1. 강산에 차넘치는 인민의 환희

□ 새시대의 장엄한 서곡-《발걸음》

새날은 해돋이로 밝아오듯이 새시대의 려명은 위인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오늘 절세의 위인의 숭엄한 모습이 세기의 하늘가에 거연히 빛나고있다.

온 누리를 밝히는 태양의 모습과 천하를 휘여잡을 령장의 기상으로 시대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으신 희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 민족사와 세계정치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의미심장한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상사람들도 이 거창한 시대적흐름의 한복판에서 21세기를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위인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천만심장마다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과 절대적인 신뢰의 감정은 그대로 주옥같은 명가사와 심장의 울림과도 같은 명선률이 되여 력사의 오선지우에 련련히 새겨지고있다.

그 첫 송가에서부터 사람들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크나큰 환희와 기쁨, 희망찬 미래에 대한 락관을 한껏 터친다.

만민이 머리숙일 공적을 쌓은 위인에게는 그의 비범한 령도력과 출중한 인품을 찬양하는 송가가 따르기마련이다.

그러나 위인의 출현이 아직은 시대와 력사무대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벌써 인민이 스스로 지어부르는 송가들이 나타나는 충격적인 일이 있다.

인류음악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그런 희한한 위인송가들이 바로 우리 공화국에, 위대한 주체위업의 력사속에 새겨져있다.

일제의 군화발에 짓밟혀 신음하던 2천만겨레의 피멍진 가슴속에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재생의 희망을 불꽃처럼 안겨준 노래가 있었다.

그것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다.

주체문학예술사에서 첫 수령송가작품으로 뚜렷한 페지를 차지하고있는 이 노래는 민족자주위업이 닻을 올리던 시기에 시인 김혁이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그때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민족수난의 난파도속에서 민족자주위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민족운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뛰여난 위인적풍모에 한없이 매혹되여 그이를 암담한 조선의 밤하늘에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 비치는 새별로 높이 칭송한 노래 《조선의 별》을 지어불렀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며 창창히 울려퍼진 노래 《조선의 별》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벌써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신음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재생의 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청년혁명가들의 열화같은 칭송의 거세찬 분출이였으며 조선민족이 애타게 고대하던 비범하고 출중한 위인의 존재, 그 출현을 세상에 알리는 력사의 종소리였다.

송가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가득 안겨주고 그이 계시여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이 땅우에 조국해방의 새 아침은 기어이 밝아오리라는 굳은 확신을 깊이 새겨주며 어둡던 삼천리강산으로 메아리쳐갔다.

세상에는 위인을 칭송하는 시와 노래가 많지만 이처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으며 혁명의 초행길을 개척해나가는 10대의 걸출한 위인을 찬양한 송가는 일찌기 없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빼앗긴 조국과 짓밟힌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민족재생의 구성이심을 혁명실천과 투쟁을 통하여 체험한 우리 인민이기에 이렇듯 《조선의 별》과 같은 훌륭한 위인송가를 지어부를수 있었던것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민족수난의 고통속에 시달려 빛을 잃었던 온 겨레의 마음속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비쳐주고 민족적영웅의 새 출현을 알린 그 력사적의의로 하여 세기

를 이어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위인칭송의 첫 기념비적송가로 력력히 새겨져있다.

조선혁명의 력사에서 위대한 계승의 시대가 열리던 나날에도 우리 인민은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의 출현을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통하여 가슴벅차게 받아안았다.

노을이 피여나는 이른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별이 웃을 때
따사로운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으신
친애하는 지도자께 맹세합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마치 사회주의조선의 새 아침을 펼치며 태양이 솟아오르는듯한 눈부신 환희와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에 안긴듯 한 끓어오르는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위인송가.

송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문학예술부문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전성기를 일으키시며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대를 이어 충정을 다해 받들어모시려는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그대로 절절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태여나자마자 끝없는 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하여 불멸의 위인송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칭송한 첫 송가로서 주체적음악예술사에 수령흠모의 노래, 맹세의 노래로 뚜렷이 새겨지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이 송가들의 출현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수난의 력사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민족의 반만년력사에 덧쌓인 위인에 대한 애타는 갈망의 귀결이였고 위인과 혁명, 령도자와 조국, 수령과 인민의 운명이 하나로 련결될수밖에 없었던 조선혁명의 절실한 요구였으며 력사의 필연이였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편의 위인송가를 높이 부르며 1920년대와 1970년대의 전세대들이 체험했던 그런 강렬한 환희와 격정의 분출을 느끼고있다.

척척 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정기 뿌리며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 나라 강산이 반기여 척척척

척척 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기상 떨치며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 나라 인민이 따라서 척척척

척척 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위업 받들어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더 높이 울려퍼져라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척척척

구절구절마다 천출위인의 비범한 풍모에 매혹된 온 나라의 환희가 비껴있고 인민의 심장마다에 강성할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새겨주는 위인송가 《발걸음》!

노래는 어제도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는 인민의 태양복을 온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고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력사의 새시대의 장엄한 서곡이며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태양을 격찬한 위인칭송의 전주곡이다.

《발걸음》, 이것은 하나의 음악작품이기 전에 인민의 시야에 처음으로 비낀 위인의 모습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노래 《발걸음》이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기 시작한것은 오래전부터였다.

가사와 선률도 좋았지만 그 길지 않은 노래가 화폭처럼 그려보여주는 위인상이 마음에 들어 인민들은 너도나도 따라 불렀으며 나어린 학생소년들까지도 이 노래에 발맞춰 씩씩하게 행진해갔다.

노래 《발걸음》은 비상한 매력으로 만사람을 매혹시키고 끌어당겼다.

마치 려명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태양의 빛과 열을 느끼듯이 누구나 이 노래를 들으며 걸출한 위인의 존재를 의식하였고 이

노래를 따라부르며 아직 한번도 뵈온적은 없지만 분명 출중하고 비범한 영재이실 그이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력사의 새시대를 마중해나가는것과 같은 벅찬 희열과 랑만을 받아안았으며 김대장, 그이는 과연 어떤분이실가, 언제면 그이를 만나뵈올수 있을가 하고 소망해왔다.

그러던 주체99(2010)년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이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당보를 비롯한 신문들과 TV화면을 통하여 제3차 당대표자회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을 뵈옵게 된 인민들은 환희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터져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어쩌면 그리도 신통하실가, 어쩌면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 같으실가.

이것은 첫눈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순간 우리 인민이 저도 모르게 터친 감탄의 목소리였으며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넘친 진정의 토로였다.

누구나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해방직후 평양시민들앞에서 개선연설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려보았고 1960년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오시여 정열에 넘쳐 사업을 시작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을 되새겨보았다.

그이의 영명한 모습에서 인민들은 노래 《발걸음》을 들으며 느꼈던 북받치는 감정과 흥분, 위인에 대한 상상력을 직접 확인할수 있었으며 그것을 초월하는 위인의 인격과 풍모에서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활보해나가는 주체조선의 양양한 미래를

내다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겨레와 세계의 민심도 역시 다를바없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선군령도를 보좌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이의 영상과 노래 《발걸음》을 비롯한 위대성자료들을 널리 보도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젊은 대장, 새별장군, 청년장군, 김대장으로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민족의 휘황한 앞길을 밝히시는 새별로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떠올렸다.

《**김정은**대장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시면서부터 조선반도에는 새로운 력사의 장이 펼쳐지게 되였다. 북은 1980년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했다. 그때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새로운 중앙지도부 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는데 그것을 **김정은**대장님이 당대표자회직후 찍으신 기념사진과 대비해보면 30년을 사이에 둔 사진이 너무도 신통히 닮으셨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국의 AP통신은 《**김일성**주석과 꼭같은 **김정은**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이 **김일성**주석의 모습과 흡사하다.

김정은령도자의 모색과 행동거지는 **김일성**주석이 부활하지 않았는가고 생각하게 한다.

김정은령도자가 미소를 지을 때면 마치도 일제패망후 북조선

을 이끌던 33살의 **김일성**주석을 보는것과 같다.》

온 세계가 《부활》과 《환생》이라고 격찬한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걸출한 사상과 출중한 인격, 자애로운 덕망을 그대로 찾아볼수 있게 된것은 인민이 받아안은 가장 큰 행복과 영광이 아닐수 없다.

노래 《발걸음》은 이처럼 또 한분의 전설적위인의 거룩한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려보여주고 력사의 새시대를 예고해줌으로써 태여나자마자 인민이 사랑하는 명곡으로 널리 애창되였다.

《발걸음》송가의 사상적알맹이, 종자는 제목그대로 발걸음이다.

송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위인적풍모와 백두의 억센 기상, 억년 드놀지 않는 혁명의지를 발걸음이라는 하나의 형상적바탕에 모를 박고 해명하고있다.

《척척 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으로 시작되여 《척척척》이라는 발걸음소리로 끝나는 매 절의 가사와 그에 맞게 씩씩하고 기백있게 형상된 행진조의 선률이 하나로 일치되면서 송가는 시종 약동하는 전투적기운과 신심드높은 락관으로 일관되여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전설속의 거인이 천지를 울리며 힘차게 걸어가는것과 같은 신비스러운 형상과 함께 저도 모르게 그 발걸음에 너도나도 따라서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체험하군 한다.

보폭과 박력, 속도와 전진성은 발걸음의 기본속성이다.

오직 앞으로 힘있게, 씨원씨원하게 내짚는 걸음새만 보아도 그

인간의 신념과 의지, 성격과 기질을 충분히 가늠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처음 뵈올 때 인민이 한결같이 놀라움과 환희에 넘쳐 감탄한것은 무엇이였던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조선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너무도 꼭같이 닮으신 태양의 그 모습과 함께 유별나게 박력있고 보폭이 큰 활달한 걸음새였다.

마치 지구를 통채로 쿵쿵 울리며 한보폭에 10년, 20년도 비약으로 주름잡아나가는것만 같은 그이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들이 그처럼 사랑하며 즐겨 부르던 《발걸음》노래의 신통함에 저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노래 그대로였다.

전설속의 장수, 신화의 거인과도 같은 그이의 발걸음에는 오직 주체의 한길밖에 모르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었고 그 어떤 불가능도 도전도 있을수 없는 천하무적의 강대한 힘이 담겨져있었으며 최첨단도 한달음에 도약하여 정복할수 있는 《단숨에》기질의 거대한 보폭과 속도가 집약되여있었다.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그이의 영웅남아의 발걸음이 한번 찍히면 이 땅 그 어디에서나 기적은 단숨에 일어나고 사랑은 영원한 메아리로 남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오랜 세월 력사의 퇴적물로 쌓여있던 2.8비날론련합기업소 급수침전지의 방대한 량의 감탕을 단 며칠만에 송두리채 들어낸 《단숨에》신화창조의 나날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날이 갈수록 《발걸음》송가에 대한 인민의 사랑은 더욱 열

렬해졌다.

노래는 곧 최후승리를 향하여 과감히 전진해나아가는 오늘의 시대의 행진곡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그려보여준것만으로 노래 《발걸음》의 력사적의의와 그 가치를 다 말했다고는 볼수 없다.

이 노래는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계승의 불변성,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업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음악으로 대변하여 시대앞에 장엄히 선언하였다.

《2월의 정기 뿌리며》, 《2월의 기상 떨치며》, 《2월의 위업 받들어》라는 가사의 표현들은 비록 짧지만 주체혁명위업의 새시대의 려명이 어디서 밝아오며 무엇을 기치로 하여 펼쳐질것인가 하는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의미깊은 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에는 젊으신 백두산형의 청년장군의 탄생과 성장, 그이의 성격과 풍모, 삶의 신조가 함축되여있다.

《발걸음》노래를 부르며 축적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존경과 기대의 감정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가 열렸던 2010년 9월의 하늘가에 환호성의 분출로 터쳐올랐고 2011년 12월의 피눈물의 바다를 건너 절대적인 믿음과 다함없는 충정의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대국상의 나날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애와 상실의 아픔이 누구보다 크시였건만 자신보다 이 나라 천만군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친어버이의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그들을 한품에 안아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확신하게 되였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그이 새기신 발걸음은 결코 슬픔과 비애의 발걸음이 아니였다.

력사적인 주체101(2012)년의 첫 진군길우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신념과 의지의 발걸음이였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범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첫걸음을 어떻게 떼는가 하는것은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하물며 슬픔의 바다속에 잠긴 인민을 한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고 어깨를 바로잡아 한 나라, 한 민족을 용약 일으켜세워야 할 령도자가 첫걸음을 어떻게 떼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사가 아닐수 없다.

세계의 초점이 집중된 속에 2012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확고한 신념과 드팀없는 선군의지를 내외에 표명한 력사의 선언이였다.

이 신념과 의지의 첫걸음으로 시작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선대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의 발걸음으로, 뜨거운 인민사랑의 발걸음, 열렬한 애국헌신의 발걸음으로 이어져 오늘은 이 행성을 진감시키는 천출명장의 힘찬 발걸음으로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피눈물의 12월언덕을 분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력사의 출발

선에 나선 조선을 온 세계가 주시할 때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노래 《발걸음》의 대합창으로 조선이 어떤 길을 어떤 걸음으로 갈것인가에 대하여 온 세상에 명쾌한 대답을 주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은 확신성있고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력사의 새시대앞에 나섰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하는 위대한 조선의 발걸음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힘찬 발걸음이다.

새로운 력사의 진군길에 울려퍼지는 행진곡도 다름아닌 《발걸음》이다.

노래 《발걸음》은 이미 력사의 새시대의 서곡만이 아니라 **김정은**시대의 행진곡으로 되였다.

《발걸음 발걸음 더 높이 울려퍼져라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척척척》이라는 가사의 구절에도 있듯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창하고 당당한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겯고 최후승리를 향해 노도쳐 전진해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가 앞당겨지고있다.

천출위인의 위인적풍모와 기상이 나래치는 가요 《발걸음》의 노래소리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행성에 메아리치고있다.

주체101(2012)년 2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는 광명성절기념 《2월의 봄 음악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음악회장소는 재미동포들과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성원들 그리고 로씨야,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딸리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외교관들, 미국인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우륵교향악단 단장인 재미동포 리춘무가 지휘하는 관현악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조선의 장군》으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녀성독창 《축복받은 나의 삶》, 바이올린독주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관현악 《통일무지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필승의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관현악 《발걸음》이 장내에 울려퍼지자 전체 관람자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터쳤다.

사상과 정견, 피부색과 언어, 나라와 제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노래의 감정세계에 빠져들고 격동적인 정서적충동을 터치는 모습은 노래 《발걸음》의 세계적가치와 매력을 실증하는 참으로 의의깊은 화폭이 아닐수 없었다.

이러한 화폭은 노래 《발걸음》이 울리는 그 어디에서나 감동깊이 펼쳐지고있다.

매해 광명성절과 태양절을 계기로 미국에서 음악회를 여는 리춘무선생은 이에 대해 노래 《발걸음》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노래이다, 기백넘치는 이 노래를 들으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배짱을 보는것만 같다, 또 그이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소리가 들리는것 같아 힘이 용솟음친다, 이 노래가 울리면 미국인들도 박수를 쳐가며 열광하군 한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마음속으로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앞으로 미국땅에서 태양칭송의 노래들을 더 높이 울려가겠다고 격정에 넘쳐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이 땅의 천만군민은 지구를 흔들며 세계의 가장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당한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것이다.

□ 매혹과 신뢰의 메아리

세기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조국에 해빛을 받기여 피여나는 꽃송이마냥 천만군민의 심정을 반영한 위인송가들이 련이어 태여나고있다.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하늘가에 시대의 송가들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그 노래들속에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부르는 심장의 노래들이 있다.

《인정의 세계》, 《그 품이 제일 좋아》, 《그이 없인 못살아》, 《우리 어버이》,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노래제목들만 새겨보아도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격정이 가슴벅차게 안겨온다.

노래들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덕을 전하는 서사시가 되여 영원히 잊지 못할 감격의 화폭들을 펼쳐보이고있다.

《정깊은 그 미소에 눈굽은 젖고 따뜻한 그 음성에 마음은 젖네》, 《하늘같은 인덕과 믿음에 끌려 우리모두 따르며 사네》, 《꿈에도 믿고 사는 운명의 하늘 자애론 원수님은 우리 어버이》, 《온 세상 다 준대도 영원히 떠나서 못살 아 원수님 그 품이 제일 좋아》와 같은 가사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스승으로, 삶의 은인으로 우러러따르는 인민의 꾸밈없이 진실한 생활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매혹의 감정을 떠나 이렇듯 진실하고 격조높은 위인송가가 태여날수 없다.

정치가에게 있어서 사상이나 철학, 정치경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민심을 움직이는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다.

해빛을 찾듯, 생명의 요구와도 같이 인간은 사랑과 정을 갈망한다.

이러한 인간의 소망을 한몸에 체현한 정치가는 정의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추대되기마련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인덕의 정치가로, 온 나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친근한 령도자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인민의 운명을 맡아안으신 위대한 령도자, 천하무적의 강군을 거느리신 위대한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

이시다.

그 어떤 직함보다 먼저 정으로 인민과 가까워지시였고 그 정으로 인민의 심장속에 밝고 따스한 해님으로 자리잡으시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여지는것과 같은 12월의 대국상의 나날 조선인민은 가장 신성한 체험, 가장 운명적인 체험을 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통함에 피눈물이 고드름지고 상실의 아픔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들던 인민의 가슴속에서 불현듯 불덩이같은 오열이 터져나왔다.

억장이 통채로 무너져내린듯 한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한자한자 쓰신 지시문.

추운 겨울날 인민들이 추위에 떠는것을 보시면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고 하시며 장의행사기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는 그 간곡한 당부, 호상을 서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보장대책과 더운물보장대책을 철저히 따라세우고 일군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해야 하겠다는 따뜻한 가르치심이 슬픔에 잠긴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렸다.

12월의 강추위속에 달리던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어버이장군님을 생각하면 눈보라속에서 홑옷채로 열밤, 백밤을 지새운들 가슴에 응어리진 슬픔을 가실길 없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인데 손발이 차지고 귀가 좀 시린것이 무슨 큰일이였으랴.

허나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심장속에선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정이 불타고있었다.

은정어린 발열붙임띠를 쓸어보며, 발밑에 고여지는 불돌우에서 호상을 서면서 사람들은 따뜻하게 온몸을 녹여주는 어버이 사랑에 목이 메여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더운 김이 피여오르는 뜨끈한 꿀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도 사려깊은 어버이의 정이 흘러들었다.

찢기고 얼어든 가슴마다에 해빛처럼 따스히 흘러든 정, 그것은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주실수 있는 열화의 정, 다심한 어버이 사랑이였다.

피눈물속에서 받아안은 사랑과 정은 영원히 식지 않으며 가장 엄혹한 강추위속에서 맺어진 정은 뜨거운 혈연의 피줄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이어진 혈연의 정은 사랑으로 흐르는 날과 달속에 덧쌓여지며 더더욱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2012년의 첫아침 팔을 끼고 포옹하신 근위땅크사단의 병사들, 볼을 비벼주고 껴안아주신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 릉라도의 유원지건설장에서 불어치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가리우시며 몸소 펜을 잡고 설계도면을 그려주시던 정열의 모습, 유희장에 돋아난 잡초를 놓고도 일군들에게 인민복무의 정신을 새겨주시던 그 절절한 말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문도 없이 새집들이한 창전거리살림집의 현관으로 조용히 들어서시였다.

처음 들리신 집은 남편과 안해는 물론 두 딸까지도 교육자인 가정이였다. 두번째로 들리신 집은 로동자부부의 가정이였고 세번째로 찾으신 집은 신혼부부가정이였다. 제일먼저 찾아보고싶고 누구보다 품어주고 꼭 축복해주고싶으셨던 가정들이였다.

시종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그이와 늘 함께 사는 한집안식구처럼 한치의 간격도 없이 그이앞에 둘러앉아 행복에 울고웃는 세 가정의 모습을 온 나라가 다 보고 온 세상이 다 보았다.

《우린 다 수자와 공식만 푸는 수학계통의 교육자들이다나니 이런 꿈같은 감격을 표현할 말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소탈하시고 친절하시며 극진하신지 지금도 온종일 그이 생각뿐이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고와하시는지 장난이 세찬 우리 훈이를 두팔로 꼭 껴안아 무릎에 앉히시고 볼을 그냥 다독여주시며 글읽는 소리도 듣고 도화공작학습장에 그림그리는 방법도 배워주시였습니다. 엄마인 저도 미처 다 주지 못한 정을 그이께서 한꺼번에 다 쏟아주신것이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도 물어주시고 사랑의 축배까지 부어주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란 말을 소리쳐부르며 목메여 울었습니다.》

이 행성의 어느 하늘아래에서도 볼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 끝없이 밀려와 기슭을 치는 파도마냥 이 나라 민심을 세차게

흔드는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날과 달, 흐르는 세월로 되고있다.

정녕 류다르신분, 어쩌면 그리도 인민에 대한 정이 극진하실가, 어쩌면 그리도 속속들이 마음속에 스며들고 온넋과 심장을 휩싸안는것인가 하는 생각과 마치도 수십년세월 우리와 함께 계신듯 너무도 친숙하시고 강렬한 그리움에 눈물젖는 체험속에서 그 위대한 심장의 피와 정과 숨결을 보았다.

그이에 대한 친근감과 한없이 매혹되여 터치는 진정의 목소리 아름다운 선률로 엮어져 노래로 울려퍼지고있다.

어쩌면 그리도 친근하실가 정으로 따뜻한 미소
어쩌면 그리도 뜨거우실가 사랑에 불타는 심장
아 인민을 위한 길에 웃음도 눈물도 많으신분
저도 모르게 끌리였네 불같은 인정미에

어쩌면 그처럼 다심하실가 인민을 돌보는 손길
어쩌면 그처럼 가슴울릴가 정담아 하시는 말씀
아 인민과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시는분
어려움 잊고 안겨드네 어버이 그 품속에

억만금 준대도 인정은 못 사 세상이 부러워하네
저 하늘끝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한 인정의 세계
아 인민과 맺으신 정 혈연의 피줄로 이으신분
우린 한시도 떠나 못살아 원수님 그 품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뭉클 젖어오르고 부르면 부를수록 목이 꽉 메여오는 노래 《인정의 세계》!

가요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무한한 인정미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한없이 아름다운 인정의 세계는 진정한 인간애, 참다운 인간적의리와 결합되지 않고서는 발휘될수 없는 참으로 숭고한 감정세계이다.

력사의 갈피갈피를 깊은 추억속에 더듬어보느라면 슬기와 지략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도 있었고 무비의 용맹과 담력으로 뚜렷한 한페지를 기록한 명장들도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따를수도, 지닐수도 없는 무한한 인정의 세계, 사랑의 세계로 천만군민을 매혹시킨 그런 위인은 세상에 일찌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옵는 그 순간이 그지없이 기쁜 날이였건만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리도 눈물을 많이 흘리였고 그것을 보는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은 왜서 그리도 세차게 들먹이였던가.

현지시찰을 마치시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서며 군민이 어이하여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같이 차디찬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그토록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던가.

매혹이 없이는 이런 숭엄하고 아름다운 화폭이 펼쳐질수 없다.

인간이 인간에게 매혹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인민과 허물없이 마음속 진정을 터놓고 사시는분에게 매혹되는것은 너무나도 필연적인것이다.

음미해보면 볼수록 가사는 그 어떤 꾸밈도 가식도 없는 우리 인민의 마음의 분출 그대로이다.

특히 《인민을 위한 길에 웃음도 눈물도 많으신분》, 《인민과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시는분》의 가사표현을 음미해보느라면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저도 모르게 목이 꽉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정의 세계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세계, 전사들에 대한 끝없는 믿음의 세계인것이다.

그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한없이 고상한 세계이며 그끝을 가늠할수 없는 저 하늘에도 비기지 못할 무한한 사랑의 세계이다.

참다운 인간애, 너그러운 포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품은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따스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고 몰아치는 폭풍우속에서도 창창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게 하는 영원한 태양의 품이다.

이처럼 따사로운 품을 잠시라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진리인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가사의 구절구절마다에 뜨겁고도 절절하게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인간의 심장의 분출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은 훌륭한 인민에 대한 무한한 존중과 열렬한 애착, 진정한 매혹에 깊은 뿌리를 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시였고 오늘도 일편단심을 대를 이어 간직한 인민, 이런 인민에게 한없는 사랑을 기울이고 끝없는 행복만을 안겨주고싶은 이름할수 없는 진정이 온몸에 불길처럼 타오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하나의 로선을 제시해도, 정책을 하나 작성해도 인민들의 리익을 우선시하신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로 일군들이 인민들을 자기 부모처자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충복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신다. 인민을 괴롭히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해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를 모르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따라 인민의 리상과 꿈이 그대로 실생활로, 움직일수 없는 산 화폭으로 펼쳐진 나날들은 곧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원수님께 완전히 매혹되는 과정이였다.

하기에 오늘 이 땅에 생을 두고있는 그 누구의 가슴을 헤쳐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 그이의 높으신 인덕과 믿음의 세계가 숭엄히 자리잡고있으며 천만심장이 그이의 사랑과 정으로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누구보다 외롭고 정이 그리운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먼저 나라의 혜택이 사계절 폭포처럼 쏟아져 말그대로 그들이 만복의 첫 주인이 되여 부모없는 설음, 돌봐줄 사람이 없는 설음이란 말이 영원히 옛말로 되였다는 행복에 넘친 이야기.

예로부터 화재끝에 남는것은 있어도 큰물끝에는 남는것이 없다고 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에 재해속에서도 산천이 몰라보게 변모되고 재산이 더 늘었다는 큰물피해지역 인민들의 고마움에 젖은 목소리들.

릉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통일거리운동쎈터를 비롯하여 나라의 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선 유원지, 공원, 문화시설들 그 어디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흠모의 목소리들을 들을수 있다.

어찌 그들뿐이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량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누구든 다 품에 안아주고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우주와도 같은 도량에 의하여 재생의 광명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도 들을수 있다.

만사람을 울리는 진정에 넘친 이 목소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신뢰로 끓고있으며 그이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달아오르고있다.

천만군민의 이 심정을 담아싣고 이 땅우에 가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가 울려퍼지고있다.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펴주시며
꿈같은 행복만을 안기여주시네
(후렴)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령도자
 그이는 친근한 **김정은**동지

어버이정에 끌려 운명을 맡기고
그 뜻에 매혹되여 심장을 바치네
(후렴)

태양의 그 모습은 어머니 우리 당
위대한 그 이름은 선군의 이 조선
(후렴)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이것은 단순히 가요의 제명이기 전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신뢰의 메아리이며 위대하고 친근한 령도자를 모시고 그이의 참다운 동지, 전우가 되여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천만심장들이 터쳐올린 끝없는 행복과 영광의 웨침이다.

가사에서 친근한 부름속에 안겨오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은 우리 인민의 삶과 운명을 다 맡아주고 보살펴주시는 태양의 모습이다.

우리 인민 누구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소중히 간직된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신뢰심은 지나온 삶을 통하여 진리로 확증된것이며 신념의 기둥으로 든든히 뿌리내린것이다.

오늘 가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선군의 내 조국을 빛내여나가는 힘찬 진군길에서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신뢰심, 열렬한 사랑과 경모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곡, 전인민적송가로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오직 자기 령도자에게 진심으로 매혹되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신념으로 만장약된 인민만이 이런 위인흠모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를수 있는것이다.

추호의 주저도 없이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그이께 모두 맡긴 천만군민의 마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운명의 하늘이시고 삶의 태양이시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으로 끝없이 앙양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열화같은 매혹과 다함없는 흠모의 목소리는 주옥같은 명가사와 심장의 울림과도 같은 명선률로 이어져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그칠새없이 흘러나오고있다.

□ 복받은 인민의 노래

이 나라 강산에 격정의 파도가 일고있다. 세계가 위인흠모의 열기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의 최고령도자로 세계정치무대에 등장하신것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그이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이 백승의 한길로 꿋꿋이 전진해나갈수 있는 만년기틀을 마련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이 땅우에 자력자강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만리마의 시대, 창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찬사와 흠모의 목소리는 시대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존경심, 놀라움, 경탄, 이것이 세계의 진보적인 사회계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21세기 행성의 태양으로 우뚝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해 내린 평가와 감정을 함축하여 표현한것이다.

매일과 같이 세계보도망을 꽉 채운 조선의 경이적인 사변들을 시청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혜성

처럼 솟아오른 젊으신 령도자》, 《독특한 친화력과 매력을 지니신 인민적정치가》, 《현대정치가, 현대군사가의 귀감》, 《세계적인 리상형의 지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세계는 탁월한 령도적자질과 정치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보다 강대해질 조선의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불과 몇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그처럼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 흠모열기가 매우 뜨거우며 범위에 있어서 전세계적이고 그 평에 있어서 그렇듯 매혹적인 찬사를 받는 위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밖에서 느끼는 세계의 민심도 이러할진대 매일 매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조국의 벅찬 현실속에서 체험하는 이 땅의 천만군민의 위인흠모열기는 어떻게 달아오르고있는가.

그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송가들에 실려 천하제일위인,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나래친다.

《**김정은**장군찬가》,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우리의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노래들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를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맞이한 천만군민의 격정을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이 찬가들의 구절구절은 시어이기 전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눈부신 번영기를 펼쳐나가는 세기의 위인, 천출위인을 우러르는 천만군민의 환희의 심정 그대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시련의 광풍속에서 조선혁명이라는 기관차를 힘있게 이끄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숫눈길우에 빛나는 승리를 아로새기시였다.

모든것이 그이의 결심대로 흘러왔다.

그이께서는 대세를 자신의 신념과 의지대로 확고히 틀어잡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희망의 언덕, 번영의 언덕으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비상히 풍부하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는 그이의 사상과 리론은 시대의 변천과 복잡다단한 정세의 흐름속에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완성의 길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울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여 공화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최후승리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결사보위하는 천하무적의 최정예강군으로 위용떨치고 공화국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섬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가 억척같이 담보되게 된것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령활무쌍한 령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청년들을 위하여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도 아낌없이 들이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조선의 청춘들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시대의 선구자로 억세게 자라나고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지칠줄 모르는 애국의 열정을 북돋아주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적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되게 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의 지름길이 열리고 자력자강으로 첨단을 돌파하는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고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 표준으로 되는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그이의 애국헌신의 로고에 의하여 조국땅우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졌으며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을 비롯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사랑하시는 그이의 위대한 품이 있기에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졌으며 온 나라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 인민의 리상이 꽃

펴나는 사회주의선경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대한 사변들을 다계단으로 일으키며 만리마속도로 비약해나가는 공화국의 장엄한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이라는 철리를 새겨주고 사회주의만복을 누릴 그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가슴가득히 안겨주고있다. 그럴수록 그이는 강대한 조선의 힘이고 승리의 기치이시라는 체험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천만군민의 바로 이러한 격동적체험이 찬가들의 주옥같은 구절마다에 맥동치며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를 터친다.

《강대한 조선의 기상》, 《높뛰는 조선의 심장》, 《천만의 슬기론 지혜》, 《영원한 우리의 행복》, 《눈부신 세기의 태양》, 《찬란한 승리의 기치》, 《우리의 영광》, 《운명의 하늘》, 《마음의 기둥》, 《천만을 안으신 어버이》, 《지혜를 주시는 스승》, 《인민을 지키는 장군》, 《온 세상 밝히는 태양》…

위대한 사상과 백승의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그처럼 짧은 기간에 민심을 완전히 틀어잡으시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승리를 이룩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여 인민이 사랑하는 령도자, 세계적위인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행운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니지 못한 수령복, 령도자복을 받아안은 환희와 격정이 온 나라에 파도마냥 끝없이 물결치고 인민들모두가 가슴뿌듯한 희열에 넘쳐 행복하게 살고있는것이 바로

오늘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태양의 축복속에 만복이 꽃펴나는 이 땅우에 사람들을 아름다운 환희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가요 《인민의 환희》가 경쾌하게 울려퍼지고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일어라
천하제일위인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자부심이여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
영광속에 행복속에 존엄높이 살리라
…

이 땅우에 터쳐오르는 환희의 축포와도 같이 사람들을 무한한 격동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노래.

가요 《인민의 환희》는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는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자긍심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요에서는 인민의 심장속에서 분출하는 열광의 환희가 어떤것인가를 꾸밈없이 진실하게 인민의 생활감정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일어라》는 가사의 구절에도 있듯이 걸출한 위인을 모신 인민만이 체험할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감정이 비껴흐르는 이 노래의 구절들을 새겨보느라면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희를 터치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눈앞에 삼삼히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감격과 기쁨에 넘쳐 당대회장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들에서, 열병광장에서 천만군민이 목청껏 터치던 열광의 환호, 그이 가시는 곳마다에서 남녀로소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만세의 함성소리,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민족사적사변을 경축하는 행사장들마다에서 울려나온 흠모의 메아리…

이것은 정녕 만민이 공인하고 열렬히 칭송하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더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의 발현이였으며 인민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신뢰심의 분출이였다.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 이것은 인민이 신념으로 간직한 변함없는 삶의 신조,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격동적이면서도 박력있는 선률에 담아 격조높이 노래한 가요 《인민의 환희》가 가져다주는 충격과 여운은 참으로 크다.

지난 몇해사이에 우리 조국은 인민의 꿈이 현실로 꽃피는 위대한 전변으로 하여 더더욱 아름다와졌고 인민의 생활은 희망으로, 환희로 가득찼다. 조국의 존엄과 위력은 더욱 강대해지고 인민의 리상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인민의 모든 락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문명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사람들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삶의 진리로 간직하였다.

이렇듯 아름답고 가슴벅찬 현실이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실생활을 통하여 절감한 인민이 터치는 크나큰 격정과 환희는 그대로 가요 《인민의 환희》속에서 흘러나오고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신 끝없는 행복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한껏 터치고싶었던 환희의 감정을 가슴후련하게 대변해준 가요이기에 인민들은 이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며 즐겨 부르고있는것이다.

환희로 북받친 인민의 마음을 펼쳐놓으면 또 한편의 노래가 아름답게 엮어진다.

…
대대로 안겨사는 태양의 그 품 따르며 받드옵니다
세상에 우리만 누리는 행운 인민은 노래합니다
우리에겐 제일 위대한 원수님이 계십니다
천만심장 바쳐 모셔갈 원수님이 계십니다

들을수록 신심넘치고 부를수록 가슴 벅차오르는 이 노래의 제목은 《복받은 인민의 노래》이다.

누구나 다 바랄수 없는 꿈같은 행복만을 누리며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복받은 우리 인민!

오늘 이 나라 인민이 받아안은 복중의 가장 큰 복은 과연 무엇인가.

지심깊이 매장된 값비싼 광맥인가 아니면 기름진 광야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태여 다른데서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가요 《복받은 인민의 노래》가 이것을 정서적으로 대변해주고있기때문이다.

가사의 구절에도 있듯이 세상에 우리만 누리는 복중의 가장 큰 복은 대대로 태양복을 안고 사는것이다.

세상에는 제나름의 복들도 많지만 그 많은 복들을 다 합친다 해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만이 대대손손 누려가는 수령복, 장군복, 령도자복이다.

이것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인민도 가질수 없는 우리의 긍지, 우리의 자부이며 천만금을 준대도 바꿀수 없는 세상제일 고귀한것이다.

어제날 민족수난의 고통속에 방황하던 우리 인민이 탁월한 수령을 모시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주적인 인민으로 등장하였으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백두산장군을 진두에 모시였기에 제국주의렬강들의 갖은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인간의 존엄높은 삶을 누릴수 있었으며 오늘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를 받들어모심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의 주인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세상에 둘도 없는 복락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다.

하기에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꾸지 않을 그 숭고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은 복중의 가장 큰 복은 수령복, 영원한 태양복이라고 긍지높이 구가하는것이다.

가요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제일 강하신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끝없는 영광과 긍지,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천만의 소원도, 천만의 운명도 모두 꽃펴주시고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심장을 바쳐 받들어갈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절절한 서정속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가요 《복받은 인민의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영원한 태양복을 대대손손 누려가는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하여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환희로 한껏 부풀게 하여주고있다.

이밖에도 가요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친근한 우리 원수님》, 《금방석》, 《한마음 따르렵니다》 등의 노래들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태양복을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가슴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오늘 이 땅우에 넘쳐흐르는 위인칭송의 노래들은 온 나라 인민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고있다.

□ 그리움의 노래 강산을 울린다

날을 따라 더욱더 강렬해지는 절세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세계, 여기에는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생각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절절한 그리움의 마음이 맥박치고있다.

그리움은 인간의 감정세계에서 가장 소중한것이며 아름다운 정서이다. 강요할수도 없고 지어낼수도 없는것이 바로 인간의 그리움인것이다.

이러한 그리움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부모와 처자, 고향과 친척, 친우들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세부들에 이르기까지 꼽자면 아마 끝이 없을것이다.

그 그리움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기억에서 사라지는것이 있는가 하면 순간에 강렬해졌다가 순간에 식어버리는것도 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이 땅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그리움,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누구나 안고 사는 하나의 그리움이 있다. 쏟으면 불덩이같은 매혹의 용암이 되고 글줄로 옮기면 열백밤을 새워도 못다 전할 흠모의 서사시가 되는 인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차게 소용돌이치는것은 낮이나 밤이나,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운명의 명줄처럼 간직되여 뜨겁게 고패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이다.

이 세상 모든 그리움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크고 열렬한 그 그리움의 마음을 송가들은 뜨겁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리움은 나의 행복》, 《뵙고싶었습니다》, 《간절한 마

음》, 《뜨거운 정》,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자나깨나 원수님생각》…

제목부터 자나깨나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안고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의 심정이 가슴에 닿아온다.

그 몇편의 노래를 통하여서도 인민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그리움의 세계를 알수 있다.

가요 《그리움은 나의 행복》은 자나깨나 항상 마음은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려가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뜨겁고도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생동한 음악적형상속에 담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눈부신 그이 영상 그리며 행복에 설레이던 마음
깊은 밤 꿈속에서 뵈오면 그 기쁨 진정할수 없네
이 아침 꿈처럼 오시려나 사무친 그리움 더욱 간절해
마음은 나래쳐 마중가네 원수님 오실 그 길에

원수님 우릴 찾아오시면 기쁨만 아뢰이고싶어
위훈의 그 자욱을 수놓아 날과 달 꿈결같이 가네
오늘도 꿈처럼 모시고파 사무친 기다림 더욱 간절해
마음은 남먼저 달려가네 원수님 오실 그 길에

가슴에 그리움이 없으면 인생은 해가 없는 하늘
그이를 몸가까이 뵈옵는 그보다 더 큰 행복 몰라
날마다 꿈처럼 뵙고싶네 친근한 아버지 우리 원수님
마음을 언제나 잊고 사네 원수님 오실 그 길에

가요에서는 일을 하여도, 잠자리에 누워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그리며 그리움속에 새날을 맞고보내는 천만군민의 흠모의 고결한 세계에 대하여 뜨겁게 노래하면서 그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 인간들의 참된 인생관, 행복관에 대하여 새롭게 밝히고있다.

단 하루라도 화면과 지면으로나마 더없이 매혹적이고 친근하신 그이의 영상을 뵈옵지 못하면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고 단 한번이라도 먼발치에서 우러러뵈옵기만 하여도 한생을 그 벅찬 행복과 영광의 순간에 사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돈에 준하여 인생이 결정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수도 없고 꿈꿀래야 꿈꿀수도 없는 참된 인간들의 고결한 그리움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하늘아래서 꽃펴나고있음을 가요는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가요 《그리움은 나의 행복》은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를 행복관과 결부시켜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히고있다.

가사의 매 절들마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마음은 나래쳐 마중가네》, 《마음은 남먼저 달려가네》, 《마음을 언제나 잊고 사네》와 같은 시적표현들은 인민의 마음속에서 용암마냥 끓어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의 세계를 보다 강렬하게 보여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 창조되고 일어나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놀라운 기적과 위훈들모두는 어느것이나 다 그리움과 잇닿아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자들이 북방의 혹한속에서 최악의 역경을 이겨내고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기적

의 밑바탕에도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아름답고 순결한 정의 세계가 깔려있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불꽃튀는 기적과 창조의 위훈속에도 그리움의 세계가 뜨겁게 소용돌이치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헌신의 열정을 바쳐가고 인민은 령도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창조와 위훈속에 날과 달을 이어가고있는것이 오늘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인민을 찾아가시는 길에서 인생의 더없는 락을 찾으시는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인민관에 매혹되여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신뢰하고 따르며 일편단심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투철한 수령관에 의하여 오늘 우리 조국의 힘은 세계의 상상봉에로 치달아 그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인민에 대한,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였더라면 이 땅의 모든것은 결코 경이적일수도 놀라울수도 없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불타는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는 또한 가요에서 《눈부신 그이 영상 그리며 행복에 설레이던 마음》, 《원수님 우릴 찾아오시면 기쁨만 아뢰이고싶어》, 《가슴에 그리움이 없으면 인생은 해가 없는 하늘》과 같은 표현들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있다.

특히 3절 가사에서 《가슴에 그리움이 없으면 인생은 해가 없는 하늘》이라는 형상적인 표현은 우리 인민이 왜 그리움을 더없는 행복으로 간주하고 살아가고있는가 하는 물음에 철학

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만물에 생을 주고 자양분을 주는 저 하늘의 태양이 없이는 인간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가요에서는 인생을 하늘에 비유하고 그리움을 가슴속의 해와 같은것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가사의 형상성을 보다 높이면서도 우리 인민의 인생관, 행복관에 대하여 심오하면서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이처럼 가요 《그리움은 나의 행복》은 그가 담고있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그리움의 송가로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이 강산을 울리는 그리움의 노래들중에는 가요 《뜨거운 정》도 있다.

지금은 어데 계실가 그 어디 먼길가실가
날마다 내 가슴에 그리움 샘솟습니다
아 그 정은 뜨거운 그 정은
원수님과 맺고 사는 그리움의 샘물입니다
…

가요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피보다 진한 정은 그리움이 샘솟게 하는 원천이라는데 대하여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뜨거운 정!

정에도 자기 언어가 있고 자기 본능의 힘이 있는 법이다.

심장에서 나와 심장으로 흘러드는 정은 어쩔수없이 활활 타오르는 그리움의 불길과도 같다.

령도자와 인민의 심장이 하나를 이루고 정과 정이 합쳐 대하를 이룬 이 세월속에서 뜨겁게 굽이치는것이 바로 그리움인것이다.

가요의 구절에도 있듯이 인민의 마음속에 흐르는 뜨거운 정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혈연의 정을 맺고 사는 그리움의 샘물이다.

이러한 그리움의 샘이 어찌 비단 인민의 심장속에서만 솟아나는것이겠는가.

령도자와 전사사이에 오고가는 혈연의 정과 열렬한 그리움의 세계를 반영한 노래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정서적충동을 안겨주고있다.

깊은 사색과 그윽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내면독백과도 같이 울리는 노래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는 병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가장 귀중한 혁명전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과 친근한 음성을 자나깨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인민군군인들의 열렬한 흠모의 세계, 그리움의 사상감정을 생동하게 그려보여주고있다.

오늘 조국보위초소에 선 우리의 미더운 병사들의 무쇠가슴을 헤쳐볼 때면 뜨거운 불덩이같은것이 솟구쳐오른다.

우리 병사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목마라도 태워주고싶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늘 병사들과 인민을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라고 간곡히 이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감격에 젖어 눈물을 쏟던 인민군

군인들.

이른새벽 병실에 들리시여 단잠에 든 병사들의 잠자리를 두손으로 짚으신채 온도도 가늠해보시고 병사들이 깨여날수 있으니 조용히 밖으로 나가자고, 단잠에 든 병사들을 보고 구수한 땀냄새를 맡으니 쌓였던 피로가 다 가셔진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근한 그 음성을 가슴에 안고 자나깨나 그이를 절절히 그려보는 우리의 병사들이다.

잠들줄 모르는 서해의 파도소리를 귀담아들어보라.

거기에는 온 세계를 놀래우며 날바다를 헤가른 그 가슴저린 목선의 발동소리만 깃들지 않았다.

공기마저 화약내같던 최전방섬초소로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군들이 만류하였을 때 아무리 무도가 위험하고 바다길이 사나와도 무조건 가겠다고, 동무들이 정 막아나서면 자신께서는 헤염을 쳐서라도 무도에 기어이 갈것이라고, 무도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병사들이 있다고 하시던 그이의 음성이 뢰성마냥 심장을 울린다.

동해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아도 눈시울이 젖어온다.

전투임무수행중 장렬하게 희생된 해군용사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그들 한사람한사람의 사진을 눈물속에 쓸어보시며 잠 못 이루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멀고 험한 길을 달려 그들이 복무하던 부대가까이에 안치된 용사묘를 찾으시여 몸소 묘주가 되여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끝끝내 병사들의 무쇠심장을 격동시키고야말았다.

사랑이라면 심장을 통채로 주는 사랑, 믿음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서슴없이 맡기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분을 어찌 병사

들이 따르지 않을수 있으며 그리워하지 않을수 있으랴.

가요의 1절에서는 사랑하는 전사들을 마음에 두시고 한사람한사람 정답게 그려보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이 눈에 어려와 절절한 그리움에 목메이는 우리 병사들의 사상감정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새가 되여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산을 넘고 구름넘어 원수님 계신 곳에
전사들 그려보실 그이 영상 눈에 어려
이 한밤도 못견디게 그립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있어도 어버이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거침없이 창공을 날으는 새에 실어보는 이 노래의 형상세계는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2절에서 더욱 승화된다.

따사로운 그이의 시선 이 몸에 닿아있어
천리 먼곳 홀로 가도 외로움 모르는 맘
전사의 심장속에 조국으로 간직한 품
원수님의 안녕만을 바라옵니다

가요의 2절에서는 천리 먼곳에 홀로 가도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시선과 보살피심속에 포근히 싸여있는 행복한 삶인것으로 하여 전사는 결코 외로움을 모르며 바로 그렇듯 위대한 품이 심장속에 조국으로 간직되여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우리 병사들의 사상정서적발전과정이 생활의 론리, 감정의 론리에 맞게 잘 반영되여있다.

가요의 3절에서는 영용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밑바탕에는 과연 무엇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으며 령도자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해빛같은 원수님영상 가슴에 지녔기에
포연탄우 뚫고가도 두려움없으리라
전사의 승전보고 그이 품에 닿는다면
이내 몸은 못 간대도 영광입니다

노래는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참된 동지부대, 진정한 전우부대로 억세게 성장해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현실을 구체화된 내면세계를 통하여 섬세하면서도 감명깊은 서정의 울림으로 펼쳐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세차게 틀어잡고있다.

이렇듯 가요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는 장편예술영화의 훌륭한 절정장면을 보는것과도 같은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고있다.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적여운과 감흥을 안겨준 그리움의 노래들가운데는 가요 《간절한 마음》도 있다.

가요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미소와 정깊은 음성이 못견디게 그리워 자나깨나 마음은 항상 그이께로 달려가고

한번 뵈오면 또 뵙고싶어 그리움속에 늘 기다리며 사는 인민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제목화하여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눈을 감아도 어리여오네 그이의 환하신 미소
꿈속에서도 울리여오네 그이의 정깊은 음성
아 그 어디에 계실가 자애론 우리 원수님
달려가 뵙고파 그 말씀 듣고파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간절한 이 마음

멀리 있어도 곁에 있어도 언제나 간절한 마음
한번 뵈오면 또 뵙고싶어 기다려지는 이 마음
아 그 언제면 뵈오랴 우리의 원수님 생각뿐
오늘은 오실가 래일은 오실가
기다림에 가슴 태우며 위훈을 수놓네

날이 갈수록 우리 가슴에 불같이 타는 그리움
만난을 이길 의지가 되고 기적의 힘이 되여라
아 원수님을 그리며 충정의 날과 달을 새기네
영광의 그날을 감격의 그날을
안고 사는 간절한 마음 뜨겁게 불타네

오늘 우리 인민이 제일 기뻐하는 순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순간이며 온 나라 인민들의 가장 큰 소원도 친근하신 그이를 몸가까이 만나뵙는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비바람 세차고 눈보라 몰아

치는 험한 길을 걷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이의 현지지도소식을 이제나저제나 손꼽아 기다리는것이며 깊은 밤 잠결에서도 그이의 발걸음소리가 기다려지고 일을 하다가도 글을 쓰다가도 문득 기대와 포전에서 꿈과 같이 만나뵈올것만 같아 가슴 울렁이는것이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이 아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 곧 그이께로 달려가는 길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새긴 인민이기에 만난시련을 강의한 의지로 맞받아뚫고 충정의 날과 달을 이으며 세인을 경탄케 하는 놀라운 기적과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고있는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 이것은 오늘 만난을 이기는 견인불발의 의지이고 눈부신 기적을 안아오는 불패의 힘이다.

가요 《간절한 마음》은 이러한 인민의 열렬한 그리움의 감정세계를 현실생활과 결부시켜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보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면 부를수록 깊은 사색과 여운의 파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세계를 절절하게 감명깊게 펼쳐보이는 송가들이 수없이 태여나 온 나라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적시며 이 땅우에 울려퍼지고있다.

그리움이라는 말이 생겨 오랜 세월이 흘러왔어도 그 어느 나라에 우리 인민처럼 이렇듯 깨끗하고 숭고하고 가장 뜨겁고 열렬한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인민이 있었던가.

바로 이 절절한 그리움은 태양민족 조선인민만이 지닐수 있

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의 발현이다.

날이 가고 해가 가도, 강산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조금도 식지도 희미해지지도 않을 령도자에 대한 이 그리움은 갈수록 더더욱 열렬한 감정으로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불타는 사상감정으로 승화될것이다.

□ 천만의 념원에 비낀 충정의 세계

우리 조국을 세계에 둘도 없는 인민의 락원으로 기어이 일떠세우시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쳐오신 헌신과 로고는 끝이 없다.

낮과 밤의 흐름은 변함이 없건만 인민이 단잠에 깊이 드는 한밤에도 그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민사랑의 열원이 쉼없이 불타오르고 내 나라의 새벽문과 저녁문은 언제나 그이의 손길에 의하여 열리고 닫기였다. 그런 날과 달속에서 우리 인민 한사람한사람의 운명과 생활에 거대한 변혁과 혜택을 안겨줄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가 완성되여갔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무수히 태여났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이 맺고 사는 뜨거운 그 정은 그리움과 고마움의 감정을 넘어 그이의 안녕을 절절히 바라는 충정의 마음으로 승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와 심혈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이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념원은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되여 충정의 송가로 울

려퍼지고있다.

새벽문 여시고 떠나신 그 길
지금은 어데 계실가
온 나라 돌보는 발걸음소리
꿈에도 들려옵니다
(후렴)
  원수님 우리 원수님 목메여 불러보며
  가시는 천만리길 인민은 따라섭니다
…

심장의 글줄을 읽는것 같고, 진정에 넘친 목소리를 듣는것만 같은 이 노래의 제목은 인민들이 자나깨나 친근하게 불러보는 그대로 《우리 원수님》이다.

가요 《우리 원수님》은 인민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꾸밈없는 형상속에 담아 진실하게 그려보이고있다.

《새벽문》, 《어데 계실가》, 《온 나라 돌보는 발걸음 소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평범한 시어들이다.

가요의 첫 구절을 새겨보느라면 조선의 첫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는 길에서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침식도 아예 잊으시고 분망한

시간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언제인가 한 일군이 인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절절히 아뢰인적이 있었다.

《이제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잠도 제시간에 드시고 식사도 제시간에 하셔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의 그 간절한 부탁에 고맙다고, 자신께서는 일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 이 나라의 첫새벽을 남먼저 맞으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 오늘에 와서 당과 국가, 군대사업을 다 맡아안고보니 장군님께서 왜 생전에 하루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시였는가 하는것을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결연하신 음성으로 자신께서는 한생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방식, 생활방식을 따를것이며 이제부터는 장군님을 대신하여 자신께서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의 첫 새벽문!

예로부터 첫 새벽문을 여는 사람에게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차례진다는 뜻이다.

언제나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열어나가실 결심을 굳히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자신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로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자리잡고있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담긴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며, 집집마다에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며, 초소의 병사들을 따뜻이 돌봐주시며 날마다 이 나라의 첫 새벽문을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로 열어나가고 계신다.

인민을 행복의 요람속에 재우시고 먼동이 트기도 전에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그이의 발걸음소리는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 조국이 힘차게 전진하는 소리로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단잠에서 깨여나기도 전에 자기 생활의 가장 가까이에 오셨다가 또다시 로고의 먼길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절히 그리며, 그이 가시는 높고 험한 산발마다에 마음을 따라세우며 지금은 어데 계실가 하고 목메여 불러보는것이다.

가요의 이런 사상감정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인민사랑의 무수한 이야기들을 눈앞에 떠올리며 2절에서 더욱 승화된다.

인민의 기쁨을 안겨주시려
옷자락 마를새 없고
만복의 별세상 펼쳐주시려
이밤도 지새십니다
(후렴)

2절 가사는 그야말로 우리 인민이 아침저녁으로 보고 듣는

실생활이며 산 화폭이다.

이 나라의 머리흰 늙은이로부터 나어린 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스럼없이 이야기할수 있는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표현, 아무런 채색도 더해지지 않은 소묘와도 같은 시어들이지만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헌신의 자욱을 돌이켜보는 인민의 마음은 실로 뜨겁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장철 수수한 인민복차림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천만아들딸들을 돌보시며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든 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뜨거운 폭양이 쏟아져내리는 한여름에도 인민복을 벗으신적이 없었다.

마를새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자락은 결코 세월의 눈비로 해서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그이의 인민사랑의 열기가 이 땅에 내리는 눈비를 모두 합친것보다 더 진하고 끝없이 샘솟는 헌신의 땀방울로 맺혀져 마를줄 모르는것이 아니던가.

그이의 옷자락이 땀에 젖을 때 인민에겐 시원한 그늘과 향유의 기쁨이 안겨졌고 그이께서 지새시는 밤들이 늘어갈 때 인민이 안겨살 행복의 보금자리가 더 희한하게 변모되여 갔다.

뜨거운 폭양이 쏟아져내리는 어느해 여름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들어서신 온실안은 40°C를 넘어서 그이의 목깃은 땀으로 푹 젖어있었다.

다시는 이런 험한 길을 걷지 말아주시기를 절절히 아뢰이는 농장일군들에게 난 이런 곳이 더 좋다고, 계속 오고싶은 곳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 깊은 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지하철도의 개선역에 나오시였다.

평양시민들이 잠든 그 시각 그이께서는 깊은 땅속길을 오가시며 인민이 타고 다닐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첫 손님이 되시여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낮에는 낮대로 인민생활향상의 전구들을 찾아 초강도강행군을 하시고 밤에는 밤대로 첨단문명의 지름길을 앞장에서 열어가시며 심야강행군을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하기에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를새 없는 옷자락을 노래하면서 우리 인민의 모든 영광과 승리, 행복과 번영의 은인들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옷자락을 생각하는것이며 대를 이어 누리게 된 더없는 행운에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가요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 헌신의 대명사와도 같은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끝없이 울려가시며 오늘도 험한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노래하고있다.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끝없이 울려가시며
오늘도 험한 길 걸으시는분
안녕을 바라옵니다
(후렴)

우리 조국이 강대해진다면, 우리 인민이 남들보다 더 잘 먹

고 더 잘 입고 더욱 행복할수만 있다면 설사 한알의 모래알처럼 작아질 때까지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다 바치실 고귀한 희생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완공을 앞둔 세계적인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마다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뜨거운 심중을 눈물없인 돌이킬수 없다.

그렇게 인민을 위한 웃음꽃,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이 땅이 비좁도록 가득 채워주시였건만 그이께서는 정녕 단 한순간도 만족을 모르신다.

대동강에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행복의 새 배를 띄워주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의 심장속에 끓어번지는 소원의 불덩이를 터치시듯 뜨겁게 하신 말씀은 우리 인민의 마음을 젖어들게 하고있다.

《무지개》호는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모래알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아야 합니다. …

모래알!

인민을 위한 그 업적 쌓으면 벌써 하늘에 닿으련만 자신의 그 모든 헌신과 로고의 산물을 그리도 작은 모래알에 비기시니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의 시작은 어디이고 그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나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려놓으신 행복의 씨앗들을 황금의 열매로 주렁지우실 사색과 로고로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바로 이런 불타는 일념을 안으시고 인민행렬차를 최대급행으로 몰아가고계신다. 자신의 강행군길에 《한시바삐》의 구령을 내리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짐을 싣고 달리신다.

이처럼 가요 《우리 원수님》은 인민사랑의 길에서 헌신의 낮과 밤을 맞고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로고를 눈앞에 떠올리며 그이 안녕을 절절히 바라는 인민의 뜨거운 축원의 마음을 노래하고있다.

인민의 천만가지 꿈을 하늘에도 땅우에도 아름답게 펼쳐주시려고 자정이 넘도록 순간의 휴식도 없이 기나긴 밤을 꼬박 지새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되새기며 그이의 안녕을 축원하는 마음을 밤하늘의 별에 담아 터친 노래들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
유정한 저 별빛 바라다보며
이 가슴에 가득히 넘치는 생각
그리운 원수님 안녕하시라
이밤이 새도록 소원 아뢰네
(후렴)

간절한 이 마음 별과 속삭이며
원수님품으로 달리여가네

가요 《밤하늘의 별이여》는 이 한밤만이라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편히 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불타는 소원, 축원의 마음을 뜨겁게 폭발시켜주는 불씨가 되여 내 조국의 밤하늘가에 절절히 울려퍼지고있다.

《밤하늘의 별이여》!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많은것을 시사해주는 별의 세계이다.

기쁘면 기뻐서, 슬프면 슬퍼서 별과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고 또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꿈꾸며 별의 세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해온것이 바로 인류와 별의 뉴대의 력사이다.

하기에 수많은 문필가, 철학가들이 인류가 지금껏 별에 담아온 간절한 숙망과 소원, 기대와 지향을 두고 심혼을 쏟아 붓을 달리였던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별에 대한 노래가 류달리 많은지도 모른다.

하다면 오늘에 와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속삭여보는 우리 인민의 심중에는 과연 무엇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우리 인민을 세상만복 다 누리는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고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는 로고와 헌신으로 지새우신 밤들이 저 하늘가에 무수한 별무리로 새겨지는것만 같아 인민은 오늘은 그 어디를 찾으셨을가, 이밤엔 그 어데 험한 령을 넘고계실가

하고 밤하늘의 별과 다정히 속삭이며 그이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것이다.

우리 시대가 낳은 충정의 명곡인 노래 《밤하늘의 별이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며 잠 못 드는 인민의 격동된 심정을 끝없이 폭발시켜주고있다.

가요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는 온 나라 인민의 축원의 마음을 밤하늘의 뭇별에 비겨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
인민의 소원은 뭇별이 되여
밤이면 하늘을 가득히 덮네
조국의 운명과 인민을 위해
심장을 바치시는 **김정은**동지
세월의 끝까지 안녕히 모시리
한마음 따르며 일편단심 모시리

가요는 받아안은 모든 행복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뜨거운 헌신과 바꾼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잠자리에 들어도, 찬비가 뿌리고 눈이 내려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충정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마치도 저 하늘의 별빛이 태양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밤하늘을 밝히는 충정의 불빛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별처럼 살자고 당부하는 시대의

열렬한 눈빛으로 안겨온다. 사랑만을 받아안고 행복의 노래, 감사의 노래만을 부르는 인민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고생을 조금이나마 가셔드리고 그이의 어깨우에 실린 짐을 하나라도 덜어드리는 진짜배기 충정의 인간, 량심의 인간이 되라고 밤하늘의 별은 끝없이 속삭이는듯 하다.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더더욱 굳세여지는 인민의 념원은 가요 《불타는 소원》과 같은 열화같은 충정의 노래로 분출되고있다.

이 한밤도 먼길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침저녁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주시며
인민위한 한길만을 언제나 걸으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천만자식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따뜻하고
영명하신 그이 계셔 미래는 창창합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하늘땅도 소원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가요 《불타는 소원》은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한 시어속에 담아 형상하고있다.

인민의 소원은 왜 불타는가.

인민의 꿈과 리상, 바라는 모든것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인민은 하나의 소원을 더욱 사무치게 간직하고있다. 그것은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 하루라도, 한순간만이라도 온갖 시름을 잊고 편히 쉬시며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다.

적들의 광란적인 침략전쟁소동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에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2013년 3월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 월내도방어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인민군군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맞이하였다.

뵙고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위험천만한 곳에 다시는 오시지 말아달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녕하시면 우린 행복하다고 절절히 아뢰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인민군군인들.

그것은 그대로 온 나라 천만군민이 함께 부르는 격정의 대합창이였고 공장과 일터, 가정들마다에서 지금도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는 소원의 노래이다.

가요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된것은 가사형상속에 오늘의 시대정신, 전인민적사상감정이 짙게 깔려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타는 소원이다.

이것이 작품의 사상적핵이며 시대의 절절한 사상감정이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있는가를 깊이 체험한 천만군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이 진실하면서도 뜨겁게 내포되여있다.

이 한밤도 인민위한 먼길가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생각하며 아침저녁 그이의 안녕만을 바라는 하나의 소원을 안은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세계가 천만군민의 소원으로, 하늘땅의 소원으로 더욱 확산되고 고조되면서 시대가 바라는 하나의 소원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여기에 가요의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미학적요구와 기호에 맞는 생동하고 평이한 선률형상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정의 세계를 더욱 진실하게 표현하고있다.

이렇듯 가요 《불타는 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소원의 노래, 충정의 노래로 가는 곳마다에서 울려퍼지고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이 천만의 념원에 비낀 충정의 세계에 떠받들려 전인민적인 축원의 노래, 소원의 노래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가고있다.

□ 하늘땅 끝까지 따르는 마음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날로 더욱 뜨거워지고 절절해지는 천만의 마음을 담아싣고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진다. 인민위해 걷고걸으시는 그 길을 전하며, 인민위해 바치시는 정과 사랑을 전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충정의 노래는 온 누리에 울려퍼진다.

집집의 뜨락에서, 초소에서, 일터에서 끝없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위인흠모의 노래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대한 어버이로, 삶의 은인으로 모시고 하늘땅 끝까지 변함없이 따를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 굳은 확신, 그이의 구상과 뜻을 꽃피우는 길에 민족의 참다운 번영이 있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석의 신념이 가사와 선률마다에 맥맥히 흐른다.

오늘의 조선의 숨결,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맥박치는 이러한 위인흠모의 노래들속에는 가요 《내 조국강산에 넘치는 노래》도 있다.

가요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희망찬 우리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랑, 인민의 행복감을 강렬한 서정에 담아 감명깊게 노래한 시대의 명곡이다.

노래의 구절구절속에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흠모와 칭송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환희, 열광의 축포이며 그이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 그 어데 가나 넘쳐나는 사회주의웃음소리, 더없이 밝고 창창한 조선의 미래가 노래속에 펼쳐진다.

희망찬 내 나라 조국강산에
울려퍼지네 원수님 노래
인민위해 바치시는 사랑 고마워
심장으로 부르는 흠모의 노래
노래 노래 흠모의 노래 강산에 넘치는 노래
(후렴)
아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노래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사랑의 뜨거운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모신 우리 인민처럼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인민은 없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자신의 아픔보다 인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시며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정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따뜻한 봄날에만 산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 하시며 끊임없는 인민사랑의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로고속에 인민의 행복은 커가고 사회주의조국, 선군조선의 미래가 끝없이 펼쳐진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의 기쁨속에서, 행복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인민은 감격에 목메이고 눈물에 옷깃을 적신다.

노래의 구절구절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흘러넘친다.

집집의 뜨락에서 이 땅 끝까지
끝이 없어라 원수님 노래
초소찾아 일터찾아 가시는 길에
그이 안녕을 바라는 축원의 노래
노래 노래 축원의 노래 강산에 넘치는 노래
(후렴)

가사에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들에게 사랑과 정을 주시고 승리의 신심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진실한 감정속에 펼쳐보이면서 오로지 그이의 안녕만을 바라며 사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병사들과 허물없이 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아이들도 어른들도 귀속말로 스스럼없이 소원을 아뢰며 밝고밝은 희망에 넘쳐있는 우리 조국은 정녕 수령과 인민,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 혼연일체를 이룬 위대한

어머니조국, 일심의 나라이다.

하기에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속에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도 있으며 밝고 창창한 래일의 희망도 꿈도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며 그이를 한마음 다해 받들려는 충정의 맹세로 가슴 불태운다.

천하의 제일강국 세워주시는
원수님 받들 오직 한생각
내 나라의 천만복이 그 품에 있어
일편단심 충정다할 맹세의 노래
노래 노래 맹세의 노래 강산에 넘치는 노래
(후렴)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길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의 승리가 있고 그이의 안녕속에 조국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

《원수님 받들 오직 한생각》, 《내 나라의 천만복이 그 품에 있어》의 뜻깊은 시적형상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사상감정이 굽이치고 그이만을 믿고 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 굽이친다.

그 누구의 강요도 권유도 아닌 이 절대적인 사상감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들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노래와 더불어 창공높이 울려간다.

《노래 노래 맹세의 노래 강산에 넘치는 노래》, 《아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노래》!

밝고 희망찬 노래의 구절속에, 뜨겁고 열렬한 신뢰의 열정속에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정녕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영원토록 희망에 넘쳐있을 내 나라, 내 조국의 행복상이, 인민의 심장깊이 간직된 불타는 충정이 노래의 진실하고 밝고 생동한 형상속에 감명깊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진실하고 생동한 가사형상에 담아 서정깊게 노래한 가요 《내 조국강산에 넘치는 노래》는 밝고 희열에 넘쳐있으면서도 뜨거운 서정으로 가득찬 선률형상에 의하여 더욱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집집의 뜨락과 초소, 일터마다에서 인민위해 걷고 걸으시는 그 길을 전하며, 인민위해 바치시는 정과 사랑을 전하며, 인민의 어버이를 하늘땅 끝까지 변함없이 따를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며 위인흠모의 노래가 온 누리에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가고있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초도와 무도, 장재도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에도 뜨겁게 어려있고 창조와 비약의 기상 나래치는 공장과 전야, 건설장들에도 세차게 맥박치고있으며 문명의 향기 넘치는 내 나라의 선경들에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하다면 인민들은 어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심신을 깡그리 바쳐 일편단심 따르는것인가.

인간사랑,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우러르며 터치는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를 담은 가요 《고백》은 여기에 훌륭한 해답을 주는 시대의 명곡이다.

고백, 심장의 고백!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티없이 깨끗한 이 말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 잴수도 없고 누구나 쉽게 말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매혹되고 감동된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강렬하고 절절한 감정정서의 발현이다.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생활해온 기간은 길지 않지만 누구나 신문과 방송, TV 그리고 자신들의 일터에서, 초소에서, 가정에서 모든것을 다 보고 온넋으로, 페부로, 심장으로 느끼고 확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한길에서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것, 이것이 바로 천만심장의 웨침인 동시에 시대의 고백이다.

바로 가요 《고백》의 구절구절마다에서는 인민의 심장의 웨침, 시대의 고백을 터쳐놓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할 굳은 신념과 의지를 절절하고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가요의 1, 2절에서는 우리가 안기는 그 품은 그 누가 불러서,

찾아서 가는 품이 아니라 따사로운 사랑과 인품에 심장과 마음이 끓고 공감되여 스스로 안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이라는것을 절절히 가슴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그 누가 그 누가 불러서 그 품에 안기랴
심장이 심장이 불타서 꿈에도 안기네
그 인품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그 누가 그 누가 떠밀어 이 길을 가는가
심장이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
그 열정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은 인민자신이 스스로 택한 흠모의 길, 신념의 길이다.

정녕 인민들은 보아오지 않았던가.

떳떳치 못한 지난날로 하여 괴로움에 잠 못 이룰 때 못난 자식, 죄많은 자식이라 탓함이 없이 더더욱 정을 기울여 사랑의 한품에 안아 떳떳하게 내세워주는 뜨거운 진정에 슬하의 자식들 쏟아지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그 품에 얼굴묻고 흐느끼던 감동깊은 화폭들을.

낳아준 친부모보다 더 뜨겁고 진실한 사랑으로 시련많은 혁명의 길에서 주저앉을세라 힘겨울세라 손잡아 이끌어주고 보살펴준 그 위대한 모습을 우러르며 스스럼없이 숨겼던 잘

못도, 서슴던 허물도 터놓은 사람들은 또 얼마였던가.

바로 이 나날 우리 인민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으며 그이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조국도 없다는 철의 진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이처럼 가요의 1절과 2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넒은 사랑의 세계에 더없이 매혹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세찬 격랑으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가요의 3절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할 우리 인민의 변함없을 심장의 고백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그이의 곁에서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심장의 고백
그 령도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노래에서는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밖에 모른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그이의 곁에서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마음을 격정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거운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숭고한 인민관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무수한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신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이 세상 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도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만을 펼치시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그 품을 어찌 온넋을 다해 따르지 않으랴.

하기에 열화같은 헌신과 열정으로 인민을 따사로이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에 인민은 주저없이 찾아가 안기며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충정의 한길만을 걷고있는것이다.

가사의 매 절 4행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죽어서도 변치 않을 영원한 충정의 마음을 반복되는 가사를 통하여 인상깊게 강조하고있다.

이렇듯 노래의 가사는 위대한 령도자의 사랑으로 꿈같고 황홀한 전설들이 꽃펴나 날과 달이 흐르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사는 천만군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충정의 세계를 뜨겁게, 절절하게 터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사상정서적 감화력을 가지고 만사람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심장으로 느끼고 심장으로 체득한 시대의 감정만이 이렇듯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천만심장의 분화구를 거쳐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뿜어져나올수 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인민의 심장속에 세차게

맥박치고있는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소박하면서도 간결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이는 시대의 명곡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의 빛발》, 《원수님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운명도 미래도 맡긴분》, 《그이 없인 못살아》, 《천리라도 만리라도》…

오직 자기 령도자에게 진심으로 매혹되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신념으로 만장약된 인민만이 이런 위인흠모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를수 있는것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열화같은 매혹과 다함없는 흠모의 목소리는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그칠새없이 흘러나오고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주옥같은 명가사와 심장의 울림과도 같은 명선률로 이어져 이 땅우에 위인칭송의 메아리되여 끝없이 울려퍼져갈것이다.

2. 위대한 당을 노래하노라

□ 그대는 어머니

인류사에 정당정치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지나온 력사의 자욱을 돌이켜볼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사회적변혁과 발전에서 당은 그 어떤 정치조직도 견줄수 없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조선로동당과 같이 장장 수십년세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위대한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맡아안고 헤쳐온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여년 로정에는 위대한 전승과 세기적인 전변의 서사시가 수놓아져있으며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사회주의수호전과 강국건설에서 이룩한 눈부신 승리가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승리와 영광, 번영만을 떨쳐온 70여성상의 이 년대기가 당에 대한 찬가로 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성스러운 당의 력사와 더불어 수많이 창작된 찬가들은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반영하고 혁명의 전투적기치와도 같이 무게있으며 천만사람모두의 존엄높은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꽃피여나는가를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복잡다단한 력사의 온갖 경난을 다 이겨내며 기적과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온 당을 불러 인민은 참으로 영예로운 칭호들을 찬가들마다에 새겨왔다.

로동당은 우리의 등대,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당은 우리의 선봉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그 모든 칭호들우에 당은 어머니라는 친근한 부름이 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땅우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삼천리강산에 빛을 뿌리고
인민들 가슴에 희망을 주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여
…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던 주체53(1964)년에 창작된 가요 《어머니당이여》,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당을 어머니로 노래한 찬가는 사람들모두에게 끝없는 행복과 희망,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가장 값높은 칭송이였다.

창건된지 2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청소한 국가와 인민을 이끌어 나라를 세기적락후와 빈궁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조선로동당!

노래는 자기의 극적인 운명체험을 통하여 인민이 간직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 사랑의 감정을 훌륭히 음악화하고 수백년의 세계정당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뉴대의 호상관계를 하나의 대명사에 가장 숭엄하고 완벽하게

정식화하였다.

어머니당이라는 력사적인 정의와 더불어 《내 삶이 꽃펴난 곳》, 《어머니당의 품》, 《당은 어머니 나는 그 아들》,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당은 어머니모습》, 《어머니의 목소리》 등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로 칭송하여 수많이 창작된 가요들에는 한 생명을 위하여 하늘길, 배길도 펼쳐주고 곡절많은 운명에도 재생의 빛을 안겨주며 남모르는 생각도, 작은 소원까지도 다심하게 헤아려주는 친어머니사랑에 대한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들이 담겨져있다. 이것은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당을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로동당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시대를 진감케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계승, 걸출한 령도, 뜨거운 사랑으로 빛나는 **김정은**시대에 인민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한없이 진실하고 아름답고 숭엄한 어머니의 노래가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없이 엮어지고있다.

이 나라의 아들딸들 품에 안고 보살피며
어머니의 천만사랑 다해가는 당이여
그대의 크나큰 심장속엔 사랑의 새 힘이 샘솟네
그대는 그대는 어머니 우리 삶을 빛내준 어머니

우리 행복 꽃피우려 세상풍파 다 이기며
어머니의 끝없는 힘 떨쳐가는 당이여
그대의 영명한 그 손길은 강성한 오늘을 펼쳤네
그대는 그대는 어머니 우리 운명 지키는 어머니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민들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그 이름은 조선로동당
그대는 향도의 천만리에 승리와 영광을 새기네
그대는 그대는 어머니 우리 미래 다 맡은 어머니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어머니의 모습으로 더욱 찬란히 빛나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사랑과 흠모를 반영한 가요 《그대는 어머니》가 새시대의 첫 기슭에서 울려나왔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한품에 안아 값높은 삶을 안겨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조선로동당, 이 나라 인민들이 어이하여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는가를 다시금 가슴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노래이다. 가요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면서도 그것이 오늘날 이 나라 인민 매 사람들의 운명과 어떻게 련결되여있는가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다시말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시점에서 당과 인민의 운명적관계를 파고들었다. 지난 수십년동안 당을 어머니품이라고 믿고 따른 천만군민이 새로운 시대에 실체험으로 확인한 생활의 진리를 종자로 심은것이다.

2012년에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것을 체험하였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일떠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함께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문을 열어젖힌 2012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국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운명이신 **김정은**원수님이시자 곧 조선로동당이며 그이의 령도밑에 당은 영원히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은 어머니당으로 빛을 뿌릴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굳건히 새겨주었다. 누구나 자기의 체험으로 절감한 이러한 진리가 《그대는 어머니》와 같은 새시대의 명곡을 낳았던것이다.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어머니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친근해지고 자애로우며 사려깊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이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드팀없는 신조로, 투쟁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며 꽃피우신 인민의 기쁨에서 가슴 뭉클하는 행복과 웃음, 더없는 보람을 찾으시는분, 그 위대한 어머니가 다름아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의 길을 걸어오면서 인민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었던 가슴속 사연도 많았고 눈물과 상처도 있었다.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차별없이 한품에 안아 말 못할 사연도 헤아려주고 가슴속 상처도 가셔주시며 인간의 참된 정의와 진리를 걸음걸음 가르쳐주시는 운명의 수호자, 이 위대한 어머니가 다름아닌 조선로동당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사람들은 오늘도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을 잊지 않고있다.

그이의 연설은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연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실 확고부동한 결심,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시는 따뜻한 은정,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여도 자그마한 량심이라도 있다면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의 세계가 봄기운처럼 매 사람들의 폐부에 흘러들었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이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을 높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당정책을 현실로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것을 바라시는 높은 요구성,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당일군들이 사람들에게 진정을 바쳐야 한다는 그 간곡한 당부가 누구나의 귀전을 울리였다.

그이의 연설 자자구구에 인민에 대한 진정이 어리여있고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어올리려는 의지가 맥박쳤다. 인민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는 사려깊은 눈빛이였다. 이 나라의 마지막 한사람까지도 붉은기에 더욱 뜨겁게 휩싸안는 손길이였고 보다 광명한 미래에로 힘있게 부르는 위대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정한 음성, 살뜰한 눈빛, 인자하신 모습이 그 어디에나 비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지고있다.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없이 작은 목선을 타시고 최대열점지역인 섬초소를 찾으시여 육친의 정과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눈물의 환호를 올리며 사품치는 날바다에 너도나도 뛰여들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대회의 연단에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뜨거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감격에 울고울던 나어린 소년단원들.

창전거리의 새 살림집들과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당,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흠모의 정 넘치는 인민의 마음 뜨겁게 물결쳤다.

가슴속 아픈 상처를 헤아려주고 가셔주는 그 품은 또 얼마나 다심하신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울리는 사랑과 믿음의 친필글발들.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있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어루만지고 살점도, 피도 서슴치 않고 주는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하는것입니다.

리철호동무가 꿈에도 소원하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데 대하여 그리도 기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 편지에서 읽어보며 나도 정말 기쁩니다.

리철호동무가 맡은 일을 잘하도록 우리 당에서 잘 이끌고 도와주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의지해주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 정 은

2012. 12. 26》

《동무들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살기 바랍니다.

김 정 은

2013. 7. 11》

《어머니손길로, 어머니마음으로 고금성, 차효심동무들을 따뜻이 품어준 초급당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김 정 은

2013 7. 11》

…

못난 자식, 죄많은 자식이라 탓함이 없이 더더욱 정을 기울여 붉은 기폭에 감싸안아 떳떳하게 내세워주는 뜨거운 그 진정에 슬하의 자식들 쏟아지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그 품에 얼굴묻고 흐느끼던 감동깊은 화폭들!

바로 이런 어머니이시기에 그 누구나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터쳐 아뢰이는것이며 아픈 매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된 못난 자식도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놓는것이다.

하기에 인민의 심장이 하나로 뭉쳐 이 땅에 생을 주고 빛내여주는 위대한 어머니를 노래한다.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어머니께 아뢥니다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터칩니다
그러면 정깊은 어머니 그윽하신 그 눈길로
기뻤던 마음도 아팠던 상처도 따뜻이 헤아립니다

사랑 아니면 들수 없었던 아픈 매도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그 품속에 안겨들며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놓습니다
…

들을수록 어머니의 모습처럼 안겨들고 어머니의 사랑처럼 느껴지는 당에 대한 신뢰와 흠모의 격정이 강렬한 서정속에 흘러넘쳐 사람들의 마음을 세차게 울려주는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

스스럼없이, 주저없이 그 품속에 안겨들며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로동당의 그 위대한 모습이 뜨거운 선률과 더불어 더욱 가슴속에 안겨온다. 인민이 바라는것을 제일먼저 풀어주고 가슴속 상처도 허물도 남먼저 헤아려주며 보살펴주는 어머니당, 못난 자식까지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격정이 노래속에 굽이친다.

가요의 제목은 《내 심장의 목소리》이지만 가사에서는 그런 표현을 한번도 볼수 없다. 가사의 내용자체가 내 심장의 목

소리, 인민의 목소리로 울려나오기때문이다.

가요는 나의 심장, 나의 목소리에 천만의 심장, 천만의 목소리를 집약하고 시적으로 일반화하였다. 그 어떤 3자의 목소리도 아니며 어떤 개별적인간 하나의 목소리도 아닌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목소리, 자기 심장의 목소리를 터쳤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하나의 마음, 서정적주인공인 《나》가 나 한사람만이 아닌 수천만 인민모두가 되는 여기에 가사의 형상력이 있다.

서정적주인공은 자식이 어머니에게 진정을 터쳐놓듯이 당을 어머니라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른다. 가요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대비할수 없는 가장 순결하고 친근하며 대가를 모르는 어머니와 자식과의 혈연적인 관계속에서 흐르는 생활적인 감정정서를 진실하게 파고들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아름답고 친근하며 가식없고 순결한 관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가사는 뗄래야 뗄수 없는 이 혈연적인 관계를 당과 인민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생활론리그대로 승화시키고있다. 가사의 구절구절을 새기느라면 천만군민이 구체적인 현실생활을 통하여 확증하고 심장속에 억척같이 새겨놓은 불변의 철의 진리가 부드럽고 차분한 정서로 젖어드는것이다.

이렇듯 세련되고 품위있는 시적형상을 한없이 뜨겁고도 열렬한 정서로, 승화된 감동적인 선률형상으로 잘 안받침하고 있다.

충분한 정서적안착감을 가지고 사색적으로 은근히 시작된 노래의 선률이 후렴부분에서 끓어오르는 격정의 감정을 안고 강렬하게 폭발하는 특색있는 음악형상은 가사의 사상예술적

내용과 훌륭히 밀착된것으로 하여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속에 간직된 서정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감동의 닻을 드리우게 한다.

심장의 목소리는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진정의 웨침이다. 창작가들자체가 당의 품속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가슴벅찬 현실에 열렬히 매혹되고 공감하지 않았다면 이런 가사, 이런 선률형상이 나올수 없다. 누구나 다 이 노래를 듣고 부를 때면 추억과 생활의 갈피속에서 자기의 숨결처럼, 피줄처럼 느꼈던 사랑과 정을 가슴 한가득 받아안으며 눈굽을 적시게 된다. 가요는 실지생활에서 인민이 느끼고 체험하는 사상감정을 있는 그대로 담아냄으로써 사람들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로 되고있다.

자기의 생일에조차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해주고싶고 바로 자식들에게 안겨주는 사랑과 정에서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찾는것이 어머니이다.

바로 그러한 어머니의 다심한 진정을 조선로동당이 안겨주기에 주체104(2015)년 10월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인민은 마음의 꽃다발을 엮으며 황금의 시절, 풍요한 가을에 어머니당의 손길이 가꿔준 열매도 많다고, 무궁한 10월, 영광의 세월, 맞이할 앞날은 더 눈부시다고 노래한 가요 《어머니생일》이 울려나와 만사람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켜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어머니의 그 이름을 세세년년 떨쳐가는 조선로동당,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어머니라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당에 대한 진정넘친 목소리를 엮은 가요들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피도 숨결도 나누어주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주는 크나큰 품, 뜨거운 사랑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어머니로밖에는 달리 부를수도 노래할수도 없다는것이 세기를 이어 울려퍼지는 조선로동당찬가들이 증시하는 력사의 진리이다.

□ 당기의 세찬 펄럭임소리

주체105(2016)년 5월 평양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대회를 맞으며 이르는 곳마다 위대한 당을 칭송하는 민심의 웨침이 경축의 글발로 힘있게 나붙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일터마다 당대회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수천만의 심장들이 숭엄히 달려오는 평양의 당대회장에 유난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와 낫, 붓을 새긴 조선로동당기이다. 대회장밖에도 대회장안에도 곳곳에 당기가 세워져있고 주석단배경에도 조선로동당기가 형상되여있었다.

사실 당에 대하여 느끼는 인민의 체험세계에서 당기는 일상생활의 계기마다에서 제일 친근하며 가까이 보이는 대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릴적부터 붉은 넥타이를 목에 두르면서 우리 당기발의 한폭이라고 노래하며 철이 들었고 당기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이 빛나는 초상휘장을 가슴에 모시고 하루의 사업을 시작하며 명절때면 온 나라 거리마다에서 공화국기와 함께

나붓기는 당기발을 바라보며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맞고보내는 행복한 삶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은 이 나라 사람들이다.

그 세찬 퍼덕임소리가 약동하는 내 조국의 벅찬 숨결로 안겨오고 그 붉은 기폭이 천만자식을 따뜻이 품어안아주는 어머니의 넓은 품으로 느껴져 누구나 자나깨나 가슴속에 안고 사는 조선로동당기발이다.

그러한 이 땅의 천만군민이 당대회장을 붉게 장식한 당기를 보며 참으로 가슴벅찬 긍지와 희망을 받아안았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장에서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대회주악으로 장중하게 울려퍼질 때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기는 대회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격동으로 달아올랐다.

>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 마치와 낫과 붓 아로새겼다
>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 혁명의 폭풍을 헤쳐왔어라
>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 천만심장 하나같이 뭉쳐나간다
> …

조선로동당이 무엇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로, 향도자로 되고있으며 조선로동당기발의 영원한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절감케 하는 노래.

붉은 기폭에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존엄높은 모습을 새겨안고 이 땅우에 인민중시, 조국번영의 대경륜을 새겨

온 조선로동당기의 진한 붉은 색조와 세찬 펄럭임소리가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였다.

어찌 대회장에서뿐이겠는가. 수십년세월 어머니옷자락처럼 품에 안고 승리의 기치로 휘날려온 당기발은 이 나라 사람들 모두의 마음에도 세차게 퍼덕이고있었다.

당기발은 당을 상징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표대로 지구상에 처음으로 휘날리던 그때부터 장장 한세기에 걸치는 력사에 사회주의혁명의 붉은 기발은 력사의 풍파를 많이도 겪었다. 그 나날 인류는 사회주의를 리념으로 하던 당들이 자기의 붉은기를 내리우고 조락과 쇠퇴, 변질의 길을 걷는 가슴아픈 사실들도 목격하였다.

그러나 조선로동당기는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그 붉은 색조가 더욱 붉어지고 세기의 창공높이 더 세차게 펄럭이고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그때로부터 장구한 세월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왔다.

조선로동당은 해방후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과 건국, 건군사업 그리고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기초건설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무지와 몽매, 예속과 굴종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웠다. 창당의 첫 시기부터 수십성상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길은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온갖 반동들의 도전속에서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야 하는 참으로 준엄하고 간고한

길이였다. 시련은 간고하였지만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번영, 인민의 행복에로 곧추 뻗은 성스런 궤도에서 단 한치의 탈선도 없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자랑찬 년대기마다에 당기는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인민을 고무하며 힘차게 휘날려왔다.

하기에 당기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과 투쟁력사, 불멸의 업적, 전투적위용 등을 상징하는 기치로서 수많이 노래되여왔다.

1985년에 창작된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당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하고 로숙한 령도에 의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로동당시대의 전성기가 펼쳐지던 시기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달려온 빛나는 전통을 이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따라 당기발을 힘차게 날려가며 사회주의령마루를 향하여 용기백배 전진하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을 노래한 가요는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승리의 로정을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더 높이 휘날린 당기발의 모습속에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통속적이면서도 박력있는 시어로 숭엄하게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졌다.

하다면 이 노래가 어떻게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당을 칭송하는 전인민적송가로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가.

여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주체101(2012)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기발을 혁명의 군기로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와 같은 훌륭한 노래가 있다고,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는 전투성이 강한 좋은 노래라고, 이 노래는 시대적으로 보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노래라고 말씀하시였다.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노래가사에서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 《이 기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라는 구절이 참 좋습니다, 이 노래에는 자기의 운명을 우리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는 인민들의 진실한 감정이 살아 맥박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가사를 직접 써가지고 중요한 대목에는 밑줄을 그어 일군들에게 내려보내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철학적깊이가 있고 호소성이 강한 노래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보시며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그 말씀, 이 노래를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그이께서 가사의 중요대목에 밑줄을 그어가며 새기고 또 새기시였으랴.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 노래를 실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이라는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 당은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남녀로소 할것없이 당기발을 바라보면서 온갖 시련을 이겨냈으며 우리 당을 더 굳게 믿고 따르고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가사를 옮겨쓰면서 인민들의 운명을 간직한 당기발을 들고있는것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당일군들을 인민들이 보고 있다는데 대하여 생각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일군들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자각하여야 한다고, 당일군들은 자기의 위치와 책임감을 더 깊이 자각하기 위해서도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를 머리에 새겨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당기발의 기수들인 당일군들의 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그이의 간곡한 당부는 일군들의 뇌리에 깊이 깊이 새겨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훌륭히 재형상되여 신문과 TV를 비롯한 대중보도수단들에서 널리 울려퍼지고 인민의 심장마다에 메아리치며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체의 길, 사회주의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 조선로동당의 신념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노래는 당일군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늘 가르치고계신다.

—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라!

—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라!

조선로동당기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기발로 세기의 하늘가에 더 높이 휘날리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 바치신 로고는 정녕 끝이 없다.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인민은 더욱 열렬해지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깊이 체득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당사업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되여있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서 사람들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의 상징으로 영원히 빛날 당기의 세찬 펄럭임소리를 듣고있다.

당기의 붉은 기폭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껴온다.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 보살펴주는 어머니품의 상징인 당기에 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당기는 학생소년들에게 자기의 붉은 자락을 소년단넥타이로 매여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감싸안아 보살펴주는 기발이라고 할수 있

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길도 붉은기를 덮고 갑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생은 붉은기를 알고 붉은기와 함께 가는 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그이의 말씀을 새기면 이 나라 아들딸들을 모두 붉은 기폭에 휩싸안고 비바람, 눈보라 다 막아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끌끌한 해병들이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것이 너무도 절통하시여 온밤 잠 못 이루시며 몸소 그들 한사람한사람의 사진을 고르고골라 만든 천연색사진들을 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정히 싸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을 위해 바친 군인들의 생은 끝나지 않으며 당기발과 함께 영생한다는 삶의 진리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그들모두를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였으니 떠나간 전사들도 변함없이 한피줄로 굳건히 생을 이어주시며 당기폭에 감싸안아주는 그 품을 어찌 어머니라 부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날이 갈수록 당기와 생사를 하나로 잇고 당기의 펄럭임소리를 어머니가 안겨준 삶의 박동처럼 새겨가는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다.

하기에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펄펄 나붓기는 조선로동당기를 삼가 우러러 터치는 천만심장의 웨침 선률을 타고 끝없이 울려퍼진다.

《뜨겁게 우러르네 우리 운명 붉은 당기를 목메여 새겨보네 천만 삶을 지켜온 자욱》,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 당기여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 《그대 불같고 줄기찬 열정 펄럭임소린 나래펴는 조국의 노래 당기여 그대는 우리 고운 꿈 만발하는 우리의 행복》, 《우린 믿노라 오직 그대를 세월 끝까지 눈비바람 막아줄 그대 당기여 그대는 우리 뭉친 힘 빛발치는 우리의 승리》, 《우린 사랑하네 열정의 붉은 당기 아침해와 같이 우리 심장 불태우네 어머니의 정든 목소리 들려오는 펄럭임소리》, 《우린 안고 사네 향도의 붉은 당기 삶의 걸음걸음 영광에로 이끄네 존엄높은 생의 숨결을 이어주는 펄럭임소리》, 《영광을 드립니다 당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이여》…

당을 칭송하는 시대의 찬가로 불리워지고있는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등의 노래들에서 열렬히 토로한 다함없는 격찬의 목소리들.

노래가사의 표현 하나하나가 당기의 숭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뜨겁게 젖어든 인민의 심장속에서만 우러나올수 있는 의미깊고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시어들로서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울려가는 붉은 당기발의 세찬 펄럭임소리와 같다.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의 태양과 같은 모습을 우러르며 인민이 터치는 최고의 언어, 격정의 만세이다.

□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오늘도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는 조선로동당기가 펄펄 나붓기고있다.

당기발의 그 펄럭임은 자기의 원칙과 본성을 굴함없이 고수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신념의 목소리인 동시에 자기 당에 대한 당원들과 인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마치와 낫, 붓을 아로새긴 당마크는 현대조선의 자랑찬 년대들마다에 당을 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이 나라 천만군민의 영웅적군상과도 같다.

당기발은 당의 상징만이 아닌 인민의것, 인민의 기발이 되여야 그 어떤 세월의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휘날릴수 있다. 뿌리깊은 억센 거목처럼 인민속에 깊이 뿌리내린 당기발만이 력사의 그 어떤 시련도 난관도 이겨낼수 있고 세월이 흘러도 더욱 눈부시게, 굳건하게 나붓길수 있다.

그것은 지나온 력사가 피로 새긴 교훈이다.

70여성상에 걸치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천만의 군민이 당기발의 기수가 되여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해온 일심단결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당기를 날리며 인민은 빈터우에 새 조국의 터전을 다지는 건국의 초행길도 걸었고 제국주의강적과 맞서 전화의 불비속도 헤쳤으며 전후의 재더미속에서 공업화의 기초를 닦았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의 광풍속에서 온 나

라 군대와 인민들, 남녀로소모두가 당기를 지키고 떠받들며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갔다.

헤아릴수 없는 시련의 바다를 헤쳐오면서 인민은 당을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고 당기발 높이 들고 나아갈수록 더욱 빛나는 번영과 무궁한 행복이 마련된다는것을 진리로 새겨안았다. 그 신념, 그 의지가 노래가 되여 지난 세기의 년대기마다에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당의 기치따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높이 들자 붉은기》, 《당이여 그대가 부른다면》,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조선혁명의 각이한 년대마다에 창작된 당에 대한 노래들은 당을 따르는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고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전진하였으며 조선의 참모습이 어떤것인가를 세상사람들이 똑똑히 알게 하였다.

인간과 생활, 미래에 대한 한없이 고결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고 인민을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찬가는 오늘도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음악으로 울리고있으며 이 나라 천만군민의 충정의 열의, 애국의 열정을 더더욱 세차게 분출시키고있다.

격변하는 **김정은**시대에 태여난 또 하나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찬가인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는 위대한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의 진정을 그대로 긍지높이 노래하고있으며 당의 위업수행에 한몸 깡그리 바쳐갈 맹세로

심장의 피를 더욱 끓게 하고있다.

그대는 기폭에 빛나는 창조의 마치로
얼마나 굳건한 초석을 다져왔던가
일심단결 반석우에 강국의 기둥을 세워
인민의 락원을 펼쳐준 당
그 손길 우린 잡고 사네

그대는 기폭에 빛나는 애국의 낫으로
얼마나 풍요한 열매를 가꾸었던가
사회주의 이 강산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
번영을 안아온 고마운 당
그 뜻을 우린 꽃피우네

그대는 기폭에 빛나는 예지의 붓으로
얼마나 눈부신 미래를 설계하던가
온 세상에 부럼없는 리상향을 그려주며
기적을 새기는 위대한 당
그 위업 우린 받든다네

라 인민을 향도하여
위대한 이 조선 빛내가는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제목부터 당과 운명을 함께 하

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줄기차게 걸어가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담고있다.

가요는 당마크를 기본으로 하여 천만군민과 조선로동당과의 깊고도 억센 혈연의 관계를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우러르면 정답고 다심한 어머니처럼 눈부시게 안겨오는 당기, 조용히 귀기울이면 우리의 고운 꿈, 모든 행복을 꽃피워주기 위해 세월의 낮과 밤을 다 바쳐가는 당의 불같이 뜨겁고 줄기찬 열정의 펄럭임소리 끝없는 조선로동당의 당기.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기노라면 위대한 어머니당, 불패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정이 가슴터질듯 부풀어오른다.

1절에서는 창조의 마치로 일심단결 반석우에 강국의 기둥을 세워 인민의 락원을 펼쳐준 당으로, 2절에서는 애국의 낫으로 사회주의 이 강산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 번영을 안아온 고마운 당이라고, 3절에서는 예지의 붓으로 온 세상에 부럼없는 리상향을 그려주며 기적을 새기는 위대한 당이라고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요는 독특한 가사형상으로 당과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영원히 생사를 같이할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훌륭히 반영하고있다.

매 절의 전렴부분에서는 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마지막부분에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손길 우린 잡고 사네》, 《그 뜻을 우린 꽃피우네》, 《그 위업 우린 받든다네》라는 시형상으로 당을 따르려는 천만군민의 사상감정을 강조하고있다.

구절구절을 새길수록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여 승리와 영광, 번영을 떨쳐온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업적이 가슴뜨겁게 안겨오며 당을 따라 걸어온 영광넘친 로정을 긍지롭게 돌이켜보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감정우에 매 절에서 반복되는 《인민을 향도하여 위대한 이 조선 빛내가는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라는 후렴구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따르고 받들 충정의 맹세를 분출시키고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표현들로 엮어진 가사와 함께 서정적이면서도 밝고 긍지높은 정서가 굽이치는 선률로 하여 노래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는 부르면 부를수록 당을 따라 승리해온 크나큰 긍지와 환희가 느껴지고 당기발의 펄럭임소리와 함께 전진해가는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노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으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만이 터칠수 있는 격정의 찬가이다.

이 노래만이 아닌 당에 대한 찬가들마다에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를 진정이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

그 품에 자란 천만아들딸 한마음 우러르며
생을 주시고 빛내여주신 어머니를 따릅니다
사심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만을 사랑할 마음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렵니다

당이여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영원히 받들렵니다

심장의 목소리는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진정의 웨침이다.

어머니당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감격과 격정을 담아서 당을 노래한 찬가들은 이토록 뜨겁고 열렬하며 사심없이,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 끝까지 한길을 걸어갈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서 노래소리 그칠줄 모르고 끝없이 울려나오는것이다.

당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근로자들은 당의 경제발전전략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으며 소년단원들은 작은 주먹을 높이 들며 당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는 맹세를 다지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나 인민은 있고 인민이 있는 곳마다 당들이 있다. 하지만 조선인민과 같이 기쁠 때도 힘겨울 때도 오직 당기발만 바라보며 당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살며 투쟁하는 인민은 세상에 더는 없다.

그러한 인민들을 더욱 내세워주고 그들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의 정이 강렬히 표현될수록 인민을 위하여 더 헌신적으로 복무할 의지를 가다듬는것이 조선로동당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세계를 향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엄숙한 선언이 오늘도 세상천지를 뒤흔든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입니다.》

세계 어느 당의 령도자가 평범한 근로대중을 위대한 인민으로 격찬하며 그 인민을 위하여 어머니된 심정으로 멸사복무할 맹세를 다진적 있었던가.

오직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서만 펼쳐질수 있는 조선의 진정한 모습인것이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질 엄숙한 각오로 충만된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인민은 《조선로동당 만세!》로 화답한다.

인민을 혁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어버이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로동당을 따르지 않으면 과연 그 누구를 따라갈수 있단 말인가.

옹근 한세기를 가까이 하는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백전백승의 영광만을 떨쳐왔으며 5천년력사가 목마르게 갈망하던 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눈앞에 둔 이 땅의 천만군민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조선로동당의 위대함과 귀중함을 뼈에 새겼으며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이제 또다시 천만산악이 앞을 막아나서고 세찬 파도를 헤쳐

간대도 인민들은 당과 운명을 함께 할것이며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붉어만지는 고결한 충정과 의리를 대대손손 물려주며 영원히 당중앙을 따라 한길을 갈것이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안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고난의 천만산악들을 넘어온 70성상에 대한 긍지높은 추억과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신념의 맹세가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 실려 성스러운 당기가 창공높이 휘날리는 10월명절의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온 길 그 얼마랴
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먼길을 왔어라
영광넘친 길을 걸어도 준엄한 길 걷는다 해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리냐
성스러운 기발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불타네
한순간을 우리 살아도 두번다시 태여난대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

년대와 세대를 이어 오늘도 유산처럼 끝없이 울려퍼지며 천만군민의 불변의 신념을 대변해주는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열광적으로 터뜨린 만세의 환호성은 그대로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장중한 선률이였다. 이 노래는 10월의 경축의 밤하늘을 뜻깊게 장식한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심장마다에서도, 대성황리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1만명대공연무대와 예술단체들의 경축공연무대에서도 힘차게 울리며 위대한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걸어갈 이 나라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가사내용과도 같이 우리 인민은 준엄한 길 걷는다 해도, 비록 한순간을 산다 해도 오직 당중앙을 따라서 주체의 한길로만 억세게 나아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어머니를 따르는 자식의 마음이 변함없듯이 어머니당을 따르며 받들어나갈 인민의 마음, 심장의 목소리는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변한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것이며 온 누리에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3. 강산을 울리는 애국의 메아리

□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애국가－《조국찬가》

인간에게 있어서 조국보다 더 귀중하고 신성한것은 없다. 하기에 인류문예사의 갈피에는 조국에 대한 예술작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 모든 작품들마다에는 고향과 조국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사랑과 개척정신, 창조의 희열과 영웅적무훈담이 반영되여있다.

조국을 례찬한 작품이라고 하여 누구에게나 다 공감되고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는것은 아니다. 조국을 노래한 예술작품이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지고 길이 전해갈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조국에 대한 노래에 인민의 지향과 정서가 담기고 시대의 요구가 반영될 때만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며 세세년년 전해지게 될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조국주제의 노래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조국과 제도에 대한 끝없는 애착과 긍지를 안겨주고 가슴이 뻐근하도록 바치고싶은 창조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의 약동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가요 《조국찬가》이다.

주체102(2013)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경축하는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조국강산을 뜨거운 애국의 열기로 적셔주며 한편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이여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부러움없어라 아침의 나라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다심한 어머니의 모습이런듯, 첫걸음마 떼여주던 어머니의 손길이런듯, 유정한 어머니의 목소리런듯, 따뜻한 정서를 안고 울리는 노래 《조국찬가》.

가사와 선률마다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조선민족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여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가슴을 흔드는 노래 《조국찬가》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보느라면 조국의 의미가 사무치게 안겨온다.

조국— 하면 누구에게나 제일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어머니의 인자하고 정깊은 모습이다.

자식을 낳아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해 키우는 어머니, 어머니가 없이는 인간의 삶과 성장을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노래가 첫 소절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것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의 사립문을 여는것으로 조국에 대한 사색의 대문을 열기때문이다.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고향집뜨락, 그곳은 넓으나좁으나 인간에게 따뜻한 생을 준 곳이며 기뻐도 슬퍼도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여있는 곳이다.

결국 어머니와 고향집뜨락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조국은 인간의 삶처럼 소중한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문이 열린 조국의 세계는 감정의 론리, 사색의 론리에 따라 하나둘 차례차례 커지기 시작한다.

2절에서는 내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한 재부를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라는 시어로 명쾌하고 흐뭇하게 형상하고있다.

전설의 나라, 그것은 세상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기는 조선의 무한대한 가치와 헤아릴수 없는 깊이에 대한 참으로 훌륭한 대명사이다.

3절에서 등장한 국조 참매와 국화 목란꽃은 사람들에게 조선민족특유의 성격과 기질, 슬기롭고 아름다우며 문명하고 강의한 조선사람의 근본을 가슴 뭉클하게 새겨주면서 크나큰 민족적자부심으로 온 세상을 굽어보게 해준다.

4절 가사는 눈앞에 내 나라의 모습이 마치도 두주먹을 불끈 쥐고 세계의 령마루를 향하여 비약하며 내달리는 청춘의 형상으로 안겨온다. 지구도 통채로 들어올릴 억세고도 젊음이 넘쳐나는 힘과 단숨에 하늘에라도 닿을듯 한 운동감으로 충만된 조선이라는 거인의 형상은 듣는 사람, 부르는 사람모두의 심장을 격동으로 높뛰게 한다.

광활한 강토나 억만금의 자원보다 더 무서운것은 국가의 청춘활력이다. 력사의 년륜으로는 계산할수 없는 그 젊은 힘은 남들이 상상 못할 목표를 향해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하는 인민의 정신력이다. 조선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이 나라 인민의 포부와 자신만만한 야심이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라는 토로로 절로 분출하게 한 4절은 노래전반의 양상을 약동하는 기운으로 충만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조국에 대한 의미는 5절에서 더 깊이 부각되고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만 그 삶이 더욱 귀중하고 아

름다운것으로 되자면 존엄이 있고 미래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국은 인간의 삶과 같이 소중한것이지만 바로 그 조국이 민족의 존엄이 되고 미래가 될 때 참다운 조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5절에서는 바로 그 조국의 존엄과 미래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라는 구절을 새기면 조국에 대한 긍지로 가슴이 부푼다.

저 하늘아래 추켜올릴 한폭의 국기도 없이 망국의 슬픔과 치욕속에 몸부림치던 우리 민족, 나라를 빼앗긴탓에 국제경기에서 1등을 하고도 강탈자의 기발을 게양할것을 강요당해야만 했고 조국이란 말조차 쓸수 없어 그것을 《님》에 은유적으로 비유해야 했던 수난많던 우리 민족.

람홍색공화국기가 창공에 나붓긴 그날부터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는 푸른 하늘이 열렸고 그 하늘에 희망의 찬란한 별이 떴으며 조선사람이라고 목청껏 웨칠 긍지와 자부와 힘이 생겼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노래 《조국찬가》는 대답한다. 민족의 존엄이라고.

그렇듯 존엄높은 조국에는 품에 안은 매 인간들의 희망과 꿈을 성취해줄수 있는 무궁한 힘이 있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노래에서 가장 인상깊은 구절, 만사람의 격정을 후련하게 폭발시켜주는 절정이다.

조국을 생활의 보금자리, 운명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인민이 제일 바라는것은 이 땅우에서, 이 하늘아래에서 자기가 소원하던 모든것을 이루는것이다.

인간이 조국을 사랑하는것은 조국에 자기의 모든 꿈을 얹었기때문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고싶은 념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서로서로 화목하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싶은 소망, 후손들의 운명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이 살고싶은 소원…

인민은 이 꿈으로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것이다.

인민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랑할수 있는 조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가요 《조국찬가》는 대답해주었다.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곧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다.

이것은 가요 《조국찬가》의 핵이다.

조국은 태여나 첫걸음을 뗀 고향집뜨락이며 선조들이 살아왔고 후대들도 살아가야 할 귀중한 강토이다. 조국은 조상대대로 이어오는 민족의 전통과 혈통이며 순간의 멈춤도 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의 투쟁이다.

이 모든것우에 인민의 꿈이 있다. 그 꿈을 위하여 매 세대들은 조국의 모든 잠재력과 자신의 피와 땀, 목숨까지 바치며 투쟁해왔고 그렇게 이루어진 유산을 다음 세대에 새로운 꿈과 함께 물려준다.

설사 고향집뜨락을 품어안은 강토도 그대로 있고 민족의 혈통도 끊기지 않고 대대손손 물려온다 해도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것을 조국이라 당당히 부를수 없다.

첫걸음마 뗀 고향집뜨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끝나는 가요 《조국찬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살아가고있는 이 조선을 새로운 눈, 새로운 감정으로 다시금 안아보게 한다.

세상에 대고 소리쳐 자랑할만 한 위대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또 얼마나 열렬한가.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부러움없어라 아침의 나라》,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5개 절의 여운깊은 이 결속구들이야말로 조국을 가장 열렬하고 순결하게 사랑하는 진실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말할수 있다.

가요 《조국찬가》는 이렇게 인류문예사에서 처음으로 조국에 대한 완벽한 표상, 애국에 대한 완벽한 인식을 인민에게 안겨주었다.

그 어떤 요란한 표현이나 수식사는 없어도 한없이 위대하고 소중한 어머니조국에 대한 크나큰 감정을 구체적인 정서속에 잘 노래한것으로 하여 가요는 나오자마자 천만심장을 끝없이 매혹시키며 널리 불리워졌다.

출퇴근뻐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 엄마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이여라》를 부른다.

기대앞에 서있는 선반공도, 장기를 두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로인들의 입에서도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가 흘러나왔으며 교정의 창가마다에서도,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체육인들도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가 저절로 울려나온다.

나오자마자 숫눈처럼 부드러운 친화력을 가지고 순간에 천만사람의 심장속에 스며들며 울려퍼지는 노래.

이런 노래는 아무때나 태여나는것이 아니다. 명곡일수록 반드시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반영하는 법이다.

하다면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단군조선이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 강대성이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지는것으로 하여 사람마다 백두산대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렇듯 가슴벅차고 위대한 부흥의 시대이다.

이 격동의 시대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숭고한 애국의 뜻과 의지에 따라 천만군민의 드높은 애국열의로 더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있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앞날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그이의 호소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애국열의를 활화산처럼 분출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과 력사적인 서한들, 축하문들,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들을 통하여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애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여 자신께서 몸소 마련해가지고 오신 나무들을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나도록 정성껏 심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애국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자신께서 심으실 나무의 구뎅이들을 미리 파놓고있는것을 보시고 이런것이 형식주의라고 심중하게 말씀하시였다.

몸소 한삽 또 한삽 구뎅이를 파시고 나무들을 심으시면서 그이께서는 조국산천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끝없이 사랑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시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시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그 열렬한 뜻을 안으시고 온 나라에 눈부신 비약과 전진을 일으켜나가시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심장을 쿵쿵 울린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나의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구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이다. … 그것은 이 구절에 자기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설사 내가 숨이 져 짧은 생을 산다고 하여도 그 생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삶이였다고 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는것이 나의 견해이다. …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길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따라나섰으며 그이와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세계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을 이룩한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나가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시대의 넋으로, 지향으로 되고있고 부흥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애국의 거세찬 흐름이 도도히 흐르고있는 때에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조국찬가》가 태여나게 된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노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심원한 음악세계가 깃든것으로 하여 더더욱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요에 조국에 대한 전인민적사상감정이 반영되도록 제목도 고쳐주시고 인민의 생활, 인민의 어휘를

그대로 담아 가사들도 다듬어주시며 노래의 창작과 형상과정을 세심하게 지도해주시였다.

노래의 구절을 새기느라면 애국은 자기 집뜰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이 더 절절하게 가슴을 친다. 내 나라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것이 참다운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라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던 그이의 숭고한 뜻이 구절마다에 맥박치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노래는 예술적재능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숭고한 높이에 올라선 살아숨쉬는 생명체, 음악으로 가르치는 애국의 교과서라고 탄복을 금치 못해한다.

누구나 매일 듣고 부르는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는 이렇게 세상에 태여났다.

진정 《조국찬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낳은 애국가, 제2의 애국가이다.

《조국찬가》가 나온 때로부터 불과 몇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노래와 더불어 천만군민의 애국심은 오늘 더욱 높이 발현되고있으며 조국은 끝없이 비약하고 전진하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해나가고있다.

가요 《조국찬가》는 모두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천지의 푸른 물처럼 정갈하고 백두의 흰눈처럼 깨끗하게 조국을 받들라.

태양처럼 가장 뜨겁고 노을처럼 가장 열렬하게 조국을 사랑하라.

바다처럼 웅심깊고 파도처럼 열정적으로 조국을 빛내이라고.

□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한 나라, 한 민족의 예술에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치와 경제, 사상과 정신이 반영된다. 지금 조선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으며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고있다.

그것은 노래들을 보면 지금 조선이 어디로 나가고있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101(2012)년은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시조로 높이 받들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그이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사회주의조선의 력사를 새겨온 조선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인 2012년을 맞이하게 되였다.

이해 4월 15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을 찌렁찌렁 울리며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이 온 우주에 울려퍼졌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세계가 귀를 강구고 들었다.

조선의 민심,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그 자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

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함축되여있고 혁명의 근본원리가 집대성되여있다.

혁명투쟁에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자주적신념이 강해야 자기 결심대로 선군의 원칙을 구현하는 사업도, 사회주의리념을 구현하는 사업도 확신성있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다른편으로 불패의 군력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는 지탱점으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는 절대적담보로 된다. 사회주의는 혁명의 목표이며 자주, 선군은 철저히 그에 기초하고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자주, 선군을 떠난 사회주의도, 사회주의를 떠난 자주, 선군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이 세가지 로선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해오시였다.

외세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침략책동,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미국의 무모한 핵공갈로 초래된 전대미문의 조미대결전, 이런 시련속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세기를 이어 빛내이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높이 추켜드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가 있었기때문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 이 말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의 념원과 위업이 깃들어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함축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앞으로 곧바로 전진하는것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조선인민은 바야흐로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맞이하는 중대한 시기에 너무도 뜻밖에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의 차후방향에 대한 세계사회계의 론의가 분분하던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열어놓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던것이다.

이것은 주체100년사에 대한 총화와 시대의 요구, 인민의 절박한 지향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한 력사적선택이였다. 바로 이 결심, 이 의지가 그대로 주체조선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정책화된것이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을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우시려는 원대한 포부와 확고한 의지를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강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국이다.

참으로 희한한 명제이다. 비록 한마디밖에 되지 않지만 이 명제는 누구나가 다 쉽게 리해되고 가슴속깊이에 속속들이 새겨지게 하는 심원한 뜻이 담겨져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은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것이다.

이 명제속에는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진리가 함축되여있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진로가 새겨져있다.

더우기 사람들을 흥분시키는것은 우리가 벌써 강국의 절정에 오르고있다는 그것이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 도덕의리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나라, 그 어떤 강적도 도발자들도 일격에 쳐물리치며 백승을 떨치는 나라의 인민된 긍지, 그 어떤 대국도 지니지 못한 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는 자부심이였다.

경제강국건설도 문제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다 만들어내는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인재 대부대의 위력한 힘이 앞으로의 승리를 약속해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면서 지식경제형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서도록 천만군민을 부르는 불타는 애국의 호소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연설의 마감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손을 높이 들어 힘있게 내리그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강산을 진감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일심의 대오, 선군의 위력을 과시하며 도도히 굽이친 철의 흐름…

이것이 령도자의 호소에 화답하는 조선의 모습이였다.

이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공격구령에 화답하여 일시에 력사적대진군의 힘찬 걸음을 뗀것은 결코 승리의 신심과 락관이 용솟음쳐서만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절대의 책임감과 무한대의 사랑, 이것을 심장으로 느꼈기에 군민의 감격은 절정에 달하였고 보답의 숭고한 감정은 뜨겁게 분출한것이다.

그 격정이 시대의 진군가가 되여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쳤다.

일심의 천만군민 정신력 폭발시켜
조선은 강성국가 진군북 울려간다
나가자 백두산대국아 당중앙 부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불패의 군력으로 백승을 떨쳐가며
조선은 강성국가 총대로 떠받든다
나가자 백두산대국아 선군의 기치높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 봉화를 추켜들고
조선은 강성국가 기상을 떨쳐간다

나가자 백두산대국아 태양기 축복안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가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이 노래에는 조선이 가는 길이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천만군민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고있는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노래에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위대한 명언이 불길처럼 맥박치고있다. 노래에는 조선의 힘, 강국의 래일을 확신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나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상과 지향이 기발처럼 나래치고있다.

노래에는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격동적인 시기를 맞이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새겨주는 명구가 있다.

나가자 백두산대국아,

참으로 위대하고 성스러운 부름이다. 온 겨레가 그토록 바라던 세기적숙망이 바로 이 노래에서 울려나오고있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식민지약소민족의 설음을 눈물과 한탄속에 받아들여야만 했던 우리 민족이였다.

그러나 성스러운 주체의 100년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은 곡절도 많았던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오랜 세월 꿈으로 남아있던 민족의 숙원을 눈부신 현실로 안아왔다.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놀라운 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였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탁월한 수령으로, 어버이로 모시여 펼쳐진 력사의 필연이였던것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광활한 령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뽐내며 대국이라 일컫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하다면 그것이 과연 대국의 징표로 되는가.

력사는 령토의 크기가 대국의 징표로 될수 없으며 군사기술적우세나 경제력의 발전이 어느 몇몇 나라의 독점물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쳐가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정신력이 있고 자주와 정의의 군력과 인민의 참된 재부가 넘치는 나라가 바로 만민이 진정으로 우러르는 큰 나라인것이다.

하기에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조선사람들은 가슴 펴고 당당히 말하고있다.

내 조국은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일떠선 위대한 백두산대국이라고.

가요는 격동하는 시대의 기상과 인민의 념원을 반영한 《백두산대국》이라는 시대어를 가사화하고 그것을 가사의 전반적인 형상속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고있다.

《나가자 백두산대국아》의 힘찬 구절이 《당중앙 부름따라》, 《선군의 기치높이》, 《태양기 축복안고》와 같은 시대감정이 짙은 신통하면서도 적중한 시적표현들과 나란히 울려나올 때 사람들은 누구나 숭엄한 감정속에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다같이 그려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세월의 폭풍우를 헤쳐온 그 나날에 억세게 다져진 무비의 정신력이 투쟁의 원천으로 되고 불패의 군력으로 백승을 떨쳐가는 선군의 보검이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며 세차게 타오르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인민의 지상락원을 가꾸어가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백두산대국의 기상인것이다.

가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을 더 훌륭한 래일에로 부르는 조국의 뜨거운 호소이며 그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는 천만군민의 열렬한 호응이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 또 한편의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울려나온다.

찬란한 태양기 축복받으며
백두산대국은 진격해간다
나가자 조선아 당중앙 부름따라
경제와 핵무력 병진 병진 앞으로

이 땅에 침략의 원쑤 있는 한
우리가 갈길은 이 길뿐이다
나가자 조선아 필승의 신심높이
경제와 핵무력 병진 병진 앞으로

경제를 건설해 만복 누리고

핵무력 건설해 운명 지킨다
나가자 조선아 세상에 소리치며
경제와 핵무력 병진 병진 앞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드높은 열의를 반영한 가요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

이 노래는 어떻게 되여 태여나게 되였는가.

2013년에 들어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 또 한차례 조미대결전이 벌어졌다.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주권수호를 위한 지하핵시험을 걸고들며 날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를 꾸며낸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할 흉심밑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여기서 미국은 지상과 해상, 공중의 3대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가하였다. 조선에 대한 정치경제적압력과 봉쇄, 군사적위협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침략자들의 도발책동은 사상최악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게 되였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근 70년간에 걸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이때의 조미핵대결도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공갈과 압력으로 하여 빚어진 결과이다.

주체101(2012)년 12월 공화국이 쏴올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자신의 운명을 더 아름답게 개변시키고 제힘으로 자기 생활을 풍만하게 꾸려나가려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세계의 제노라 하는 나라들만이 쏴올리는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발사하여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며 조선인민은 얼마나 환희와 기쁨에 넘쳐있었던가.

우주개척은 인류의 오랜 꿈이고 사람들의 복리증진과 잇닿은 길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응당한 권리이다.

그런데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조선인민의 행동을 《도발》로 매도하며 국제무대에까지 끌고가 제재와 압력의 칼을 휘두르는 경악할 사태가 벌어졌다.

어느 나라나 능력이 있으면 저마다 쏴올리는것이 위성일진대 조선에서 발사하는 위성만이 부당하다고 하는것이야말로 파렴치와 횡포무도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우주과학도 연구해선 안되고 이 땅의 주인들은 최첨단기술의 덕을 보아서도 안된다는 날강도적인 론리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와 침략책동, 핵위협행위는 류례없이 포악하고 간악하였다.

일찌기 누군가는 《정의에 의거하라, 그대의 힘은 2배로 늘어나리.》라고 말하였다. 사람이 사람답게 자주적으로 살고 나라가 나라답게 존엄을 떨치며 번영해가는것이 정의가 아니겠는가.

미국이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것은 조선인민이

정의롭다는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공화국을 두고서는 전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없고 세계제패전략도 실현할수 없기에 미국은 공화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며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의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는것이다. 미국의 오만무례한 자주권침해행위를 더 묵인하면 나중에는 조선인민에게서 먹고 쓰고사는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리마저 빼앗으려고 달려들게 될것이다.

가증되는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자주권수호의 결사항전의지를 과시한 공화국은 마침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나갈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세찬 기세에 질겁한 적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전쟁전야의 엄중한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날로 가증되는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미전면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히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백두산대국으로 빛내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당중앙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입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 이것은 미국에 대한 백여년의 한이 맺힌 분노와 증오의 결정체이며 사회주의조선이 위력한 핵억제력에 토대하여 강성번영의 세기적인 리상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라는것을 천명한 정의의 선언이다.

공화국의 핵억제력강화조치는 이 땅에 미국의 침략위협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핵공갈이 지속되는 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도 강위력한 힘에 의거할 때만이 담보된다는 력사의 교훈에 기초한 최선의 선택이다.

자기가 선택한 길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날이 보이는 로선을 받아안은 인민의 힘보다 더 무서운것은 없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승리자의 신심과 배짱에 넘쳐 령도자의 부름에 화답해나섰다.

이 땅에 태여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번영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선렬들이 바친 고귀한 피땀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날강도 미제와 적대세력들을 결단코 짓뭉개기 위하여 조선은 용감히 일떠섰다.

이러한 시대적배경속에서 가요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가 세상에 높이 울려퍼진것이다. 가요는 오늘의 시대정신과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훌륭한 언어구사와 선률형상으로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1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 축복을 받으며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에서 언제나 련전련승만을 안아온 백두산

대국의 기질과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에로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기백있게 노래하고있다.

2절에서는 이 땅에 침략의 원쑤들이 있는 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이야말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선택이며 최후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필승의 진로임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3절에서는 선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우며 자위의 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선언하고있다.

이처럼 가요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는 시대가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절박한 문제를 담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헤쳐온 영광의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조선이 나아갈 길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편의 노래를 불러도 조국의 부름을 깊이 새겨안을줄 알고 끓어오르는 정서적충동을 벅찬 투쟁의 기적과 위훈에로 이어갈줄 아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다.

노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가 높이 울리는 속에 이 땅에는 얼마나 눈부신 비약이 일어났는가.

오늘 공화국의 핵무력은 수소탄을 포함한 각종 핵탄들과

고도로 정밀화된 최첨단핵타격수단들을 그쯘히 갖춘 막강한 위력을 떨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공화국의 경제는 자력자강의 기치밑에 창조와 건설의 최전성기, 우주개척의 눈부신 도약기, 생산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일대 번영기에 들어섰다.

□ 날마다 흥하는 내 조국의 모습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부시고 금은보화 가득찬 전설의 나라인 사랑하는 조국땅에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일떠세워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잘살게 하려는것,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령도, 애국으로 솟구치는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떠받들려 지난 몇해어간에 이 땅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 부흥의 전조를 알리는 기적과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났다.

지식경제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도처에서 일떠서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가 실현되여 생산적앙양이 일어났으며 우주에서는 우리가 만든 실용위성이 돌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으며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화폭이 펼쳐졌다.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도 제일국사로 내세운 은혜로운 당의 손길에 떠받들려 일떠선 사랑의 기념비들은 얼마나 많은가.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백학동, 연평마을 등 새 거리, 새 마을들, 현대적으로 꾸려진 야영소들과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들, 문명의 선경을 펼쳐놓은 인민극장,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나날이 풍요해지는 전야와 산천…

도처에 꾸려진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들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가는 곳마다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 낟알향기가 차넘치고있다.

동화속의 무릉도원같이 현실로 펼쳐지는 인민의 지상락원, 나날이 흥해가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긍지, 생의 희열과 랑만이 이 땅 그 어디 가나 흥겨운 노래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고산이라 철령아래 출렁이는 과수바다
아름다운 백리과원 눈뿌리도 아득해라
가지마다 알알이도 구슬같이 맺힌 열매
전선지대 무릉도원 전선지대 무릉도원
그림같이 황홀하오

철쭉꽃 핀 철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천만송이 사과꽃이 움터나는 청춘과원
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속에 만발하여
원수님의 은정속에 원수님의 은정속에
열매되여 주렁졌소

사과바다 물결우에 춤을 추는 갈매기냐
사과따는 처녀들의 꽃수건도 한들한들
천지개벽 노래하는 선군세월 새 풍경아
고산땅이 꺼지도록 고산땅이 꺼지도록
과일대풍 안아오세

철령아래 과일향기 차고넘쳐 목이 메냐
이 절경을 펼친 은덕 사무쳐와 목이 메네
장군님의 인민사랑 원수님이 꽃펴주신
예가 바로 부흥하는 예가 바로 부흥하는
내 조국의 모습일세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넘쳐나는 과일향기를 싣고 흥취나고 멋들어진 노래의 파도가 세차게 울린다.

마치도 노래의 선률에 실려 아득한 사과바다가 삼천리에 물결치는듯…

흥취나면서도 절절하고 약동적이면서도 깊은 정서를 안고있는 가요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워지며 위대한 향도의 해발아래 나날이 풍요해지는 조국의 모습을 가슴후련하게 구가하고있다.

가요는 오늘날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의 뿌리와 열매에 대하여 풍요하고 기름진 예술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우선 짧은 시어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그대로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려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감명깊고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 구름도 쉬여서 넘는다는 그 높고 험한 철령아래에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황홀한 사과바다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고산땅의 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4개 절의 짧은 가사속에 함축된 시어로 풍부하게 형상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풍요한 과원과 행복의 터전에서 애국의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주인들의 모습을 생활적이고 통속적인 시어들에 담아 명쾌하게 노래하기도 한다. 《출렁이는 과수바다》와 《눈뿌리도 아득해라》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들에게 사과풍년이 들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흐뭇한 느낌과 끝없이 펼쳐진 사과밭의 전경을 눈앞에 보이는것처럼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으며 《구슬같이 맺힌 열매》, 《사과바다 물결우에 춤을 추는 갈매기냐》와 같은 비유법들은 하나와 같이 알차고 먹음직스럽게 달린 사과알들을 따는 처녀들의 기쁨어린 모습도 그려보게 하고있다.

노래는 철령아래 사과바다, 사과대풍은 단순한 과일풍년이 아니라 절세의 위인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의 모든 전야마다 나날이 풍요해지고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날로 변모되여가는 조국의 약동하는 모습이 어찌 땅에서만 펼쳐진것이라 하랴.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바다에서도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바다향기가 진하게 흘러넘친다.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늠실늠실 만경창파 춤추는줄 알았더니
물고기 떼지어 출렁이는 보배론 바다로다
마중가며 잡구요 어그여차
따라가며 잡구요 어그여차
어그야 디야
우리 정성 우리 기쁨 풍어기로 나붓겨라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땅우에는 단풍계절 한해 한번 있다지만
우리네 바다는 사시장철 풍성한 가을일세
산더미로 퍼올려 어그여차
물고기산 쌓아라 어그여차
어그야 디야
이 기쁨이 뉘 덕이냐 원수님의 은덕일세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이 나라 동서해에 높이 울리는 만선의 배고동소리와 바다향기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흐르는 노래 《바다만풍가》!

가사에 펼쳐진 생활은 수십년만에 보는 물고기대풍을 두고

끓어번지는 분위기 그대로이며 그속에서 분출하는 감정은 물고기떼 욱실대는 바다우에서 그물을 당기며 힘든줄 모르는 어로공들의 가슴에 샘솟는 흥겨운 로동의 희열이다.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라는 가사의 첫 구절을 불러보면 저절로 심장이 높뛰고 그 박동에 가슴이 설레이며 그 흥취에 량어깨가 물결친다.

가사의 후반부에서 《마중가며 잡구요》, 《산더미로 퍼올려》, 《물고기산 쌓아라》 등의 먹임소리뒤에 그에 화답하듯 민요풍의 《어그여차》로 반복되여 울리는 받음소리는 어로공들의 신바람나는 일손에 맞장구를 치듯이 흥을 돋구어주고있으며 그뒤로 울리는 《어그야 디야》소리는 강한 정서적메아리를 울려주고있다.

바다의 류다른 풍경속에 건드러진 로동의 률동이 울리는 가사는 그대로 우리 시대의 생활의 노래이다.

쉼없이 설레이는 바다처럼 흥겨운 정서속에서 자연히 이어지는 사색은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린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자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시며 현대적인 고기배들도 마련해주시고 그 명칭도 풍요한 가을의 상징인 《단풍》호로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4 000t의 물고기를 잡으면 자신께 편지를 하라고 부탁도 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시여서는 만선의 배고동소리와 더불어 펼쳐진 물고기대풍을 보시며 만시름 잊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온다.

동해기슭에 새로 일떠선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서는 사랑하는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진정 오늘의 이 희한한 물고기대풍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소원이 안아올린 풍요한 사회주의풍경인것이다.

바로 이 뜻깊은 시대의 정서를 가사의 상으로 잡고 물고기대풍을 마련해가는 흥겨운 어로생활을 화폭으로 펼치면서 오늘의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더 큰 변을 창조해갈 강렬한 사상정서적지향을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라는 결구로써 표현하고있는것이다.

이렇게 가요 《바다 만풍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정치를 개념으로가 아니라 생활로, 요란한 웨침으로가 아니라 심장에서 굽이치는 뜨거운 노래의 물결로 서정화하고 가식없는 생활의 률동으로 펼치고있다.

열화같은 인민사랑으로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을 펼쳐준 은혜로운 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 후손만대가 복락을 누려갈 삶의 보금자리에서 누리는 생의 긍지와 희열을 가슴벅차게 터치며 노래소리 끝없이 울려퍼진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첫사랑을 속삭이던 버들방천 어드메냐
주름깊은 얼굴에도 그 버들이 싱싱하오
선군세상 복을 누려 구십환갑 노래하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
우리 당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인생의 로년기에도 패기와 활력에 넘쳐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년로자들의 긍지높은 삶이 그대로 비껴있는 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

지난 시기 문예작품들을 보면 흐르는 세월에 비유하여 인간생활을 노래한 작품들이 수없이 많다. 대체로 세월과 관련한 노래들을 쥐여짜면 세월아 가지 말아였다. 그러나 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는 그 제목부터가 특색있고 흥미있다.

가요는 좋은 세월을 만나 인생의 황혼기도 청춘으로 사는 우리 인민의 생활을 민족적인 정서에 담아 이채롭게 형상하고있다. 어딜 가나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고 젊음과 열정으로 약동하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상을 《그 시절이 푸르르오》, 《버들방천 어드메냐》, 《그 버들이 싱싱하오》, 《우리 마음 늙을소냐》,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과 같이 늙은이들의 심정을 담아 옛스럽고 토색적이며 흥취로운 고유어로 실감있게 표현하고있다.

노래에는 년로자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우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품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가사마다에 뜨겁게 차넘친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사회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들을 적극 보살펴주는 미풍이 사회적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도록 하여주시고 전국의 모든 양로원들을 보양생들이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금자리로 잘 꾸림으로써 그들이 당과 국가,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의 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된 양로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년로자들에게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궁궐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년로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년로자보호정책을 철저히,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눈물짓던 온 나라 인민들이였다.

정녕 이 땅에 솟아난 하나하나의 창조물들, 사람들의 생활속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넋을 바쳐가시는 절세의 위인의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과 헌신이 슴배여있으며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흐르는 세월도 마냥 즐겁고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우리 인민이다.

그러니 행복의 노래, 희열과 랑만의 노래 끝없이 흘러나오는것이다.

□ 미래를 마중가는 애국의 진군가소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며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변모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사회주의강국, 사회주의문명국.

듣기만 해도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이 말들이 사람들의 생활속에 자리잡은것은 불과 몇년전의 일이다.

누구나 이 말들이 실어다주는 래일의 훈향을 느끼며 자신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보면서도 그 실체가 이렇게 빨리 생겨날줄은 몰랐다.

사람들은 마침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향유가 달라지며 시대가 달라진다는 환희에 휩싸여있다. 탐스러운 열매들과 긍지높은 창조물들을 보며 행복의 씨앗과 함께 헌신의 구슬땀도 묻어온 가슴찌릿한 추억과 함께 《머지않아》, 《불원간에》라고 수없이 외웠던 그 부흥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있다는 환희로 누구나 마음이 설레이고있다. 조선은 단번에 세계적인 강국, 문명국의 궤도에 올라서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는 자부심으로 심장은 세차게 높뛰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은 삶의 보금자리이고 희망과 미래가 약속되여있는 마음의 기둥이며 긍지와 자부의 전부이다.

하기에 사람들 누구나 존엄높은 선군조선에서 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을 더 부강하게, 더 살기 좋은 무릉도원으로 가꾸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바로 이러한 보석과도 같은 애국심이 그대로 시가 되고 선률이 되여 강산에 메아리치고있다.

《행복의 래일》,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사랑하노라》, 《내 마음》, 《사랑할 때면》, 《떨쳐가자 천하제일강국》, 《달려가자 미래로》, 《우리는 만리마기수》…

가슴 뭉클 젖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래일 더 좋으리
(후렴)
  앞당기자 멋진 래일 광휘로운 우리의 래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랴

제손으로 뿌린 씨앗 피땀으로 가꿔온 우리
결심하면 모든것을 다 이룰 자신이 있다네
(후렴)

대대손손 락을 누릴 영광의 시대는 오리
동무들아 가슴펴고 담차게 발걸음 내딛자
(후렴)

가요 《행복의 래일》에는 우리 인민모두의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여있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창조의 열정이 감동깊게 반영되여있다.

가요를 듣노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긍지와 자부로 심장이 높뛰고 오늘이 아니라 래일에 살고있는듯 한 격정에 휩싸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요는 그 시적표현들의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말하려고 하는 사상을 의미심장하게 강조하고있다. 가사를 따라외우면 저도 모르게 오늘의 현실을 음미해보게 된다.

가요에서는 1절 가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어떤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가사에서는《가슴 뭉클 젖는 행복》, 《오늘 이렇게 좋은데》와 같은 시적표현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헌신에 의하여 마련되는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뜨겁고 위대한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스스로가 되새겨보도록 하고있다.

또한 《제손으로 뿌린 씨앗 피땀으로 가꿔온 우리》, 《결심하면 모든것을 다 이룰 자신이 있다네》와 같은 2절 가사의 시적표현들은 우리의 행복은 그 누가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땀으로 이룩한것임을 강조하면서 자기 힘을 믿고 력사의 시련을 헤치며 이룩하여온 행복에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또한 행복의 귀중함을 자각하고 이 땅에 기어이 만복의 락원을 일떠세우고야말려는 천만군민의 자신만만한 배짱과 담력, 조선의 기질에 대하여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3절 가사에서는 오늘의 행복에 만족을 모르고 더 큰 행복

을 안아오려는 인민의 드높은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대대손손 락을 누릴 영광의 시대는 오리》, 《동무들아 가슴펴고 담차게 발걸음 내딛자》의 표현들은 더 좋은 래일의 행복을 향하여 어떻게 살며 일하고있는가를 웅심깊게 시사해주고있다.

가요에서 후렴부분의 《멋진 래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과 같은 표현들은 오늘의 현실을 형상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가요 《행복의 래일》은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으며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모든것을 빛내가는 식을줄 모르는 애국의 마음이 이 땅에 굽이치는 한 인민이 바라고 리상하는 행복의 래일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가요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도 은혜로운 태양의 손길아래 인민이 바라던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시대상을 밝고 랑만에 넘친 시음악형상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우린 누구나 기쁨에 넘쳐 눈부신 아침 즐겁게 맞네
바라는 꿈이 눈앞에 꽃펴 래일도 즐겁게 맞네
밝고밝아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만복의 희망 넘치는 나의 조국아
…

은혜론 해빛 찬란한 별빛 만년대대로 눈부신 강산

세상에 없는 긍지를 안고 창창한 미래로 가네
위대하여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번영의 희망 끝없는 나의 조국아

가요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은 따사로운 인민사랑의 품속에 안겨 눈부신 오늘과 더욱 희망찬 래일에 대한 확신을 안고 살며 일해나가는 인민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열정이 있고 창조와 위훈이 있기마련이다. 이 땅우에 사회주의만복이 꽃피고 내 나라, 내 조국이 부강하고 번영해질것이라는 희망이 크면 클수록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은 더욱 뜨겁고 강렬하게 불타오른다.

《사랑하노라》, 《내 마음》, 《사랑할 때면》을 비롯한 노래들에서 《소중한 보금자리 나의 집이여》, 《창조로 보람넘친 나의 일터여》, 《떠나선 살수 없는 우리의 락원》, 《그 미래도 찬란한 태양의 나라》, 《위대한 나의 조국 사랑하노라》, 《낳아 키워준 정든 어머니 조국없인 내 삶도 없어》, 《꿈을 꽃펴준 행복의 요람 조국없인 가정도 없어》, 《내 한생 내 한생 애국의 마음 아름답게 간직하리라》, 《한마음 조국에 바치는것이 참다운 보람이기에》, 《한마음 조국에 바치는것이 더없는 행복이기에》, 《한마음 조국에 바치는것이 제일 큰 영광이기에》, 《바치렵니다 불타는 사랑 둘도 없는 나의 조국에》, 《바치렵니다 더운 피와 땀 번영하는 나의 조국에》, 《바치렵니다 나의 모든것 존엄높은 나의 조국에》 등의

표현들은 그대로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 로동의 보람과 창조의 희열이 넘치는 오늘의 생활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삶의 보금자리이고 행복의 터전인 내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려는 인민의 진실한 감정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조국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랑을 안고 만리마의 기상을 안고 이 땅우에 세인이 경탄하는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드높은 열정과 기개 하늘땅을 진감한다.

로동당이 펼친 만리마의 시대
질풍같이 내달리자 새 승리에로
자기 힘을 믿고 만난 헤쳐가는
우리들은 만리마기수
(후렴)
　만리마 조선의 기상이여
　만리마 주체의 나래여
　눈앞에 제일강국 바라보며
　힘차게 힘차게 달린다

행복에로 가는 지름길을 열며
혁신으로 증산으로 기적 떨친다
과학기술나래 활짝 펴고 날아
리상향에 어서 가닿자
(후렴)

폭풍치며 전진 번개치며 전진
이 진군에 사회주의승리가 있다
백년세월 당겨 미래 향해 달려
온 세계를 앞서가리라
(후렴)

가요 《우리는 만리마기수》.

전체 인민이 시대의 선구자가 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오늘의 시대의 본질, 만리마시대가 무엇으로 전진하고 비약하며 만리마기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시대의 거울과도 같은 노래이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5년의 그 나날, 장구한 력사에서 한순간이라 해야 할 그 짧은 세월이 만리마시대를 태동시킨 옹근 하나의 거대한 년대기였다.

일시에 모든것이 흥하고 인민의 금방석들이 땅이 넘쳐나게 자리잡는 희한한 세월, 건설의 번영기만이 아니였다. 무전무혈승리의 신화와 전화위복의 신화, 자력자강의 신화…

노래가 태여난 2016년에만도 이 땅에는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속에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세계를 진감하는 신화들이 얼마나 많이 창조되였던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

넌초부터 천하제일강국의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는 속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도 날에 날마다 눈부신 성과들이 다발적, 련발적으로 일어났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 할것없이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속에 70일전투기간에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공업생산이 1.6배로 장성하였고 200일전투기간에는 첫달에만도 공업총생산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상징하는 눈부신 속도이다. 어느 누구라 할것없이 만리마의 기수가 되고 시대의 영웅이 될 일념으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는것이 오늘의 벅찬 현실이다.

인민을 만리마에 태워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전설에도 없는 만리마를 불러주신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진두에서 이끄신다. 맨 선참으로 나라의 새벽문을 여시고 밤낮이 따로없이 시간을 분분초초로 쪼개가며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분투하시는 그이의 시간으로 조국이 소리치며 전진하고있다.

2016년의 비약적인 성과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의지에 따라 창조되였다.

2016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창조의 동음 울려퍼지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간곡한 당부와 더불어 시대가 또 한번 격동하고 조선의 기세와 속도가 달라졌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이 땅우에 강성번영하는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로선들과 투쟁과업들이 제시되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라는 호소문이 발표된것은 격동의 이 시대에 활력을 더해주었고 천만군민을 힘찬 전진에로 떠미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우리 조국은 바로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천하제일강국을 향하여 질풍쳐 내닫고있으니 불멸의 낮과 밤들에 새겨진 그 로고를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오로지 당을 따라 만난을 이겨낸 인민에게 만복을 베푸시려 쉼없이 달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헌신, 불타는 열망이 그대로 만리마속도가 되였다.

오늘 만리마는 모두의 일터, 누구나의 생활속에 깃들어있다. 자기가 맡은 기대들과 포전들, 탄전과 광구들에 있다. 밤깊도록 거리로 오가는 궤도전차운전사들이 울리는 동음, 불밝은 연구기지와 날바다를 헤가르는 고기배들도 만리마의 나래

편 기상이다.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로 부른 시대의 요구가 애국의 격문과도 같이 뚜렷이 천명된것이 가요 《우리는 만리마기수》이다. 남들이 걸은 날과 달을 주름잡고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 지향이 가사의 마디마다에, 운률마다에 집대성되여있다.

이 노래가 울려퍼지는 곳에서 새로운 위훈자들이 끊임없이 태여나고있으며 따라배우고 따라앞서는 경쟁열풍이 세차게 불고있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부름에 《우리는 만리마기수》라는 노래로 수천수만의 떳떳한 위훈자들이 화답한다.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르며 순간순간을 승리와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이 노래만이 아닌 《떨쳐가자 천하제일강국》,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노래들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올 일념으로 심장을 달구며 류례없는 기적과 혁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인민의 투쟁모습을 격조높이 펼쳐보이고있다.

진정 태양의 빛발따라 끝없이 번영하는 내 나라, 창조와 기적으로 충만된 오늘의 시대를 목청껏 노래하는 인민의 정서와 랑만은 나날이 늘어나는 사회주의찬가들과 더불어 강산을 끝없이 울리고있다.

□ 사회주의의 영원한 주제가－《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땅에 첫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근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지도 60년을 가까이 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이 헤쳐온 위대한 력사와 휘황찬란할 래일을 다 말해주는 한편의 노래가 있으니 그 명곡이 바로 《세상에 부럼없어라》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시작되던 주체105(2016)년 5월 6일 《로동신문》의 1면에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김일성**상과 **김정일**상을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실리였다. 한편의 노래가 절세의 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최고의 영예상을 다같이 수여받은 사실은 만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넘치는 해빛밝은 창가에서도, 병사들이 지켜선 천리방선초소에서도, 기적과 비약이 나래펴는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서나 희열과 랑만으로 맥동치는 아름다운 삶의 선률인양 높이 울려퍼지는 노래.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후렴)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렴 몰라라
(후렴)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풍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펴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후렴)

인민의 생활속에 물처럼, 공기처럼 깊이 스며들어 이 땅의 남녀로소 누구나 스스럼없이 부르는 노래이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은 마냥 즐겁고 무한한 행복감이 가슴가득 치밀어오른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며 자랐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기며 사람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에 담겨진 심오한 뜻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음미해보았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위대한 수령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조국의 참모습과 당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을 격조높이 구가한 영원한 수령송가이며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노래, 사회주의찬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준엄한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어 혁명의 천만리길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왔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인민의 령도자, 어버이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억세게 나아가고있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태여날수 있고 우리 인민만이 심장으로 터치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야말로 명곡중의 명곡이며 강렬한 생명력을 가지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더 높이 울려퍼질 사회주의만세의 우렁찬 합성이다.

…》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는 한평생을 바쳐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천만군민이 터치는 수령송가, 사회주의의 영원한 주제가이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여도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만을 누려가리라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는 영원한 태양칭송가이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수여된 **김일성**상과 **김정일**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누려온 우리 인민의 잊을수 없는 행복한 모든 생활에 대한 총화이며 인류사에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의 사회주의가 어떤것인가를 불멸의 기념비로 아로새겨놓은 위대한 로동당시대에 대한 값높은 표창이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주체50(1961)년에 창작되였다.

노래가 창작되기 몇해전인 1958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우리 공화국이 미제를 쳐물리치고 이 땅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완전히 청산한데 대하여 엄숙히 선언하시였으며 1961년 9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반만년의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이 절절히 념원하였고 수많은 혁명가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제도를 공화국북반부에 창설하여놓은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과 함께 인민도, 인민의 생활도 새롭게 탄생한 격동의 그 벅찬 시대의 환희가 그대로 가사와 선률로 엮어진것이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였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해주혁명학원(당시)에 나갔던 창작가가 원아들의 하나같이 끌끌한 모습을 보고 지은 노래이다.

당시 학원을 지나치던 창작가는 학원운동회를 보게 되였다.

그는 원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참으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구김새 하나 없이 밝게 웃는 저 얼굴들, 행복에 겨워 랑만과 기쁨에 넘쳐 활개치며 뛰노는 저 모습들, 그들을 어찌

부모없는 아이들이라 하랴.

하늘은 가없이 푸르고 노래소리, 응원소리 울리는 속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손풍금소리는 류다른 감흥을 불러왔다.

그 광경이야말로 행복과 기쁨, 랑만과 희열이 넘친 하나의 아름다운 화폭과도 같았다.

그것은 그대로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에 안겨 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한없이 좋은 내 조국의 참모습이였으며 그 품속에 온 나라가 친형제가 되여 세상에 부럼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에 대한 노래였다.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생활의 구석구석마다에 뜨겁게 어리여있는 학원에서 보는것마다 새롭고 듣는것마다 가슴벅찬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교정과 교실마다에 써붙인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뜻깊은 글발을 보는 순간 창작가는 심장에 쿵 하고 마쳐오는것을 느꼈다.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우리 수령님.

인민을 모든 정책작성의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로동당.

하기에 우리 인민모두는 그처럼 스스럼없이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이시고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소리높이 칭송하고있지 않는가. 저 글발속에 담겨진 숭고한 뜻이야말로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끝없이 소용돌이치는 진정의 웨침이고 그토록 부르고싶은 노래의 가사이고 선률이 아니겠는가.

끓어오르는 창작적욕망, 솟구쳐오르는 열정을 억제할수 없어 창작가는 눈앞에 펼쳐진 생활 그대로를 오선지우에 적어

나갔다.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는 이렇게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그렇듯 진실한 시대감정이 친근하고도 부드러운 가사와 곡을 타고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남녀로소가 언제 어디서나 부를수 있는 인민적이고 통속적인 대중가요이다.

독창, 중창, 합창으로 불러도 좋고 아이들이 불러도 좋으며 어른들이 불러도 좋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감정정서를 잘 살린 유순하고 부드러운 선률은 들을수록 아름다운 랑만과 희열, 열정을 북돋아주며 무르녹는 행복의 세계에로 만사람을 이끌어간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비옥한 《토양》을 형상의 바탕으로 하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이란 과연 어떤것인가를 밝힌 철학적인 명작이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그 어느 나라 인민대중이든지 한결같이 소원하는 사회적평등과 화목,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번영을 행복의 징표로 선정하였다.

명곡에는 행복넘친 손풍금소리가 메아리치는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을 사람들모두가 떳떳이 바라보는 기쁨도 있고 그 어떤 대적도 발밑에 굽어보는 승리자의 존엄도 있으며 번영하는 조국의 기상과 숨결을 가슴벅차게 느끼고 호흡하는 환희도 굽이치고있다.

그 모든 긍지와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해답이 노래에서는 보석과도 같은 구절로 빛나고있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수령은 우리의 아버지, 당의 품은 우리 집!

아버지와 집은 사랑이고 정이다.

운명의 기둥인 아버지와 삶의 보금자리인 집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고 귀중한 존재이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의 불우한 운명, 집이 없는 인간의 비참한 설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어느것이나 구슬픈 불행의 탄식가로밖에 될수 없다.

한 인간의 작은 생활도 그러할진대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아버지라 부르며 삶의 기둥으로 삼을 어버이의 존재, 인민이 자기의 생활과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 운명의 요람은 더없이 절실하고 귀중한것이 아닐수 없다. 그것 없이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노래할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바란다고 하여, 때가 되여 차례지는 행운이 아니다. 그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지만 령도자를 잘못 만나 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여 불행과 고통을 겪고 동란의 나락에서 헤매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인민에게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달려가 안길 자애로운 어버이가 계시고 《우리의 집》이라고 열렬히 칭송하며 운명을 맡길 위대한 품이 있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체험으로 찾은 생활의 진리를 인간생활의 구체적인 실체를 통하여 뜨겁고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당과 수령, 인민이 혈연적관계를 이루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의 본질을 훌륭히 예술화하였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우리 인민은 세

상에 부럼없는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와 더불어 혁명의 년대마다에 가슴벅차게 체험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만리를 헤치시여 눈물과 설음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의 세상,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을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인민의 심장속에서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려 위대한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의 토대를 닦으시였다.

참으로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회주의대가정을 일떠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였으며 인민이 대를 이어 운명을 맡기고 사는 내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로 떠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빛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노래하는 국보적인 명곡이다.

이 노래를 부르며 내 나라가 전진하였고 인민의 행복이 꽃펴났다.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조국강산의 그 어디서나 울려퍼지였다. 로동계급은 용광로를 일떠세우고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완공한 긍지와 영예를 안고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를 합창하였으며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협동벌에 성실한 노력을 바쳐 풍년을 이룩한 자부심을 안고 이 노래와 함께 결산분배장에 들어섰다. 휘황한 미래를

펼쳐주는 조국의 부름에 한생을 다 바칠 각오를 안고 축복의 결혼식날에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행복의 노래를 주시고 세기를 이어 굳건히 지켜주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을 노래한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전체 인민은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안고 경의를 드리고 있다.

지나온 시대들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이 노래는 의연히 조선인민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사회주의조선을 상징하는 가장 우수한 명곡으로 되고있으며 강성조선의 눈부신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약동하는 삶의 메아리로, 사회주의 생활의 영원한 주제가로서의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이 땅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창작된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세월의 흐름속에서 세대는 바뀌고 인민의 꿈과 리상도 아득히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행복의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의 행복관이고 행복의 유일한 기준임을 력사의 분수령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더 높이 울려가는것으로 시대앞에, 세계앞에 당당히 선언하고있다.

주체103(2014)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동해명승 송도원에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궁전으로 훌륭히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일류급의 과외문화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야영소를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아이들의 구호가운데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가 제일 좋다고,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집대성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아이들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또다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나오시여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하루를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나라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영원히 울려퍼지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그 뜻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동반하는가를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은 매일 매 시각 가슴뜨거운 화폭으로 새기고있다.

동서고금에 없는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가 어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로 격변하는 력사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인민의 꿈과 리상은 눈부시게 꽃펴나고있으며 우리 조국의 국력은 한달음에 만리를 내달리는 만리마마냥 우죽우죽 내뻗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력사적투쟁과정이 긍지높이 총화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목표들이 제시된것은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도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사회주의의 영원한 주제가로 울려퍼지리라는 조선로동당의 철석같은 의지의 반영이다.

이 세상 제일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이 세상 제일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에서 만복을 누리는 인민의 목소리, 인민의 생활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였기에 세월이 흘러도 정서적감화력을 잃지 않는 불후의 명작으로 오늘도 울려퍼지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이며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의 우렁찬 합창이다.

노래는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수십년력사와 함께 나날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를 확신케 하는 조선식사회주의대교향악의 주제곡으로 이 땅우에 세세년년 울려퍼질것이다.

4. 온 나라에 울려퍼지는 조국수호의 노래

□ 더 높이 울려가는 시대의 전승찬가

둘러보면 오늘의 세계는 소란하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지구의 여기저기서 무고한 인민들의 눈물과 곡성이 랑자하고 류혈의 참극이 잇달아 빚어지고있다. 걸핏하면 마구 치고 부시는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적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이 령토와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히우고 선량한 사람들이 침략의 위협앞에 불안과 공포로 떨고있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60여년이상이나 평화가 깃들고 창조와 건설의 마치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진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의 발전력사는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반제반미투쟁을 동반하여온 사회주의수호전의 력사이다. 외세에 의한 국토분렬의 진통속에서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태여난것이 우리 공화국이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침략과 간섭,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주체의 한길, 강성번영의 한길로 전진하여온것이 조선의 사회주의이다.

한 민족의 사상과 리념을 변화시키는것을 식은 죽 먹기로 아는 제국주의가, 한 나라에 폭탄세례를 퍼붓는것쯤은 아이들의

장난으로 아는 제국주의가 어이하여 사회주의보루로 세인이 공인하는 조선의 풀 한포기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가.

오늘 이 땅의 천만군민이 사랑하며 끝없이 울려가는 위대한 전승의 노래, 조국수호의 노래가 그에 답을 주고있다.

주체102(2013)년 7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앞두고 승리자의 값높은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선언하는 전승찬가들이 힘차게 울려퍼졌다.

새로 창작된 가요 《7.27행진곡》,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전승의 명절》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이 수여되였다.

승리자의 자부심을 한껏 돋구어주며 발걸음도 쩡쩡 승리의 거리를 활개치고 군악소리 쿵쿵 전승의 희열이 메아리친다. 미국의 항복서 밟으며 지축을 뒤흔들고 침략자의 기발 불태우며 축포를 터치는 천만의 자긍심이 구절마다, 선률마다에서 들먹인다.

저 하늘에 빛나는 전승의 축포는 승리위해 피를 뿌린 용사들에게 드리는 꽃다발이고 미제를 이긴 그 승리의 정신은 세월을 넘어 후손들의 넋을 키우며 승리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원천이런가.

이런 통쾌하고 씩씩하며 전투적이고 랑만적인 승전가요가 울려퍼지는 속에 전승절을 맞이하고 세세년년 경축하는 이 나라 군민의 기쁨은 끝이 없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꽃바다, 춤바다를 펼치고 병사들도 인민들도 승리의 노래를 합창하는 조선의 7.27! 승리의 7.27!

1950년대의 3년간에 걸치는 조국해방전쟁은 미국을 우두머

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류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혁명전쟁이였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와 세계제패를 실현할 야망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끌어들이였으며 원자탄공갈을 비롯한 가장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 인민군대가 세계《최강》을 떠들던 미제침략자들과 력량대비에서 하늘땅같은 차이를 두고 벌린 인류력사상 가장 가렬한 전쟁이였다.

한차례의 세계대전과 맞먹는 이 전쟁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무력침범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을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의 승리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안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함으로써 조선사람의 본때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해방된 조국에서 땅과 공장의 주인이 되여 꿈같은 행복을 누려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어버이수령님이시였으며 그이께서 계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높이

발휘한 정신력의 근본핵이였다.

영용한 인민군전사들은 1211고지와 351고지, 락동강과 월미도를 비롯한 격전장마다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웨치며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돌격로를 열고 한몸이 어뢰가 되고 폭탄이 되여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후방의 인민들은 전쟁의 가혹한 시련속에서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전시생산과 전선원호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전쟁은 이 땅을 불태우고 파괴하였지만 미국의 항복서를 받아낸 조선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우리 나라는 영웅조선으로 새롭게 태여났다.

《오늘날 조선사람이라는 말은 민족정신의 위대성과 불굴성의 상징으로 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의 위업에 대한 고상하고 헌신적인 복무의 상징으로 되였다.》

조선전쟁을 목격한 어느 한 나라의 수반이 진정을 토로하였듯이 존엄도 승리도 조선인민의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사람은 남에게 머리숙이는 연약한 민족도 아니고 짓눌리고 정복당하기만 하는 민족도 아니며 어떤 강적과도 맞붙어 싸워이기는 민족, 강대국도 내려다보는 배짱강한 민족임을 온 세상에 새롭게 보여주었다.

전승의 7.27은 항일승리의 전통을 반제반미승리의 전통으로 이어놓았다.

전승의 가치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전쟁에는 승패가 있고 그에 따라 영예와 수치가 차례지기

마련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패배자는 다름아닌 미국인것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전승환희는 더 큰 자부와 긍지로 충만되여있다.

건국이래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는 미국이 령토와 인구,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대비조차 되지 않는 청소한 조선에 패함으로 하여 세계의 면전에서 당한 수치는 인류전쟁사상 가장 비참한것으로 되였으며 미국의 운명을 뒤흔든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조선의 7.27전승과 함께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깨여졌고 때리면 두들겨맞는 나라, 싸우면 지는 군대, 무릎꿇고 항복서를 섬겨바치는 미국의 내리막길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미제의 제3차 세계대전도발책동을 파탄시키고 인류를 핵참화로부터 구원하였으며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7.27의 전승은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든든한 밑뿌리이다.

그 밑뿌리가 있어 조선의 위대한 승리의 7.27은 장장 수십성상 련전련승의 7.27로 이어졌다.

재더미우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며 일떠선 천리마의 기적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장엄한 영웅서사시도, 그 어떤 역풍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결사수호한 1990년대의 기적도 미제를 타승한 전승의 7.27정신이 낳은것이다.

류례없는 고난속에서도 조선이 불사조마냥 솟구쳐오를수 있은것은 바로 미제의 항복서를 밟고 전승의 광장을 활개쳐가던 그 보무당당한 기개, 미제를 타승한 군대와 인민이라는 자존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7.27의 필승불패의 정신이 세대를 이어 든든히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 첫 군악을 울린 영웅조선의 전승대행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년대와 년대를 굽이쳐왔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노도쳐가는 오늘에 이르렀다.

얼마나 값높은 승리, 얼마나 영예로운 승리이던가.

안아볼수록 가슴뜨거우며 바라볼수록 고귀하고 성스럽다.

전승의 날을 60번째로 맞이하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영웅조선의 전승대행진을 전승찬가들은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발걸음도 높이 활개치며 가자 7.27이다
로병들과 함께 군악소리 맞춰 행진해가자
미국놈이 바친 항복서를 밟고 지나온 광장
동무여 힘차게 힘차게 힘차게 지축을 울리며 나가자
(후렴)
  승리 승리 승리의 7.27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조선의 승리를

수령님의 명령 위훈으로 빛낸 훈장을 보라
침략자의 기발 불태우며 터친 축포를 보라
승리위해 싸운 용사들은 우리 부모들이다
동무여 경례를 경례를 경례를 세대를 이어서 드리자
(후렴)

전승광장 지나 노도치는 행진 멈추지 말자
조국통일광장 열병식을 향해 곧바로 가자
당중앙을 따라 발걸음을 맞춰 보무당당히
동무여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후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자랑과 희열이 넘쳐나는 노래 《7.27 행진곡》.

새길수록 가슴뜨겁고 들을수록 힘이 솟는다. 얼마나 기백 넘친 노래의 구절구절인가. 얼마나 가슴벅찬 승리의 력사가 함축되여있는 시대의 메아리인가.

미제를 타승한 영웅의 땅에서만 울릴수 있는 개가이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승전가이다.

미국놈이 바친 항복서를 밟고 지나온 광장!

과연 지구상의 어느 나라 인민이 이렇게 자부심에 넘쳐 미국을 전률케 하는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수 있단 말인가.

오직 영웅적조선인민뿐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린 전승세대들과 그뒤를 이은 후손들만이 이렇게 승리자의 희열에 넘쳐 자기의 긍지높은 력사를 노래할수 있는 것이다.

다른 전승찬가들도 전승의 환희와 기쁨, 오늘의 시대정신을 다양한 생활속에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노래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는 승리위해 뿌렸던 용사들의 더운 피를 땅에 묻어둘수 없어 저 하늘에 빛내는가라는 노래의 구절속에 승리의 7.27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하며 전화의 용사들이 념원한 것은 영원한 조선의 승리라는 력사의 부름으로 천만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준다.

노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는 조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은 세월과 함께 더욱 빛나며 그들의 삶은 현 세대 인간들의 삶의 거울로 된다는것을 구가하고있다.

노래 《위대한 전승의 명절》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으며 위대한 당이 있고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있기에 전승절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길이 빛난다는 시대의 메아리를 터치고있다.

전승절전야에 울리기 시작한 이 전승찬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경축광장의 높은 주석단에 모시고 진행한 전승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전국각지에서 진행된 행사들과 예술공연, 음악회들에서 사상정서적감화력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후에도 전승절을 계기로 《근위부대자랑가》, 《전쟁의 3년간》을 비롯하여 위대한 전승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구가하고 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계승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시대정신과 시대감정을 반영한 전승찬가들이 계속 창

작되여 울려퍼졌다.

전승을 민족의 귀중한 유산으로 간직하고있는 나라들마다 승리에 대한 노래들이 있다. 세월이 흘렀어도 전승의 세대들이 물려준 노래들을 잊지 않고 부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세대들이 이룩한 전통과 력사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승리의 노래들을 끊임없이 지어부르는 그런 인민은 오늘의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인민은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침략자앞에서 존엄과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인민을 《도발자》로 매도하는 침략자들에게 《선의》를 바라며 양보할 때 어떤 운명이 차례지는지 조선인민은 너무도 잘 알고있다.

승리가 목숨보다 귀중하고 평화를 진정 사랑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승리의 노래를 진격의 표대와도 같이 내세운다. 조국의 운명과 존엄이 담보되는 승리가 어떻게 오는것인지 피흘려 목숨바쳐 처절하게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승찬가를 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부르며 조국결사수호의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고있다.

□ 가요 《승리는 대를 이어》에 담긴 필승의 기상

이 땅에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리던 승리의 그날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허나 이 땅을 호시탐탐 넘겨다보는 침략자들의 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직승기침입사건과 같이 미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과 전쟁도발책동이 끊기지 않았다. 백악관의 주인들은 수시로 바뀌였지만 미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어느 한시도 버린적이 없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과정에 형성되고 계승되여온 두 전통이 있다. 력사적으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 미국의 수치스러운 패배전통과 허장성세하며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승리전통이다.

《푸에블로》호사건때에 미합중국 정부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에 사죄문을 바친 미국대통령 죤슨은 《미국이 생겨 력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그것 하나》라고 우는소리를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 그 다음해인 1969년에 있은 군용직승기사건때에도 비행사들을 보내줄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사죄문을 냈고 1994년 12월 미군정찰직승기사건때에는 공화국령공 불법침입을 인정하고 조종사들을 돌려보내줄것을 제기하여 량해문에 수표를 하였다.

군사적패배때만이 아니다. 1990년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 조미핵대결을 기본으로 하는 다각적인 모든 대결의 과정마다에 미국이 항복서나 다름없는 각이한 류형의 패배장을 바쳤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 점유물이 되였다.

《전 력사적기간을 통해 사죄할줄 모른다.》고 호통치던 미국은 조미대결전의 전 력사적과정에 단 한번도 승자가 될수 없었다.

조미관계에서의 상반되는 이 두 전통은 언제나 법칙처럼 흘러왔다.

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계승되고 있다.

백두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이 시련의 험산준령 넘고넘으면서 승리의 리정표들을 수없이 새겨왔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아래 공화국이 불패의 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개가를 올리고있는 격동의 오늘에 그 의미는 보다 명백하게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고 계승해오신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100% 고수하고 100% 이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려놓은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온 나라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던 주체101(2012)년 3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과 치렬한 대치상태를 이루고있는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조국의 제1선관문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판문점초병들

이 보고싶어 왔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판문각로대에 나서시여 적정을 료해하시고 판문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전담판회의장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빛나는 전승을 안아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자의 모습과 전쟁을 일으킨지 1년만에 흰기를 들고 정전담판을 제기한 미국의 패배상이 생동하게 어려오는 회의장.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그려보시는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근엄한 시선으로 회의장을 둘러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이 건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의의깊은 건물이라고, 력사의 증견자인 이런 건물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며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실

필승의 힘과 기상이 얼마나 세차게 빛발치고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수호의 길에 남기신 자욱마다에는 그이의 이러한 비범한 뜻과 기상이 비껴있다.

— 우리의 신성한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

—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라.

—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

—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해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라.

—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

원쑤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과 발악적인 위협공세도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의 망동으로 여기시며 초강경의 대응으로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시는 백두령장의 드센 담력과 배짱이 어린 뢰성에 이어 끊임없이 울리는 통쾌한 승전고속에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온 세상에 높이 떨쳐지고 있다.

력사가 일찌기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전설적인 천출명장의 출현과 과감무쌍한 행보에 미국이 어쩔줄 몰라하고있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중분해되는것을 보는것 같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전례없는 조치, 상상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측했던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공격적이며 능숙한 전략을 지니시였다.》

《**김정은**정권이 들어선 후 기존의 행동원칙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을 대해야 한다.》

《북의 핵과 미싸일, 싸이버전능력이 조선반도는 물론 미국본토에도 실질적위협이 되고있다. 이것은 미군사기지들과 미국령토를 취약하게 만든다.》

《시간은 미국이나 남조선편이 아니다.》

…

미국의 한 국제문제연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은 정전협정이후 미국과 대상하여 모두 승리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북에 또다시 그런 전적을 쌓을수 있는 담력과 배짱에서 제일이고 령군술이 로련한 실천가가 등장하였다. 그러니 북이 말하는 련전련승의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 분명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백전백승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취와 숨결이 력력히 슴배여있는 선군령도의 자욱자욱을 심장으로 새겨안으며 천만군민은 총포성이 없는 오늘의 첨예한 조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는 그이의 애국의 의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으며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것이라는 신심을 가다듬고 있다.

드높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더 높은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천만군민의 앞길에 노래 《승리는 대를 이어》가 울려퍼지고있다.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원쑤와 싸워이긴 력사의 길에 물어보라
미제의 성조기를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우리가 대를 이어 어떻게 싸웠는가를
(후렴)
자랑차다 승리만을 떨쳐가는 빛나는 전통
백승의 오직 한길 조선의 길이여라

조국의 산과 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피흘려 싸워이긴 이 나라 장한 아들딸들
불멸의 그 위훈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떨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후렴)

성스런 국기우엔 태양의 빛발 눈부시다
그 해빛 백승에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정의의 보검으로 미제의 멸망을 선언할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
(후렴)

노래는 공화국의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사상을 시적형상속에 잘 담고있다. 노래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렬들이 이룩한 승리의 전통과 그 전통을 이어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에서 승리자가 될 천만군민의 확고한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노래의 1절에서는 이날까지 오직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천만군민의 사상감정을 승리자의 긍지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의 첫 구절부터가 노래의 깊은 의미를 부각시켜준다.

우리 인민에게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인민도 지닐수 없는 위대한 승리의 전통이 있다.

그것은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며 침략전쟁에 미쳐날뛰던 일제를 타승하여 이룩한 조국해방과 오만하게 날뛰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전승의 력사이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봉쇄와 고립속에서도 선군의 총대로 걸음걸음 쾌승을 안아오는 오늘의 현실이 대를 이어 영원할 조선의 승리의 전통으로 된다.

노래의 2절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에서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불멸의 위훈에 대하여서와 그들의 숭고한 넋을 이은 계승자들의 확고한 의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전사들뿐아니라 온 나라 남녀로소가 전쟁의 승리를 굳게 믿고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결사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피흘려 싸워이긴 이 나라 장한 아들딸들의 위훈을 조국의 산과 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승리에 대한 추억은 아름답다. 그러나 내 나라에는 승리가 추억으로가 아니라 산 력사로, 시대의 숨결로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승리의 대전당으로 일떠서고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유명무명의 용사들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비롯한 영생의 언덕에서 후대들을 위훈에로 부르고있는것이다.

오늘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준공된 때로부터 3년동안에만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는 124만여명,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로는 84만 6 000여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왔다. 이것은 조국의 한치의 땅도 피로써 사수하며 불사신처럼 싸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조국애와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영웅조선의 전승의 력사를 이어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표시로 된다. 그것은 또한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피와 생명을 바친 참전렬사들에게 드리는 전인민적인 경의로 된다.

이처럼 노래는 승리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승리의 전통이 세대를 이어주는 명맥으로 되고있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을 서사시적화폭으로 그려보이고있다.

노래의 3절에서는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가질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밝히면서 미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가 굽이치고있다.

《성스런 국기우엔 태양의 빛발 눈부시다》, 《그 해빛 백승에로 우리를 인도하리라》라는 뜻깊은 구절을 외워보느라면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에 대한 격정이 북받쳐오른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수호의 길에서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것은 그 진두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싸워왔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일제와 미제를 타승할수 있었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선군령장으로 모시였기에 세대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련승을 안아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승리의 전통, 백승의 력사는 끝없이 계속된다는것은 오늘의 현실이 증명해주고있는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희세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고 무궁무진한 선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는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에서 승리자가 될것이다.

가요의 이러한 사상감정은 매 절의 마감부분에서 반복되고 있는 후렴구를 통해 고조됨으로써 작품의 종자를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특히 《백승의 오직 한길 조선의 길이여라》라는 시형상을 통해 승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상을 긍지높이 보여주고있다.

태양의 찬란한 빛발아래 어제도 승리하였고 오늘도 승리하였으며 래일도 승리할것이라는 조선의 기상과 신념이 구절구절에 넘쳐흐르는 승리의 진군가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정의의 보검으로 미제의 멸망을 선언할 최후의 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신 승리의 길을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내 나라의 천리

방선은 물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 노래 《승리는 대를 이어》가 승리의 나팔소리마냥 울려퍼지고있다.

이 노래를 힘있게 부르고 또 부르며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 새 세대 청춘들의 자랑스러운 군가-《전선행렬차》

오늘 이 땅의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삶의 좌우명으로 간직한것이 있다. 그것은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며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이 가장 값높은 애국적인 삶이라는것이다.

청춘들이 심장의 더운 피 끓이며 너도나도 달려가는 곳도 조국보위초소들이다.

2015년 여름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내외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속에 우리측 지역에 수십발의 포탄까지 란사하며 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에로 몰아갔다.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시고 온 나라를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광기어린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때에 전국각지의 청년들은 조국결사수호의 신념과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조국보위성전에 용약 떨쳐나섰다.

온 나라의 거리와 일터, 학교들에서 원쑤격멸의 함성이 높이 울려나오고 청년학생들과 근로청년들, 제대군인들이 조선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원쑤들이 진짜 불맛, 전쟁맛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하자!》, 《판가리결사전, 최후결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피는 피로써, 미친개는 몽둥이로!》, 이렇게 웨치며 청년들은 전선탄원서에 자기의 이름들을 적어넣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후 하루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100여만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 복대할것을 열렬히 탄원하였다.

각지의 열혈청춘들이 침략의 무리들과의 무자비한 복수성전에 앞을 다투어나선것은 원쑤들이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귀중한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사수하려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의 발현이다.

이러한 조국수호정신은 2016년 2월 23일 극도로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을 선언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된 후 단 이틀동안에 150여만명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해나선데서도 다시금 높이 발현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렬한 애국충정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조국보위성전에 총궐기해나선 탄원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에서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려보려는 적들의 극악무도한 발광에 활화산같은 분노를 폭발시키며 무자비한 천벌을 안기는 성전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강용한 기상은 당중앙만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위대한 조선인민, 정의를 사수함이라면 피어린 전쟁도 죽음도 불사하며 원쑤들을 요정내고야마는 혁명적인민의 높은 정신세계의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사문에서 우리 인민처럼 투철한 반제혁명정신을 지니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련전쾌승을 떨쳐온 인민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민이 있는 한 선군조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성전에 용약 떨쳐나선 각계각층 인민들을 그토록 값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은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주고 참군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닥쳐오고 정세가 격화될 때만이 펼쳐지는 광경이 아니다.

세월은 흘러도 이 땅에는 해마다 련면히 이어지며 변함없이 펼쳐지는 광경이 있다. 그것은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초모생들을 바래우는 환송모습이다.

군복입은 청춘들의 가슴에 안겨지는 꽃송이와 꽃보라, 자식들을 바래주는 부모들과 마을사람들, 정다운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당부를 새기며 손을 흔드는 초모생들, 천리방선초소로 기운차게 달리는 렬차…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중학교졸업생들의 조국보위열의는 그

어느 세대들보다도,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고 열렬하다. 누구나 중학교를 졸업하면 조국보위성전에서 영웅이 될것을 희망하면서 조선인민군 입대를 열렬히 탄원하고있다.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간 한 중학교졸업생의 일기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나의 할아버지는 전쟁로병이다. 세대가 바뀌고 포화의 그날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 남쪽땅에는 미국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다. 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이 미제와 맞서싸웠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미국놈들의 후예들을 쳐부실것이다.》

반미총대, 조국수호의 총대는 한가정안에서도 이렇듯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굳건한 이런 투철한 반제계급의식,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한 새 세대 청년들이 초소로 떠나간다.

조국보위를 더없이 영예로운 의무로, 가장 값높은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참군열의가 고조되는 이 땅의 그 어디서나 노래 《전선행렬차》가 높이 울려나온다.

기적소리 울리며 렬차는 떠나네 렬차는 떠나가네
작별의 정 뜨거운 역전엔 어머니 옷고름 날리네
바래주는 그 모습 갈수록 작게 보여도
더욱 크게 새겨지네 고향의 얼굴로
라 라 라라라 고향을 안고 달리는
라 라 라라라 전선행렬차여

기적소리 울리며 렬차는 달리네 렬차는 달려가네
차창밖엔 드넓은 기름진 전야와 새 집들 보이네
마주 오는 그 모양 순간에 지나가지만
이 가슴엔 못 떠나네 소중한 모든것
라 라 라라라 조국을 안고 달리는
라 라 라라라 전선행렬차여

기적소리 울리며 렬차는 달리네 렬차는 달려가네
이 나라의 자식들 어머니조국 위해 용감히 나가네
람홍색국기아래 태여난 젊은이들이
그 기발을 지키여 한목숨바치리
라 라 라라라 조국을 지켜 달리는
라 라 라라라 전선행렬차여

《전선행렬차의 기적소리》 하면 잊지 못할 조국해방전쟁과 더불어 조국땅 방방곡곡을 누비며 줄기차게 달리던 전선행렬차가 눈앞에 안겨온다.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선행렬차를 타고 고향사람들의 환송속에 원쑤를 무찌르고 조국을 지키러 전선으로 떠났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전선행렬차의 기적소리와 더불어 전화의 나날에 발휘되였던 군대와 인민의 조국수호정신은 넌대와 넌대, 세기와 세기를 넘으며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는것이다.

가요 《전선행렬차》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목숨바쳐 조국을 지켜갈 결사의 의지와 신념을 안고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가고있는 청년들의 심정을 랑만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기적소리 울리며 떠나는 렬차는 람홍색국기아래 태여난 젊은이들이 그 기발을 지켜 한목숨바칠 신념과 각오를 싣고 전투적랑만의 궤도를 달리는 전선행렬차이다.

이 가요의 사상정서적주장이며 핵이라고 말할수 있는 3절의 가사는 우리 조국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새 세대들이 나라의 주력군으로 자라난 현실을 서정화한 랑만적인 시적화폭이다.

3절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선행렬차를 타고 떠나가는 이 나라의 자식들이 어머니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 시대 청춘들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사랑이 강렬하며 그 심장이 위대한 사랑으로 높이 고동치는 속에서 발견한 신념과 투지, 리상과 랑만의 숭고한 경지이다. 람홍색국기를 지켜 한목숨바쳐갈 젊은이들의 결사의 의지는 시대의 높이에 올라선 영웅적성격에 대한 정서적파악, 어떤 고난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신심과 락관, 혁명적랑만으로 투철한 우리 젊은이들의 기개와 정열을 한껏 뿜어올린 서정의 정화물이다.

가사의 이러한 사상예술적주장이 감정정서적으로 안겨오는 것은 1절과 2절의 가사형상에서 이를 담보해주는 정서적화폭이 뚜렷하게 펼쳐져있기때문이다.

가사에 펼쳐진 화폭은 전선으로 떠나는 자식을 바래우는 감동적인 역전의 정경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체험하고 가슴뿌듯이 느끼고있는 현실이다.

가사에서는 떠나고 바래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참다

운 애국주의를 정서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한다. 작별의 정 뜨거운 역전엔 어머니 옷고름 날린다. 그 모습 갈수록 작게 보여도 병사의 가슴속엔 고향의 얼굴들이 더 크게만 새겨진다. 바래주는 어머니의 작아지는 모습을 더욱 크게 새겨지는 고향의 얼굴로 가슴에 안는 그 감정이 얼마나 뜨겁고 정겨운가.

가사는 2절에서 고향을 안고 달리는 전선행렬차를 더욱 깊은 뜻으로 승화시켜 《차창밖엔 드넓은 기름진 전야와 새 집들 보이네》, 《마주 오는 그 모양 순간에 지나가지만》, 《이 가슴엔 못 떠나네 소중한 모든것》이라고 정서적으로 확대하여 조국을 안고 달리는 전선행렬차로 노래하였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 바래주는 어머니의 날리는 옷고름과 기름진 전야와 새 집들의 매력적인 세부들이 위대한 조국의 모습으로 병사의 가슴속에 새겨지는것이거늘 이러한 마음을 안고 떠나는 젊은이들이 어찌 조국을 지켜 한목숨바치지 않을수 있겠는가.

가사에서는 숭고한 애국의 지향을 생활적으로 안받침하면서 젊은이들의 인생관이 정서깊고 줄기차게 개방되고있다. 여기에는 자기들을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려는 애국의 넋이 뜨겁고 진실하게 고동치고있다.

가사의 운률은 또 어떠한가. 그것은 숭고한 애국의 정서, 조국위해 한목숨바치는 헌신의 열정에 나래를 달아주며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기적소리 울리며 달리는 전선행렬차에 대한 시행들의 반복, 그것은 애국에 대한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경탄할 정도로 비상한 효과를 가지고

가사의 정서와 열정을 앙양시키며 철학적사색을 심화시킨다.

가사에 씌여진 시어들은 큰뜻과 깊은 폭을 가진 시어가 아니라 보다 친근하고 정답게, 정서적색갈과 감정의 농도가 섬세하고 짙은 소박한 시어들로 특징적이다. 작별의 정, 어머니 옷고름, 기름진 전야, 새 집들, 마주 오는 그 모양, 이 나라의 자식들, 태여난 젊은이들 등이 그것을 말하여준다.

가사의 형상적성과는 곡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시종 다정한 정서와 따뜻한 감정표현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마치 렬차가 달리듯이 경쾌한 음조들은 노래의 사상정서적내용을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또한 노래의 전반적흐름은 첫 악구의 자유로운 변화발전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열광적으로 노래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가사의 사상과 음악적형상의 훌륭한 통일을 보여주는 가요는 소박한 음악언어로 하여 누구나 부르기 쉽게 되여있다. 선률은 달리는 전선행렬차라는 표상에 맞게 밝고 명쾌하며 약동적이고 생기발랄하다.

이처럼 가요 《전선행렬차》는 조국보위를 더없이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조국수호의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반영하고있다.

이렇듯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굳건해지는 조국수호정신이 있어 내 조국은 언제나 굳건한것이며 조국방선마다에서 승리의 함성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에 비낀 천만의 조국수호의지

내 조국땅에 울려가는 조국찬가들가운데는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부르며 조국수호의 숭고한 사명감을 새겨가는 노래가 있다.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이다.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
내 자란 조국이 하도 소중해
가슴에 총안고 전호에 섰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내 집에 띄웠던 람홍색기발
전호가 노을에 어리여오네
행복의 그 요람 잃지 않으려
이 가슴 전호에 대고 산다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해와 별 빛나는 조국이 없인
고향도 가정도 나도 없으리
한없이 귀중한 그대를 지켜

내 한생 총잡고 초소에 살리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세상에 나온지 어느덧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노래는 더욱 더 새로운 의미를 안고 모두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진다.

이 노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즐겨 부르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과 함께 계실 때면 그들이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부르며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늘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신다.

언제인가 어느 한 녀성구분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대의 싸움준비와 군인생활정형을 료해하시고나서 중대군인들이 준비한 예술소품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친아버지앞에서 자기 재능을 뽐내는 자식들마냥 저저마다 노래들을 부르던 녀성군인들은 너무도 소탈하고 인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어려움도 잊고 그이의 노래를 듣고싶다고 청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녀성군인들의 요청이니 노래를 부르겠다고, 다같이 부르자고 하시면서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의 선창을 떼시였다.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조국이 더없이 소중하시여, 그 품에서 사는 인민이 귀중하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을 지켜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부르시는 노래, 노래는 녀성군인들만이 아닌 조국의 천리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조국보위의 숭고한 사명감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듯 높이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창을 떼시고 인민군장병들이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부른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목청껏 부르며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서고있다.

주체104(2015)년 8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발표된 그날 아침의 풍경을 다시한번 되새겨보자.

평화로운 아침이였다.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선군절과 청년절을 앞두고 온 나라의 군대와 인민, 청년들이 명절분위기로 설레이던 날들중의 하루였다.

바로 그날 전세계를 한껏 긴장시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하루전인 8월 20일 오후 전선중서부지역에서 적들이 아군민경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와 함께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히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는 내용이였다.

최후의 승리에로 향한 조선의 전진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는 10월의 경축광장에로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에 차단봉을 드리우려는 적들의 악착하고 음흉한 침략전쟁책동은 온 나라를 치솟는 증오와 복수로 달아오르게 하였다.

어제는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오늘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우리측 지역에 숱한 포탄을 쏘아대며 조선반도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에로 몰아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

천리방선의 인민군장병들은 멸적의 서리발총창을 억세게 틀어쥐고 전시상태에 들어갔으며 황해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선지대의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갈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고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조국수호의 총대를 추켜든 전국의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결전의 시각을 한초한초 기다리고 있었다.

온 나라에 조국수호의 총창이 번뜩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이라면 불길속 만리라도 뚫고나가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징벌타격으로 말끔히 소탕해버릴 결사의 정신이 차넘쳤다.

원쑤격멸의 의지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1950년대의 전시가요들과 함께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이 힘차게 울려퍼졌다.

각지에서 앞을 다투어 진행되는 탄원모임들에서도, 서슬푸른 총창이 원쑤들을 겨눈 최전연초소들에서도, 기적과 혁신이 나래치는 공장과 전야마다에서도 이 노래가 8월의 주제가마냥 메아리쳤다.

노래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극악무도한 원쑤의 무리들을 죽탕쳐버릴 혁명적열의를 백배해주고 승리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엄혹한 날에나 평온한 날에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며 조국을 제일로 사랑하고 목숨바쳐 지키려는 애국의 마음을 열렬히 토로하고 이 땅에 우리의 행복을 노리는 원쑤가 있는 한 총대를 더욱 굳건히 틀어쥐려는 투철한 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하다면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이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워지는 시대의 진군가로, 심장의 노래로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이 노래에 어머니조국의 크나큰 사랑,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같은 은덕에 보답하려는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진실한 사상정신세계가 생활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반영되여 그들에게 참다운 애국적열정을 안겨주기때문이다.

가요에서는 어머니조국이 펼쳐준 푸른 잔디를 밟으며 첫걸음마를 떼고 애국가의 선률을 자장가로 들으며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키워왔기에 청춘들은 조국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더없이 귀중하고 소중한것으로 여기고 조국을 지키고 빛내여가는것을 최상의 영예와 의무로 간주하고 조국수호전에 서있다는것을 생활적인 시어에 담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어머니조국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천만자식모두를 차별없이 한품에 안아 꿈을 키워주고 금잔디우에 세워 첫걸음마를 떼여주었으며 애국의 넋도 심어주었다.

손에 총을 잡은 인민군군인들뿐아니라 공장과 농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모두가 어머니조국이 없었더라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높이 부르며 성장할수 없었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으며 이로 하여 조국을 지키고 빛내여가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가요에서는 전호가노을에 어리여오는 람홍색기발은 어린시절 자신들의 정든 고향집에 자랑스럽게 휘날리던 공화국기이며 이 국기는 우리모두의 행복과 번영을 담보해주는 내 조국의 존엄과 행복의 상징이라는것을 노래하면서 이 행복의 요람을 잃지 않으려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 심장을 바치고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구가하고있다.

내 집의 지붕우에서 끝없이 나붓기던 공화국기발, 이 기발에는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고 내 조국의 성스러운 승리의 력사가 응축되여있으며 우리모두의 꿈과 리상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행복의 요람이 담겨져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에 얼마나 쓰라린 고통과 민족적멸시를 당해왔던가. 하기에 지난 세기 50년대에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미제를 괴수로 하는 침략자들이 무리지어 달려들었을 때에도 이 나라의 천만 아들딸들은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며 당과 수령의 부름에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침으로써 조국을 수호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였다.

그후 세기를 이어 가증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기발에 새겨진 조국해방전쟁시기 용사들의 위훈과 성스러운 위업을 이어받아 승리의 력사적전통을 굳건히 지켜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는 새 세대 수호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은 창공높이

더 힘차게 휘날릴것이며 내 나라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질것이다.

가요에서는 조국과 천만군민의 운명은 하나의 생명유기체로 결합되여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이면서 이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은 언제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 선군의 길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것을 최상의 행복과 긍지로 여기고있다는것을 진실하게 구가하고있다.

가사가 담고있는 사상주제적내용은 밝고 특색있는 선률에 의하여 더욱 인상깊게 안겨오고있다.

조국이 소중하고 키워준 품이 귀중하기에 이 땅의 남녀로소 누구나 총잡은 병사로 살고있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은 누구나 첫 포성이 울리면, 최후성전의 신호탄이 오르면 조국수호전에서,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목숨 아낌없이 바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자신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다 바치며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자신들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나갈것이다.

그 성스러운 길우에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천만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은 영원한 승리의 노래로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5.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웨침

□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장구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을 동반한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할 때까지 온갖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난관도 뚫고나가야 하는 험난한 길은 강의한 신념이 없으면 끝까지 걸을수 없다.

신념은 미래를 본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결사의 의지와 강인담대한 배짱이 우러나오고 견인불발의 투쟁정신과 무한한 애국적헌신성도 분출된다. 언제나 드팀이 없는 굳건한 신념을 간직하고있어야만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여도 신심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헤쳐나갈수 있다.

현대조선의 장구한 력사는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자기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진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주체위업, 자주위업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따라 시작되고 전진하였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끗끗이 이어졌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주체혁명위업의 년대기

마다에서, 준엄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위대성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새겨안았으며 변심을 모르는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고 우리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끈질긴 정치군사적압력과 악랄한 경제봉쇄,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비롯하여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모든 반공화국책동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회주의신념을 허물고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며 이 땅, 이 하늘아래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더욱 굳세여지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그 어데 가나 울려나오는 노래들에서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친대도 억년 드놀지 않을 신념과 의지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이 땅의 남녀로소모두의 심장속에서 불리워지는 신념의 노래들에는 수령의 사랑과 정, 수령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신뢰, 수령의 사상과 숨결로 가득차있다.

주체102(2013)년 4월 14일부 《로동신문》 1면에는 한편의 노래가 실렸다.

가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이 나라 삼천리금수강산 아침은
만경봉 정일봉 해돋이로 밝아라

(후렴)
만대에 길이 빛나라 우리의 태양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승리와 영광의 그 해빛을 받으며
위대한 조선의 후손들은 자란다
(후렴)

2013년 태양절을 계기로 울려퍼진 가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는 세상에 태여나자마자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며 불리워졌다.

《이 나라 삼천리》라고 장중하게 시작되는 첫 울림부터 너무도 벅차고 숭엄하여 가슴이 대번에 확 열리는것만 같고 거대한 힘과 무게가 안겨온다. 분화구를 터친 활화산마냥 솟구치고 또 솟구치는 장쾌한 울림의 메아리는 마치도 백두산정점에 거연히 올라서서 삼천리강토를, 온 세상을 한눈에 굽어보는듯 한 형언할수 없는 격정과 흥분에 휩싸이게 한다.

노래를 들으면 마치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모습이 금시 눈앞에 비껴든다. 만경봉과 정일봉의 해돋이로 백두산에서부터 한나산까지 삼천리강토가 눈부신 빛발로 환해지고 우리 조선이 세계의 령마루에서 지구를 굽어보는 큰 나라로 솟구쳐오른 환희에 휩싸이군 한다.

가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

의 축복속에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광을 훌륭히 노래하고있다.

가요는 가사도 길지 않고 선률도 간결하지만 그 사상정서적, 철학적깊이는 장편서사시나 교향곡의 내용에 비할수 없다.

가사의 구절은 비록 짧지만 내 나라 국호의 뜻깊은 력사적의미로부터 민족의 천만년미래에 이르기까지 비상히 폭넓고 거창한 세계가 담겨져있다. 내 나라의 아침은 만경봉과 정일봉 해돋이로 밝는다는 1절과 그 해빛을 받으며 조선의 후손들이 자란다는 2절의 가사내용에는 얼마나 심오한 철학적의미가 깔려있는것인가.

이 두개 절의 가사로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과 조선의 오늘과 래일에 대한 심오한 주제를 제기하고 그에 명백한 대답을 주고있다.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함께 조선의 오늘과 래일은 언제나 해솟는 아침처럼 빛나고 창창할것이라는 노래의 사상은 우리 인민이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확신한 생활의 진리, 력사의 진리이다.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조국의 상징이시고 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환하신 태양의 영상을 우러러뵈옵기만 해도 희망과 신심이 샘솟는 인민들이다. 온 우주를 꽉 채운것만 같은 두분의 절세위인들의 거룩하신 모습을 심장으로 느끼면서 누구나 《나는 조선사람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손들이며 전사, 제자들이다!》라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고 지구도 들어올릴 거창한 힘이 용솟음친다.

가요는 이러한 사상감정을 인민들이 늘 외우는 평범하고 통

속적인 언어에 담아 내 나라의 아침이 어떻게 시작되며 선군조선의 후손들의 자양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가지 형상적문제로 명쾌하게 시화, 음악화하였다.

형식은 간결하지만 장중하게 울리기도 하고 절절하게 흐르기도 하는가 하면 앙양된 찬양의 감정으로 치달아오르기도 하는 선률형상은 그 폭과 심도가 넓고 깊다. 이 노래에는 숭엄하고 친근한 칭송의 감정도 있고 뜨거운 그리움의 감정도 있으며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솟구치는 힘과 열정의 정서도 있다. 인간이 느낄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정서들이 하나로 융합되여 흘러나오는 특색있는 음악형상을 통하여 가요는 독특한 정서적흥분을 안겨주고있다.

약박자의 여유있는 리듬진행과 송가선률의 특징적인 음조가 결합되여 시작되는 첫 두 소절은 숭엄하고 장쾌한 조선의 해돋이광경을 선률로 묘사한 음악적화폭과도 같다. 이어 세번째, 네번째 소절들에서는 일정한 안착감을 가지고 절절하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완결된 음악적흐름을 형성하고있다. 이러한 음악정서적흐름을 다시한번 반복하면서 발전하는 노래의 전렴부분의 선률형상과 보다 박력있고 격조높은 양상으로 상승하는 후렴부분의 선률로 이루어진 노래의 음악형상은 특이한 정서적색갈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있다.

이렇듯 가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의 모습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을 이끄시고 래일을 축복해주고계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에 예술형상의 뿌리를 두고있다.

인류음악사에 위인에 대한 송가들은 있었어도 위인의 영생

을 노래한 송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의 송가로 두분의 절세위인의 영생을 구가한 송가는 더더구나 없었다.

가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가 만민의 심금을 흔들며 불리워지고있는것은 절세의 위인들의 업적에 대한 력사적총화나 그리움의 감정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노래에는 이 땅에 수놓아진 수령영생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가 함축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을 함께 모시고 길이길이 살려는것은 이 나라 인민모두의 간절한 소망이였고 드팀없는 의지였다.

그 념원을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함께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없는 수령영생의 대화원으로 꾸렸으며 누구나 그 어느때나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들과 마음속 이야기도 나누고있다.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가정과 일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태양의 축복을 받으며 살며 일해가고있다.

수령의 영생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의 영원불멸성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피줄처럼 맺어진 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영생위업의 숭고한 서사시를 펼쳐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는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구호로 되고있고 사회주의강국건설도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력사적시대와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밖에 없다는것이 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신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의 대성인들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으로는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눈오는 겨울에도 비오는 여름에도 시간과 계절에 가림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끝없이 굽이치는 이 그리움의 대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 땅우에 기어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만수대언덕을 찾는 외국의 벗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경모의 정에 대하여 격조높이 이야기하고있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은 반영문에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의 동상을 찾을 때마다 나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군 합니다. 이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주석님과 그이를 계승하신 장군님에 대한 조선인민의 흠모와 존경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곳입

니다.》라고 썼다.

이곳을 찾은 외국의 한 인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성과 진보, 행복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들께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바이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심장속에 모시고 사는 조선인민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수령의 영생은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수령의 영생은 수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비범한 정치실력을 지닌 걸출한 령도자에 의하여 실현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총적목표로 내세우시고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도덕의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마다에도 어려있고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빛을 뿌리고있는 금수산태양궁전에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정신력의 근본핵으로 내세우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애국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려는

그이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데로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가고계신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창조물들이 일떠설 때마다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천만군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불러일으키시는 그이의 고결한 풍모는 참으로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의 끝없는 번영, 약동하는 숨결과 더불어 영생하신다는것을 생활속에서 현실로 체험하고있는것이다.

가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과 인민의 운명, 조국의 만년대계를 하나의 넋으로, 영원한 피줄기로 굳건히 결합시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한 충정의 세계가 낳은 태양송가이다.

대를 이어 불세출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백두산대국의 수령복 만세의 환호성이 구절구절마다 차넘치는 노래여서 우리 인민은 그처럼 소중하게, 뜨겁게 심장에 받아들인것이다.

가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이 노래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한목숨 다 바쳐 결사옹위하고 이 노래 우렁차게 울리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리상과 념원을 기어이 눈부신 현실로 꽃피울 결의에 넘쳐있다.

□ 천만심장이 터치는 수령결사옹위의 목소리

흘러온 조국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인민의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혼연일체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펼치며 이어져왔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려명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인민의 혈연의 화폭을 펼치며 밝아왔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슬픔속에 잠겨있는 자기들을 찾아오시여 사랑을 주고 힘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격정의 눈물을 쏟던 근위땅크사단의 장병들, 그이께서 이들과 함께 팔을 끼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화폭과 더불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아침이 밝아왔다.

어제날 하늘을 메우며 쏟아져내리는 눈발을 헤치시며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을 다시 뵙는것 같아 《아버지원수님!》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자락에 매달린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이 친아버지에게 아뢰듯 키돋움하며 그이께 귀속말로 속삭이는 화폭과 함께 력사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어푸러질듯 달려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매달리며 저저마다 곁에 서겠다고 서로 밀고당기던 초도의 군인가족들과 아이들,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정녕 떨어질수 없어 모두가 바다에 뛰여들어 만리대양이라도 헤엄쳐갈듯 그이를 목놓아부르며 따라서던 장재도와 무도의 병사들과 군인가족

들의 모습…

그렇게 조국땅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려와 안겼다.

이 땅의 날과 날들은 이렇게 흘러왔다. 쉼없이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자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그이의 옷자락에 매여달리고 정녕 한 발자국도 그이곁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혈연의 화폭들이 어디서나 펼쳐졌다.

령도자와 인민이 한피줄, 한마음, 한식솔이 된 이러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조선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을 개시하였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승전고를 울려왔다.

조선의 진정한 새 모습, 가장 위대한 힘의 과시는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천만이 안긴 일심단결이였다.

적들은 조선의 이 명줄과도 같은 혈연관계에 금을 내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인민의 마음속에 목숨보다 귀중히 간직되여있는 태양의 빛을 가리워보려는 원쑤들의 책동에 분노의 활화산이 터져올랐다.

온 나라에 《**김정은** 결사옹위!》의 뜨거운 웨침이 폭풍쳐 울려나왔다.

천만군민이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로 뭉쳤다.

그것은 하나의 신념으로 뭉친 단결의 성벽이였다.

믿는 마음이 없으면 뭉칠수 없고 끌리지 않으면 따라설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는 마음,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의지, 이것이 오늘 조선의 일심단결의 본질이고 백전백승의 원리이다.

그것은 자기 운명에 대한 인민의 투철한 자각이며 확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하늘로,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그이를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할 천만군민의 신념을 담아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사령부 바라보며 안녕을 축복한
전사의 그 념원 우리 지녔다
(후렴)
천만의 심장인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태양을 옹위하여 억세게 틀어쥔
백두의 총검은 서리발친다
(후렴)

하늘땅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총대의 사명은 변할수 없다
(후렴)

가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에는 혁명승리의 진리가 담겨져있으며 수령결사옹위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수

놓아진 조선혁명의 빛나는 전통 그리고 천만군민이 틀어쥔 총대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것인가를 간결한 시어속에 심오하게 담고있다.

가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래는 1절에서 수령결사옹위로 만장약된 인민군장병들의 마음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려는 원쑤들의 책동은 항일의 나날에도,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시기는 물론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조선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은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뛰여들었고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였으며 스스로 자기의 혀를 끊어 적들을 전률케 하였다. 그들이 지녔던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가장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투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그대로 이어받았기에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은 년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 신변안전을 한목숨바쳐 사수하였다.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것과 같다. 하기에 이 땅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결사옹위는 피로써 찾은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하는 길이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이는 길이였다.

하기에 오늘 천만군민은 전세대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의 그 숭고한 넋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 길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것이다.

2절 가사에서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위하여 천겹만겹의 성벽을 이룬 천만병사들이 억세게 틀어쥔 선군의 총대에 서리발치는 원쑤격멸의 기상에 대하여 소리높이 노래하면서 그것이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믿음직하게 지키는 정의의 보검인 동시에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기 위한 믿음직한 보루라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3절에서는 총대의 사명은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천만군민이 틀어쥔 총대, 그것은 수령옹위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력사가 가르쳐준 철의 진리이다.

이 진리를 뼈에 새길 때만이 조선인민은 자주와 정의의 위업을 굳건히 지킬수 있으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수 있다.

가요는 후렴에서 《천만의 심장인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시어로 력사발전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있으며 그것을 자각한 조선인민의 억년 드놀지 않을 결사옹위정신, 생의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목숨바쳐 사수하려는 참다운 인생관을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가요에 담겨진 이러한 높은 사상예술성은 힘있고 박력있는 정서로 일관된 선률형상에 의하여 한층 돋구어지고있다.

박력있고 진취적이며 뜨거운 열정을 안고 흐르는 노래의 전

렴은 살아도 죽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수령결사옹위의 한길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런가 하면 약박에서부터 폭발적으로 힘있게 조약하면서 강렬하게 흐르는 후렴의 선률은 이 땅에 준엄한 시각이 오면 천만군민이 그대로 육탄용사, 자폭용사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위하여 번개를 치고 우뢰를 터치려는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힘있게 형상하고있다.

이처럼 가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를 결사옹위해갈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노래, 맹세의 노래로 힘차게 울려퍼졌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비약이 일어나고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원쑤들은 공격의 예봉을 수뇌부에 집중하고 군민의 마음속에서 수령에 대한 믿음을 허물어보려고 갖은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발악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들이 더 높이 울려퍼졌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령도만 받든다》, 《우리의 신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목소리이다.

이 불변의 신념은 박력있고 정서적인 선률을 타고 온 세상에 메아리쳤다.

이 조선 이끄는 힘 억세다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우리가 바라는 꿈과 리상
모두다 꽃펴주실분
(후렴)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

눈부신 그 리상이 우리 목표다
령장의 결심은 인민의 승리
그이가 가리킨 오직 한길로
천만이 폭풍쳐간다
(후렴)

하늘땅 바뀐대도 역풍분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령도만 받들어가리
(후렴)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제목에서부터 추호의 양보나 타협이 없는 확고한 결심과

강렬한 주장, 굳은 맹세의 선언으로 새겨지는 노래가사의 구절구절에는 경애하는 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 누가 흔들어보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수령결사옹위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밀에 펼쳐진 오늘의 격변하는 시대의 위대한 현실과 자랑찬 결실들을 체험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혈연적관계를 맺고 사랑과 정을 나누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고 정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오면서 우리 인민은 지나온 나날에 그려보았던 휘황한 래일에 대하여 현실로 알게 되였다. 그리고 지나온 나날에 이룩한 자랑찬 현실과 같이, 그 비약적속도와 같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앞으로 더욱 눈부시게 행복해지며 위대해지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는 빛, 이 세상만물에 생을 주고 키워가는 태양과도 같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노래는 《이 조선 이끄는 힘 억세다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우리가 바라는 꿈과 리상 모두다 꽃펴주실분》이라는 가사의 첫 구절들로 형상하였다. 그것은 가사전반에 걸쳐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고 주장하게 되는 가장 확고한 근거이기도 하다.

우리 인민이 자기 실생활을 통하여 확증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그 과학적실천성, 그에 기초한 절대적믿음과 의지의 감정을 가요는 《눈부신 그 리상이 우리 목표다 령장의 결심은 인민의 승리》, 《그이가 가리킨 오직 한길로 천만이 폭풍쳐간다》라는 2절의 가사형상에 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나날들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을 자기의 목표와 승리로 확신하는것이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오직 한길로 폭풍쳐달린다고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는것이다.

가요는 또한 조국과 혁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인민이 간직한 사상과 신념을 명쾌하게 반영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 노래한 《하늘땅 바뀐대도 역풍분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령도만 받들어가리》와 같은 구절들은 바로 그러한 인민의 사상감정과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이 노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터치는 절대적지지와 철석같은 믿음의 합창이다. 그것은 또한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인민의 영광과 행복은 영원한것이며 보다 밝고 창창한 미래만이 약속되여있음을 확신하는 긍지와 자부심의 메아리이다.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우리 인민이 더욱 확신하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꿈과 리상을 꽃피워줄수 없다는것이다. 하여 가사의 매 절에서 보게 되는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

하리라》는 결속구가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으로 강렬하게 터져나오는것이다.

세상에 이렇듯 훌륭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를 가지고있는것은 오직 우리 조국뿐이다.

감히 조선의 하늘에서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원쑤들의 몽상을 깨뜨리며 단호하고 직선적이며 명백한 선언으로 충만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들은 더욱더 높이 울려퍼졌다.

누구랴 백두의 대업을 이룩할분이
그이는 **김정은**동지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
그이 증오는 우리의 증오
(후렴)
  백두의 혁명무력은 원수님만 따른다
  백두의 혁명무력은 그 령도만 받든다
…

가요 《혁명무력은 원수님령도만 받든다》는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실분은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이시며 그이와 하나의 숨결로 잇닿아있는 우리 혁명무력은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우리모두의 심장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까지 받들어갈것이라는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있다.

…

우리 심장 하나이듯이 신념은 하나뿐
대를 이어 명줄처럼 지키여가리라
당중앙두리에 천만이 뭉쳐진
우리 힘을 누가 당하랴
김정은동지따라 승리만 떨치리

가요 《우리의 신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결사옹위하며 끝까지 주체의 한길로 가고가는것이 곧 천만군민의 신념이며 이 신념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을수 없는 조선의 의지임을 온 세계에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천겹만겹의 성새가 되여 결사옹위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고난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끝까지 투쟁해나가는 이런 강의한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저 무변광대한 우주에로 솟구쳐오르는 우리의 위성에도,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이 태동하고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아이들의 궁전에도, 인민의 유원지와 공원, 살림집에도 그리고 이 땅에 하루가 다르고 분과 초가 다르게 일떠서는 건설의 신화속에도 조선의 이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수령결사옹위로 만장약된 한편한편의 노래들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정신적기둥을 허물고 제도의 《붕괴》를 꾀하는 원쑤들에게는 가장 무자비하고 준엄한 폭탄선언과도 같다.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노래, 맹세의 노래, 투쟁과 전진의 노래로 끝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천만군민이 부르는 결사옹위의 노래, 통일단결의 노래의 우렁찬 뢰성이 울리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일심단결을 감히 어째보려는 온갖 잡스러운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것이며 조국은 더 크고 힘찬 보폭으로 전진하게 될것이다.

□ 새 세기 혁명가요들의 심원한 세계를 새기며

혁명가요라고 하면 혁명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가요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가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혁명적인 노래로 알고있다. 항일혁명가요는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직접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운 참다운 조선의 혁명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하여 창조된것으로서 그것은 말그대로 혁명투쟁과 완전히 결합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이다. 항일혁명가요들은 투철한 사상성과 전투성, 높은 호소성과 통속성으로 하여 혁명투사들의 생활에서 뗄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되였을뿐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항일의 성전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이 땅을 또다시 거세차게 휩쓸고있는 백두산바람은 항일투사들이 사형장에서, 설한풍속에서 부르던 《적기가》나 《혁명군의 노래》처럼 그

사상예술성이 음악의 경지를 벗어나 투사들의 그 정신과 잇닿아있고 오직 《혁명》이란 단어와만 결부시킬수 있는 노래들을 낳았고 혁명가요의 위대한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그 일부 노래들을 통하여 새 세기 혁명가요가 태여나게 된 시대상과 시대정신에 대하여 새겨보게 된다.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환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혁명신념을 억세게 벼려주며 가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성스런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붉은기 우러러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처럼

키워준 품 받드는 량심도 의리도
순간도 변심을 모르는 신념으로 빛나더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부서져 가루돼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 백옥처럼

이 심장 높뛰는 한 일편단심 따르리
우리 당 위대한 숨결에 운명의 피줄 이으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열백번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 당 령도따라 끝까지 한길가리
한길 한길가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억센 기상과도 같고 이 땅에 혁명의 붉은 기폭만이 펄펄 나붓기게 될것이라는것을 확신케 하는 가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신념과 의지가 강하고 지조와 절개가 굳센 사람을 존경하고 내세웠으며 소나무와 백옥, 참대를 그 상징으로 비유하였다.

가요는 제목에서와 가사의 구절구절마다에 흐르는 사상감정이 민족적기질, 전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여 노래의 전반에 걸쳐 주장하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라는 서정의 핵을 명백하면서도 깊이있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은 누가 가리켜주거나 도와주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심장이 가리켜 스스로 택한 자주의 길이다.

붉은기, 이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기치이다.

혁명의 붉은기 높이 날리며 조선혁명은 언제나 승승장구하

여왔다.

붉은기를 바라보며 누구나 항일전의 그 나날 붉은기 나붓기던 혁명의 사령부를 생각하게 되며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창가를 삼가 우러르게 된다.

1절에서는 력사에 류례없는 폭풍우를 맞받아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 걸어오신 이 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 서계시는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가고가리라고 명명백백하게 주장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보다 승화되면서도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키워준 품을 받드는 량심과 의리는 순간도 변심을 모르는 신념속에 빛이 난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 안겨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민족, 행복한 인민,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 있어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한점의 그늘도 몰랐으며 언제나 희열과 랑만에 차넘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과 혈연적관계를 맺고 사랑과 정을 나누어오면서 우리 인민은 수령을 충정으로 받드는 마음을 량심으로, 의리로, 도덕으로 간주하고 지켜왔다.

량심도 의리도 도덕도 신념이 없이는 지킬수 없으며 량심과 도덕, 의리를 어지럽힐 때 신념도 무너져내리게 된다. 이것은 력사의 허다한 사실들이 증명해주는 진리이다.

혁명은 신념과 의리로부터 하게 된다.

노래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상감정을 명백하면서도 직선적인

결론으로 반영하였다. 다시말하여 인민이 지닌 그 마음은 절대불변의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할 때에 빛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해고도에서도 변치 않을 신념과 의지를 고동치는 선률속에 담은 가요는 3절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심장에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이 심장 높뛰는 한 마지막고동이 다할 때까지 일편단심 끝까지 따르고 따르리라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감정정서적으로 폭발시키고있다.

가요는 제목에서부터 관통되는 서정의 핵을 매 절의 중간부분과 가사의 후반구에서 반복적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라고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립장과 의지를 단호하고 명백하게 보여주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이 노래에는 그 어떤 미사려구도 불필요한 말마디 하나 없다. 오직 진실하고 열렬한 심장의 웨침과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가 하나로 결합되여 그대로 의지적인 가사가 되고 박력있는 선률이 되여 울리는것이다.

노래는 조선사람들의 신념과 의지가 어떠한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수령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 푸른 소나무와 같이 변치 않고 수령을 받드는 영광의 길에서 백옥같이 순결하게 살며 수령을 따라서 이 세상 끝까지 참대처럼 꿋꿋이 가리라는것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이 노래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이나 지을수도 부를수도 없는것, 이는 신념의 강자들인 조선의 군대와 인민만이 소리높이 부를수 있는 심장

의 노래이다.

조선혁명의 근 한세기 력사가 함축되고 수천수만의 선렬들의 목소리가 비껴있는 가요, 혁명의 진리, 생활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우쳐주는 가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야말로 백절불굴의 혁명가요라고 말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이 승리한지 70여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왜 조선에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혁명가요가 울려나오는것인가.

오늘 항일혁명가요들의 피절은 구절들과 대비할만 한 환경과 정황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조선혁명의 조건이나 환경은 그 양상이나 형태에서만 달라졌을뿐 여전히 준엄하고 어렵다.

오늘 공화국은 세계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도전으로 인하여 인류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악랄한 중상, 봉쇄와 제재의 포위환을 전례없이 조여놓은 핵소동,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인권》소동과 함께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이 땅에는 어느 한시도 포성이 멎은적이 없었다. 그에 맞서 조선인민이 터뜨리는 분노의 성명들과 담화들, 엄숙한 보도와 통첩장들이 계속 울려나왔으니 과연 지구의 그 어느곳에 이런 최악의 환경이 조성된 곳이 있는가.

비록 감옥이나 단두대는 없어도 이 땅에서 매 사람의 혁명에 대한 절대불변, 백절불굴의 신념을 검증할 그런 환경이나 정황은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생활속 그 어데나 있다. 정세가 악화될수록, 난관이 겹쌓일수록 우리 대오에는 항일투사들이 발휘한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꽉 차넘쳐야 한다.

이 혁명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 훌륭히 대답한것이 바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같은 혁명가요이다.

가요는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가증되는 오늘의 정세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이 간직하였던 불굴의 신념을 가슴깊이 쪼아박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인민만이 말할수 있는 신념의 선언이기도 하다.

력사의 반동들에게 철추를 내리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북돋아주는 또 하나의 혁명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혁명의 전구
(후렴)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꿈결에도 가리라 그 언제나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이 땅우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곳
(후렴)

한생토록 가리라 대를 이어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당을 따라 끝까지 갈 영광의 길에
필승의 넋을 주는 태양의 성산
(후렴)

천만군민의 철의 흐름이 백두산으로 굽이치고있다.

보무당당히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가고있다. 군인들과 청년학생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백두산에로 향한 답사행군대원들의 발걸음이 힘차게 이어지고있다.

백두산, 그 산정에 무엇이 있기에, 무엇을 두었기에 이 나라의 군대와 인민은 봄날에도 겨울에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끝없이 가고가는가.

백두산정을 오르며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그에 대해 대답해주고있다.

노래에 담겨진 사상주제적내용은 신념과 의지, 필승의 넋을 안겨주며 영웅조선을 승리에로 추동해주는 백두산을 그 언제나 가슴에 품어안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과감히 투쟁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결의를 담고있다.

노래는 이러한 사상감정을 간결하면서도 통속적인 시어들과 웅심깊은 철학적세계를 펼쳐주는 가사형상으로 훌륭히 안받침

하고있다.

봄날에도 겨울에도 그리고 꿈결에도 한생토록 가리라고 하면서 그 언제나 혁명의 전구이고 우리 마음의 고향이며 필승의 넋을 주는 태양의 성산—백두산에로 달려가는 절절한 심정을 노래한 가사는 그대로 시대정신과 천만군민의 사상감정의 토로이다.

노래의 가사들에서 보여주고있듯이 백두산은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며 이 땅우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을 승리에로 향도해주고있으며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갈 영광의 길에 필승의 넋을 안겨주는 조선혁명의 성지, 태양의 성지이다.

하기에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 원쑤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인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백두산에로 천만군민은 거대한 대하가 되여 끝없이 가고있는것이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백두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에 대한 이 나라 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공경은 백두산과 관련한 수많은 시와 노래들, 예술작품들을 낳았다.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울림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불러오던 백두산에 대한 노래들과는 확실히 다른 충격적인 메아리를 안겨주고있다.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새 세대 주인공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하고 상상도 못했던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앞을 막아나서고있는 오늘날 백두산은 자기의 유명한 백설령봉들과 칼바람에 지난 시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적의미를 품어안고 빨찌산의 후손들을 부르고있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의 칼바람맛을 맞아보아야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서 천신만고 모든 괴로움 달게 여기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새겨안게 되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온 나라에 차넘치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철학세계를 가사형상속에 비껴담은 시대감정의 분출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펄펄 살아숨쉬고 우리 시대의 맥동이 쿵쿵 높뛰는 이런 노래야말로 사람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겨주고 지칠줄 모르는 혁명신념을 벼려주는 혁명가요라고 말할수 있다.

백두산뫼부리와 같이 드놀지 않는 억척의 신념, 백두산 칼바람처럼 진할줄 모르는 정신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이 땅의 인간들뿐아니라 예술도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의 상상봉에로 이끌어가고있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던 그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이 씌여진 한그루의 구호나무앞에서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한그루 구호나무에 영원히 질줄 모르는 혁명가요의 억센 숨결을 부어주시고 선렬들의 넋이 어린 신념의 글발이 우리 시대의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불길로 활활 타오르도록 하여주시였다.

천만국사로 누구보다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이하여 백두산에 그리도 자주 오르시였는가.

하늘과 땅을 휩쓸며 온 산악을 통채로 뒤흔드는 백두의 칼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장을 쾅쾅 두드린다.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쑤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우리는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나 례사롭게 대하던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을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주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가는 계승의 대통로로 넓혀주시고 그에 걸맞는 행군가를 인민에게 안겨주시였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온 나라에 나래치도록 하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시는 심정으로 삼복의 무더위도, 눈보라세찬 폭설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여난 혁명가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가리라 백두산으로》!

이 노래들의 구절구절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의 그 날들에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군대와 인민들에게 늘 강조하시던 오늘날의 혁명신념에 대한 가르치심들이 그대로 가사화된것이다.

이 혁명가요들의 가사에는 다 실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백두의 신념, 백두의 천출명장이 일으키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이 조선, 이 행성을 억세게 디디고 거대한 혁명의 폭풍을 일으키고있음을 그리고 이 나라 인민의 심장마다에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 뿌리내린 혁명의 철리도 조선혁명의 간고성과 함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덜지도 더하지도 않고 다 반영되여있다.

훌륭한 명곡은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며 새시대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치와도 같다.

지금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그야말로 백두산칼바람처럼 온 나라 방방곡곡을 뒤흔들고있으며 청년들과 군인들,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우리 시대의 명곡으로 되였다. 두편의 명곡의 놀라운 전파력과 감화력은 우리 인민들이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세계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최상의 경지에서 계승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그이따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력사의 역풍을 밀어내며 폭풍쳐내달리는

우리 인민들의 힘찬 진군소리를 감동속에 듣고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백두의 눈보라는 살을 베는듯 한 눈가루, 얼음가루의 돌풍이 천지를 휩쓰는 말 그대로의 칼바람이다.

지동치는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던 때 밀려드는 적의 대군을 발밑에 굽어보시며 백두산에 오르신 그이의 미소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의 표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이후 **김정은**령도자께서 걸어오신 길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끄떡없이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신 완강한 의지의 전투행로라고 할수 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해오신 격렬한 공격전의 나날이였다. 이 나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그 누구든 조선의 자주권을 건드리는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백두의 칼바람과도 같은 초강경대응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리시였다.》

□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혁명정신 이어가리라!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는 실로 가슴벅찬 사변들과 랑만으로 가득찬 창조와 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열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은 전설에도 없었던 만리마의 나래를 펴고 비약하며 내달리고있고 세계를 놀래우는 천지개벽의 새 모습이 시간이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주체조선의 진군속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향한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원쑤들의 발악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지만 최후승리에 대한 천만군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담아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더 높이 울려나와 시대를 진감하는 혁명의 메아리가 되여 온 나라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돌진해나가는 천만의 대오에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주며 울려퍼지는 노래들중에는 세대를 이어 사람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는 노래들도 적지 않다.

지난 시기에 창작된 혁명적인 노래들에는 혁명투쟁의 력사와 전통이 비껴있으며 전세대 인간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 륜리도덕적풍모와 생활감정이 반영되여있다.

젊음으로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기상과 숨결에 활력을 더해주며 새 세기의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이러한 노래들중에는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도 있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

이 노래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아버님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께서 1918년에 지으신 노래이다.

우리 인민들은 남녀로소 누구나 이 노래를 사랑하며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기에 근 한세기전에 태여난 노래이지만 금방 창작된 새 노래와도 같이 느껴지고 어디서나, 누구나 스스럼없이 즐겨 부르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되고있다. 마치도 우리 세대를 위해서 지은 노래처럼 이 노래의 사상과 정신은 우리의 투쟁과 생활속에 공기처럼, 생명수처럼 깊이 스며들고 있다.

인류음악사에는 인간의 신념과 의지, 불굴의 사상정신을 노래한 가요들이 있지만 이 노래처럼 한 나라, 한 민족의

위대한 혁명정신을 대표하는 그렇듯 거대한 무게를 가진 노래,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장중한 울림을 안고 대를 이어 혁명을 추동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가요는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우리 생활에 아름다운 행복이 꽃펴나고 문명의 향기가 파도칠수록 우리 세대의 심장속에는 왜 대를 이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울려나오고있는가.

인민의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모진 고난과 시련, 희생을 동반하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초행길이다.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 혁명가가 얼마나 강해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의 주제가와도 같은 이 노래로 가르쳐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나라의 독립을 기어이 이룩할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선각자로, 탁월한 지도자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며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투쟁로정은 참으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길이였다.

봉화리와 중강, 림강과 팔도구와 무송에 이르기까지 타향에서 타향으로, 만리 이국땅에로 끊임없이 이어진 선생님의 혁명활동로정은 형언할수 없는 시련을 헤치며 동지를 얻고 혁명조직을 꾸리며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의

길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의 가혹한 박해와 몸서리치는 감옥생활, 엄혹한 추위와 굶주림이 겹쳐들 때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혈로를 뚫고나가시였으며 혁명가는 처음 간직한 원대한 뜻을 절대로 버릴수 없다는 강의한 신조를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전 로정을 불굴의 서사시로 수놓아오시였다.

1918년 가을 감옥에서 출옥하시였을 때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제대로 걸으실수 없는 형편이였다. 하지만 지금 제 한몸을 생각하고 걸음을 지체하면 조선독립이 그만큼 멀어진다고,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떠나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결연히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시였다. 그때 만경대를 떠나시기에 앞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가 《남산의 푸른 소나무》였다.

여름은 가고 어느덧 겨울을 예고하며 찬바람이 불고있었지만 예나 다름없이 푸르청청한 남산의 푸른 소나무, 닥쳐올 겨울의 눈서리를 이겨내고 다시금 양춘을 만나 소생할 소나무의 굳센 모습을 바라보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심장이 불을 뿜는것인가 한자 또 한자 가사가 흘러나왔다.

…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 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한가슴에 부여안으시고 남달리 뼈아프게 목격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리고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굳히신 지원의 사상을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구절구절에 담으시였던것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그 어떤 외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사상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고 하여도 불사신처럼 굴함없이 싸우겠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금수강산삼천리에 밝은 세상을 안아오겠다는 계속혁명의 사상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맥동치고있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고 하여도 백절불굴의 의지를 지니시고 시련의 찬바람을 맞받아 쉬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가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신념의 메아리였고 그 불같은 한생의 행진곡이였다.

조선민족의 운명이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한편의 노래로 서슬푸른 압제의 총칼로도 빼앗을수 없고 정복할수 없는 민족자주정신과 굴함없는 자주독립의 의지를 전체 조선민족의

심장속에 뿌리깊이 심어주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을 마련해주신것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창작과 함께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는 조선혁명을 기어이 완수하는 길에서 우리 세대가 대를 이어 영원히 간직해야 할 혁명의 명맥과 혁명가의 신념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정신이 뿌리깊이 체현되여있다.

혁명의 길에는 시련이 많다. 그 시련을 신념으로 이겨내야 하는것이 혁명이다.

대를 이어야 끝까지 목적을 이룰수 있고 혁명절개를 굽히지 말아야 시련을 이겨낼수 있으며 신념을 지켜야 승리할수 있다.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 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이 시어들은 혁명가가 어떤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멀고도 험한 혁명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 품으시고 떠나시였던 길, 조국해방이라는 혁명의 큰뜻을 성취하시는 길에서 부모님들을 다 잃으시고 20년만에 홀로 만경대고향집에 들어서신 그이의 심정이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라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비장한 가사와 선률속에 가슴 사무치게 어려온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혁명의 피줄기, 그 명맥이 무엇으로 이어지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백전백승만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정신이 무엇인가를 뼈와 살에 쪼아박아주는 신념의 글발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준엄한 시련속에서 전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조선혁명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줄달음쳐올수 있은것은 절세의 위인들께서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맥박치는 사상과 정신을 신념으로 간주하시였기때문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사상과 정신은 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에서 귀중한 자양분으로 되였다. 령도자로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의 밑바탕에도, 류례없이 치렬한 반제투쟁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실록의 갈피마다에도 이 노래의 심원한 세계가 자리잡고있었다.

지원의 새벽길로부터 오늘의 영광의 만리길에로 몇번이나 대를 바꾸며 이어가는 이 길, 그것을 노래로 쓰면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되고 그 자욱자욱을 하나로 이으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한생이 숭엄히 어려오고 그 길에 우리 운명과 미래를 실으면 최후승리의 해돋이가 이 심장에 용암처럼 끓는다.

오늘도 끝없이 울리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는 조선로동당의 계속혁명정신이 응축되여있고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는 우리 세대의 의지가 맥동치고있다.

노래의 심오한 뜻을 새기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처럼,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 조국을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처럼 나도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변함없이 가려고 합니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연단에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한구절한구절을 신념의 글발로 심장에 쪼아박으시고 주체혁명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세계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동무야 알겠느냐, 양춘은 눈서리를 이겨내야 오고 혁명은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굴하지 않는 정신과 대를 이어 싸워가는 오직 한길에 있다는 이 노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위대한 정신적재보이며 핵보다도 강한 필승의 힘이다.

노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심장속에 삶과 투쟁의 영원한 좌우명을 새겨주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신념의 천만리길을 이어 이 땅우에 기어이 최후승리의 양춘을 불러오는 수천수만의 《남산의 푸른 소나무》들을 키워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념원하시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길에서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며 시련의 나날에나 행복한 나날에나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충정의 일편단심을 변치 않는 사람들, 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고 하여도 불사신처럼 굴함없이 싸워 당이 준 과업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마는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사들…

이들이 바로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오늘의 불굴의 투사들이다.

혁명가들이 한생토록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정신이 집약되여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들, 백절불굴의 신념의 인간들을 끊임없이 키워내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노래에 맥박치고있는 사상과 정신으로 만장약되고 선군의 신념으로 백배해진 이 철의 대오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조선은 뜻을 더 원대하게 가질것이다. 절세의 애국자들의 불굴의 영웅기상이 어려있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천만군민이 한목소리로 부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 때 민족자주위업,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누리를 진감하는 위인찬가

저 자 오성길, 한진아
장 정 박 봉 혁
교 정 정 윤 우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6(2017)년 1월 26일
발 행 주체106(2017)년 1월 30일

ㄱ-1325ㄷ

ISBN 978-9946-31-052-7